2020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활동사례집



(인쇄매체) 신문 등

01 e대한경제(구 : 건설경제신문)

• 사업명

2020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실적

기획기사 12회, 카드뉴스 9회, 지면광고 20회

• 내용

- 기획기사
 - · 소규모 현장 '비계·작업발판' 안전불감증 심각
 - ·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 · 안전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비개선 적극 투자
 - ·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조치 등 세세하게 지도
 - · 토사유실·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 · 31도 이상 땐 관심,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 · 상하수도·배관공사 땐 산소결핍 위험성 꼭 확인해야
 - ·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위험율 높다
 - · 산재율 증가하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 ·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서둘러야
 - ·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 · 건설현장'추락사고 감축'팔 걷어부쳤다
 - · 겨울철 건설현장 '난방기 화재·폭발'주의보
- 카드뉴스
-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등(생략)
- 지면광고
- · 설치하고 착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등(생략)

고용·안전 10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제16121호 건설경제

코로나가 불 지른 '휴업수당'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0) 회사으로 공사를 줏다하 거설혀 장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노 동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거석인 통성상 휴언수당은 사절하는 경우가 드물어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하고노동조한총여맥(하고노총)은 첫 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 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개발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코루나19루 큰 피 해를 본 건설업종의 고용 대책을 논의 할 노사적 회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하는 건설현장이 많은데 대 부분 일용직인 건설노동자에 휴업수당 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위협 을 받고 있다"며 대책 바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책회의를 우선 요구한 것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 회를 구성할 경우 절차와 시간이 상당 히 소요돼 현장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학수었다는판단에서다

노조가 건설현장 휴업수당을 문제 삼 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민노 이어 한노총도 지급 요구 전례 없던 사태, 건설업계 '당혹' 원청 건설사, 지불 책임 없지만 직접 고용 하도급업체 부담 커 "특수성 감안, 발주처가 나서야"

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총)이 일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사 태를 빌미로 한 무급휴직 강요가 잇따 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 도은시청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휴업수당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휴 언수당은 생수한 개념이다

우선 원청 건설사에는 휴업수당 지불 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일용직근로자 대 부분은 워도급 건설사가 아니 하도급사 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도급사는 원 도급사에 재료 노무 경비가 포함된 금 액으로 공사를 계약하고, 원도급사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하도급사에 지 북하다 이에 휴언수당은 지급해야 하 다면 일용직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하도급사가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중단돼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이 를 지급하고, 사후 원청사에 범리적 절 차를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 른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도급사는 코로나19와 같은 투수 상화으로 이채 반색하는 비용은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 당시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낙찰받는 게 현실인데 휴업수당으로 발생한 추가비 용을 원청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성 없는 이야기"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해 원도급사 혹은 발 주처 등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휴업수당이 자리 잡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그동 안 건설현장에서는 포괄적 임금제 등을 이유로 휴업수당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 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휴업수당 지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어디서 어떻게?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상언·기타 주거시설 사고육 높아 추락이 60%… 70%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해바다 줄어드 는 추세지만 여저히 다른 사업보다 위험 도가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 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28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의 절반 에 달하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업 산업재 해사망자수를 지난해보다 14% 줄인 360 명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올해 사업안저보건연구원이 발간하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보고 서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매해 절반 이상 의 사고 사망 사례가 밤새하는 공종은 건축공사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건축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자는 총 789명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고 사망 사 레이 약60%에 닥하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상업 및 기타 주거 시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전체 건축공사 사고 사망 사 례중33.3%디

아파트 공사현장 역시 사고 사망 발생 이 많다. 최근 3년간 아파트 공사현장에 서는 총 147명이 사고를 겪었다. 이는 전 체 건축공사 사고 사례 중 19.2%의 사고 율을 차지한다.

건축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 사망 사례가 많은 현장은 투목공사다 최근 3 년간 총 190명의 사고자가 발생했다. 전 체 사고발생 현장의 15%에 달하는 비중 이다

이 외에 전기통신, 플랜트 산업설비, 체육시설 등 복합공사의 경우 사고율이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공사'에서는 사고발생률 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사고 사망 발생은 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다. 전체의 70.8%가 20억원 미만인 소

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이 20억~120억원 미만인 중 소규모 현장에서는 18.2%, 12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는 109%를 차지한다. 이는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자 선임 의무화 여부와 무관치 않다. 사회이 이렇자 정보는 온해 초 사언아 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 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안저관리 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 임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2020년 7월1일) △ 80억원(2021년 7월1일) △60억원(2022년

7월1일) △50일일(2023년 7월1일)으로 아 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 사례 가운데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다

추락사고는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사 고 사망의 약60%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 추락사고를 겪은 건설근로자는 781명 에 달한다. 이는 사고 사망 발생 건설현 장에서 '잔언 박판 미석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사고 발새 사례에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의 비율 은 2016년 9.7%에서 2017년 14.8%, 2018년 17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업계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추락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고 유형들은 각각 10%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문체에 맞음'으로 반색하 사고가 추란사 고의 뒤를 이었지만, 2018년 들어서는 '깔 림' 및 '부딪침'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



전국 도로 11만km 봄맞이 일제 정비

국토부, 겨울철 손상 보완작업 경기부양 효과 위해 신속 진행

지 저국 국도와 지방도 등 저국 도로 약 11만km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 혔다.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얼룩지기 나 손상되고 동결용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청소도한다는계획이다.

국투부는 지난달까지 주요 가선도로 를 대상으로 낙석과 도로파임 등 얼음 이 높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 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이번 입제절비에서는 해빙기 절검 결 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 로도로포장보수와낙석위험비탈면보



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 중 점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도로 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도로정비 예산은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 김용선 군토부 도로군장은 "코로L

이후의 도로 여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 저하게 도로를 주해할 수 있도록 복찰 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기업명	모집내용	경력	마감얼	문의
성도건설	건축시골	결력	채용시	032-866-165
메이스건설	개발사업(부동산/PF)	경력	04/12	02-6309-601
태영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전체	채용시	02-2090-210
KCC건설	안전관리자	75.00	04/13	041-681-920
원건설	건축/공사, 설비, 안전, 품질, 안전, 건축/감리, 제무	경력	04/12	043-229-244
케이알산업	현장 안전관리자	경력	04/13	031-639-052
디더불유씨앤디	건축(시공/공무/안전)	경력	채용시	032-858-85
태평양개발	CS팀장, 건축시공	경력	04/10	02-2106-761
한신공영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보건	경력 전체	04/30	02-3393-318
계선	현장관리	경력	채용시	02-3441-325
금호건설	Project계약직 제용(안전)	경력	04/12	02-6303-06
쌍용건설	건축, 토목	경력	04/15	02-3433-72
GS건설	호텔 리모델립 보건관리자	전체	채용시	010-4950-828

\$\tau \text{12-990-4697} \top \text{helner@worker.co.kr}

기획기사(2020.4.7.) -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종합 제16132호 건설경제

건설업은 일하는 시간 짧고 임금은 높다?

비수기엔 끼니 걱정 대표적인 '통계 착시'

일용직 근로 형태 일반화 어려워 시기별로 업무량 차이 발생 뚜렷 공제회 "조사 시기 대폭 넓혀야"

건설업이 다른 산업보다 근로시간은 짧고 임금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산업에 비해 비정규칙 임금 수준이 높고 정규직 임금은 산업 전체 평균보 다 난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마 이 같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 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나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 대비 5,4%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지의 시 간당 임금총액은 2만2193원으로 전년(2 만1203원)보다 4.7% 상승했다. 비정규 직은 1만5472원으로 전년(1만4492원) 대비68%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 산업 평균보다 831원 많은 2만1404원으로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정규직 임금 때문이다. 건설업 비점규칙 시간당 임금총액은 2 만1854원으로, 정규직(2만981원)보다 높았다

이는 금융·보험업(2만4951원), 교육서 비스업(2만4320일)에 이어 3번째로 높 은 수준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은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 했다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소정 실근 루시간)를 비교해보면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건설 다"고 조언했다.

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2만1805원이었지만, 정규직은 1 만9696원에 그쳤다.

근로시간의 결우 건설업 종사자 모두 전체 산업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

전체 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총 실근 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대비 4.0 시간 중인다 정규지은 165 2시간 비정 규직은 112.1시간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가가 4 5시가 4 2시가 가수해다

건설업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총 실 근로시간은 전체 산업 근로자의 평균치 보다 22.1시간 적은 130.3시간을 기록했 다. 정규직은 160,3시간으로 전 산업 평 균보다 40시간 절지만 비절규칙은 984 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137시간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건설현장 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일반한하기 어려운 데다 시 기별로도 업무량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 유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당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숙련직 기 술인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칙이 정규칙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막했다

그는 "건설업 비정규직은 일감이 있 을 때는 일이 몰리지만, 공사가 없는 시 기에는 수입이 아예 끊겨 생계가 곤란 해지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조사 시기인 6월은 약같이 많은 성수기 여서 조사 시기를 월 단위가 아닌 연단 위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 김희용기자 hyong@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

#1 2018년 10월 저분 저주시의 하 언무시석 신축공사 혀장에서 작언자 1명이 추란해 시망하는 사고가 박생해 다. 사고자는 외부 쌍줄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방수작업을 하던 중 중간 난간대 가 미설치된 곳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못했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 2017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텐 시추고사 청자에서 자연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해다 사망자는 자연방 판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작업을 하던 중 높이 3.5m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시 아저무 아저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악려졌다.

소규모 현장 '비계·작업발판' 안전불감증 심각

추락사고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 최근 3년간 215명이나 사망 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산업재해통 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최근 3년간 (2016~2018년) 총 1490명의 사고 사망자 가 밤새했다 이 중 추락 사고로 인하 사 망자는 847명(56,8%)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추락사고, 어디서 발생할까

추락사고의 웨인으로 꼽힌 기인물을 분석하면 '비계, 작업발판에 의한 사고' 가 가장 비벼하다 최근 3년가 비계와 작 업발판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망자는 215명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이 이 개구부 및 단부가 16.8%, 지붕 및 대 들보에서 10.7% 등의 순으로 재해가 발 색했다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더욱 빈번하 게 박색해다 공사금액벽 추탄사고 사 망자를 살펴보면, 공사비 120억원 미만 의 공사현장에서 686명(81%)의 사망자 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업장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다 총 613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의 72.4%를 차지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인 식이 미약하고 안전보건시설 투자에 미 흠해 사고밤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현장에 안전시설 비용 지원 아저 비거고다는 고사비 50억의 미마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

전체 25.4%로 '1위' 불명예

안전보건공단, 50억 미만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등 설치·지원 특별기획점검도 연중 실시키로

하고 있다. 올해 554억원의 예산을 편성 해 아저하 임체형 작업발판(시스텐비 계), 안전방망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

시스텐비계 임차비용은 설치 면접별 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용은 공사금액별로 3억워 미만 현장은 65% 3억워 이상~20 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마 현장은 50%까지 지원하다

건설현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 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진 경우 연간 3 곳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한다. 다만, 협력업제는 철근 콘크 리트 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대상이다.

지워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 문하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패트록 방신 특벽기회전건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지도하는 페트록(순착) 방신이 특별기회점검도 연중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특별기획점검 결과, 전 년보다 거석인 사고 사망자를 57명 중 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 다 이에 올해는 여주 지해한 반찬이다.

특별기회점검은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

페트록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작업받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의 설치 상태와 아저대의 아저고 찬용 여부 등이다. 곡 조나 철골, 미장 등 고소작업에 따른 안 전작업 기준과 절차도 확인한다.

추락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하도록 현장조치를 실시한다. 즉시 개선 이 어려우면 현장 답당자가 일주일 이내 개선 결과를 확인받도록 했다.

절걸 거부나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등 불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개선과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특별 기회점검은 현장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 는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개선하도록 함 으로써 불필요한 노동력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며 "보다 안전한 선진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 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114 건설]][4 교객과 20年 2000 2020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M&A자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상담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층 전화 02-522-1114 팩스 02-522-7800 홈페이지 www.c114.com 이번째 (2~3019-1179 이성국 (2~3019-1101 박상수 (2~3019-1118 평유교 (2~3019-1118 박소영 (2~3019-113 박소영 (2~3019-1101 박상수 (2~3019-1105 공부명 (2~3019-1113 광보전 (2~3019-1103 공부전 (2~3019-1105 공부명 (2~3019-1123 구자원 (2~3019-1124) (2~3019-11

건설공제조합 제117회 총회(2020, 4, 21)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안내드리 오니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있으신 출자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배당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채무에 중당하거나 또는 지급 을 유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액 출자증권 1좌당 20,000원

지급대상 2019, 12, 31 현재 출자좌수를 보유한 출자주

지급장소 관할 영업점

저는 기간 2020 4 23(목)~2020 5 29(금)

지급방법 조합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지급기간에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서'
 를 작성하여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배당급 관련 조합서식은 조합홈페이지(http://www.cgbest,co.kr) /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서식에 있습니다.

* 관할 영업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로그인시 좌측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 4 23

The Best Guarantee CG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기획기사(2020.4.23.) - 소규모 현장 '비계·작업발판' 안전불감증 심각

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현장을 가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3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조치' 등 세세하게 지도

2인1조로 꾸려지 응워들이 불시에 공 사현장에 들이닥친다.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의 건설현장 페트롤 점검팀이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방문에 한창 작업 중이던 건설근로자들은 어리동절한 모 습을 보이다가 '사고위험 특별단속반'이 라고 적힌 조끼의 문구를 보자 머리에 얹 어놨던 안전모의 턱끈을 황급히 내려 매 기 시작했다

건설경제 제16142호

지나 8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팀과 함께 찾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현장 패트롤 요원 들이 공사장에 진입하기 저부터 지적 사 항이 발견됐다. 건축법에 따라 공사장 가 릭막에 부착해야 할 '건축허가표지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지판에는 공사 규모와 예정기간,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지자체 다당부서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 일반인 -들이 미워 밤새 시 관련 문의를 함 수 있

패트롬 요워들은 공사장 지입과 동시 에 현장소장을 찾아 공사규모와 작업 근 로자 수, 공정률, 현재 작업내용 등을 물 은 후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자의 작업 형태 와 개인보충구 참용 추락 안져조치 여부

안전모 착용 불량과 미착용, 안전대 체 공사 규모·작업 근로자 파악 결불량, 이동식 사다리 사용 부적정, 안 전난간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우 등이 주 요단속사항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방망 개구부 덮 개 설치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 비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 여부도 실 핀다. 화재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자, 위험 요인 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계단 밑에 임시로 설치된 발판이 지적 대상에 올랐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 은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오가는 작업자들 이 미끄런져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으소 다. 이어 노후 이동식 사다리, 깜깜한 공 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등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다.

2층으로 올라서자, 새로운 사항들이 줄줄이 나온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일하는 작업자, 제대로 덮이지 않은 개구 부등이 발견됐다

"평소에는 잘 쓰다가 지금은 더워서 잠 간 안 쓴 거예요. 미안해요"라는 작업자 의 말에 페트롤 점검 요읨은 "저희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안전모만 제대로 써도 사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중점 확인 현장소장에 위험요인 시정 지시 하루 3~4개 현장 불시점검



약 30분간 점검을 바친 후 패트롤 요원 들은 현장소장에게 지적했던 위험요인 을다시금 짚어주며 시정을 지시했다.

현장소장은 시절사한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패트롤 요원에게 개선조치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시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행정조치를 받을수있다

패트롤틱은 곧장 다음 현장으로 향했 다 이러한 불시점검은 하루 3~4개의 현 장에 걸쳐 이뤄진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두 번째 현장에 진입하자, 페트롤 요원들이 다급 히외치다

"거기 선생님! 조심조심! 지금 하던 거 놔두고 일단 내려오세요!"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작업을 하는 미장공의 모습이 눈에들어온다

이 작업자는 이동식 작업대 위에 빈 플 라스틱통을 얹어두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더우이 아저고조카 차용하 지 않았다.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발판이 쓰러질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찍한 모습이었다

큰 소리에 놀란 현장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그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

위험 요인들은 계속해서 발견되다. 피 복이 벗겨진 채 연결돼 있는 콘센트, 외 부비계 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 고정되 지 않은 작업발판 방호선반이 미설치된 주출입구,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패트롤 요원 들의 눈썰미를 피해갈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나 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업함때 거치적 거린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 는 사람들이 많다"며 "작업자들에게 '안 전'이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공기 처럼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라는 인 식을 갖게 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 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김히용기자 hyong@

공동기획

올해 패트록 점검은

전국 3만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역량 집중 사고사망자, 작년보다 130명 이상 감소 목표

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이 연중 실시하 는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은 지난해 하반 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한 '100일 특별대책(7월~10월)'에서 발전된 사업이 다 이는 '진중'과 '사언방신 저희'으로 다 기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사업방식을 '현장순찰' 불시점검으로 전

공단은 전 현장 불시점검을 위해 기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잠정 중 단하고, 사망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전사적 역량을

그 결과 지나해 여기 116명이 사언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를 집계하 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로. 페트롤 방식으로 역량을 집중한 건설업 에서는 가장 많은 57명이 감소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0여곳이 늘어난 3 만개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패 트롤 점검을 벌인다.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대 체결 불량,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 불안 전 행동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를 하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 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린다

즉시 시정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현장

책임자에게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이메 일이나 모바일 팩스로 일주일 이내에 개 선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추락사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나 관 리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잘언 관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고예방 카드북'을 활용한 현장 안전교육도 제공

점검을 거부하는 현장이나 미개선 등 고위험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요청을 연계한 현장 감독으로 개선 및 감소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심각 성에 따라 현장적건에 다소 어려움이 있 으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지하고 있다.

패트롤 전용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대 면노출을 줄이고, 현장에 바스크 제공과 간염병 예방수치 안내 등을 변했해 안전 점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이처 북류창고 하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의 용접 등 화기작업과 전기 기계기구류 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요인도 점검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페트롤 방식을 정식사업으 로 편성해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855명인 사고사망자를 2020년 725명 이하루 130명 이상줄인다는계획이다

터파기가 필요없는 기내념 가시설 겸용 ▼ 최소공간(60~70cm)에서 터파기없이 간편시공 ▼ 부지 추가 확보 및 토지보상비 절감 가시설 겸용 옹벽으로 급속시공 가능 ▼ 옹벽저판 배제 및 지장물 간섭구간 적용성 우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7층(수내동, 분당동부루트빌딩) www.cabletec.co.kr Tel. 031-606-8020



기획기사(2020.5.12.) -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조치 등 세세하게 지도

안전규정 준수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비 개선 적극 투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 보고서

올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시례연구' 보고 서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을 강하하고 현장에서 안전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거나 기존 안전 보호장치와 장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 락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미국은 건설업 추탁사고 예반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에서 주락 예반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다양한 예방 기법을 시험하고 있다.

건설산업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비롯 해 스럴골공사 안전기준 스개인보호장 비에 대한 고용주 의무화 규정 신설 스보 행작업 표면 및 개인보호장비 표준 개점 스주택공사 추락방지 준수지점 등이 대 표정이다

또 국가중점프로그램, 지역중점프로 그램, 특정현장집중감독, 중대위반사업 장·단속프로그램과 같이 현장 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용규제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용예방 프로그램(VPP), 견략적 동닌자 프로그램(SPP) 제휴 프로그램(Allance Program), 도전 프로그램(Challenge Program)과 같은 제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영국은 지난 2015년 '고소작업에 관한 제도(Work at Height Regulations)'들도 입한 이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판련 된 모든 편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 는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을 사행하며 사고가 회기적으로 좋었다. 이는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 전 과정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확임을 부여해지체 안전관리 프로 그면을 개발및 운영하도록하는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매년 영국안전보건 청(HSE)에서 건설현장 불시점검(Safer Sites Targeted Inspection)을 실시하 고 있다.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시행되며, HSE에서 파건된 안전점검자들은 건설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접중단속을 시행 한다. 또 1992년부터 사업주의 의무조함 으로 '위험성 평가 요구조건 가이드 제 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성가포르는 기업감시(business Under Surveillance)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견 보건환리 실적이 나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업 인천관리 수준이 취약해 집중 안전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점을 부 과한다. 18점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입할 참여제한 등 불이었을 준다.

또한 강력한 발점제도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 규정 위반이 법물을 부패하고 유해한다. 이는 신치 발점을 부패하고 제한다. 이는 신지 발점한 건토자의 채용이나 취업하가 연장조치를 불러하는 제 도로, 외국인 근토자 수요가 많은 싱가 모트 특성상 강력한 법 준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건축물 해제공사 등과 같은 고위험작 업에 대해서는 작업하가제도를 통해 사 전에 하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감 동형의 건독업무와 별개로 집중감시하 는 건독제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준수방문건설팅(SCAV) 제도를 도입해 공인된 안전보건전문가 에의해현장맞춤식 안전보건 규정 준수 를 지원한다.

일본은 건설사업 일 하청 간유기적인 안전환리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환리 를 하도록 하고, 공사계획서 제도를 도입 해나동사 법론 1개월 전후에 후생노 동성에, 14일 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공 사계회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비계의 추락 등 재해 방지에 대한 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의 건설현장에 Air-mats와 Soft-filled mats가 깔려 있다

미국, 안전보건달성인증프로그램 미가기업이 자육적으로 아저 과리

영국, 'Fall arrest mat' 시스템 고난이도 현장 에어매트 등 사용

독일,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 도입 근로자 활동 반경·추락 높이 제한

일본, 재래식 강관 비계 사용 금지 민간 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유도

정을 개정해 특별교육을 추가했고, 작업 발판과 관련된 추락병지 조치를 통해 관 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과 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추락방지시설을 제거할 때는 작 업 후 즉각 임상회복하도록 규정을 강화 하다

비계 조립 작업 관련 추락방지조치 또 한 기존 5m 이상에서 2m로 확대 작용하 고 작업발한 및 안전대 등 설치 요건을 강 화했다. 이와 함께 강관비계에 사용하는 강관에 대한 규정 및 발주자의 점검의무 도강하했다.

현장 예방기법

미국은 안전보건달성인증프로그램 (SHARP)을 시행해 민간기업이 안전관 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추탁사고를 예 방할 수 있게 한다. 현장 안전관리를 지 원하기 위해 규정준수 지원 전문가 제 도(CAS), 안전보건 규정준수관 제도 (CSHO), 다양한 노동력 및 제한적 영어 사용자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원해 각 중 OSHA 규정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 단물 지원하다.

영국도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Purin Trolly'는 철끌구조물의 지붕에 패널 설치 시 이중난간을 플랫폼 데크에 설치하고 레일이 깔린 이동룡로로 자재 및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통로 및 안관난 간을 설치해 구락을 예방한다.

또 'Fall arrest mat' 시스템을 도입해 추락방호망이나 부착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공과점에 에어매트 등 을 사용하게하고 있다.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계 추락방지규정을 개정해 개선된 가 드레일 및 추락방지 장비들을 사용하도 통하고 있다

독일은 새로운 예방기법인 능동형 추 탁방지시스템, 수평안전대 부작설비, 슬 레브 거푸집 조립 시 추락사고 예방시스 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에는 안 한다 및 안한다 부작실비를 활용해 근로 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활동 제한 시 스템(Trave) Restrain Systems)과 추락 의 높이를 제한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추 탁 경지 시스템(Fall Arrest Systems)이 있다 새로운 추탁위험평가시스벨을 개발해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던 기존 평가제 계를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구체적 으로 수치화해 상대적인 위험순위를 확 인할수 있도록했다.

일본은 현장에방기법으로 건설업 안 전위생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난 간대 선행공법, 유해기원평가사업, 견문 건설업체 안전관리 활동 축진사업, 저층 주택 건축공사 안전대화 추진 모델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다.

난간대 선행공법은 비계 조립 등을 할 때 작업용 발판의 바깥면에 난간다를 우 선 설치한 후 본작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다던 설치를 위해선 일반 강판 비계 대신 시스템 비계를 써야 하므로 시스템 비계보급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모든 공공공사 설계와 계약에서 재래식 강관 비계 사용 이 금지되고, 시스템 비계(2체형 작업발 판)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난간대 선행광법 적용으로 만간공사에서도 시스 템 비계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사안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담당자가 작업공쟁 및 안전지침을 클라우드를 이 용한 정보공유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

김희용기자 hyong@

5-0-11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기획기사(2020.6.10.) - 안전규정 준수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비 개선 적극 투자

6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역대급 폭염 예고… 안전관리 '초비상'

제16171호 건설경제

온열질환 꾸준히 증가… "물·그늘·휴식, 꼭 기억하세요"



언종별 온염질화 산업재해 밤생현황

	Л	건설업	기타임 기타입	농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제조업
2014	5	4					1
2015	7(1)	4(1)	3				
2016	34(6)	15(4)	10(1)	2(1)	2		5
2017	25(5)	12(4)	9(1)	2	10000000	2	1000000
2018	65(12)	33(7)	17(1)		4(1)	3(2)	8(1)
2019	22(3)	13(3)	3	1	1	1	3
계	158(27)	81(19)	42(3)	5(1)	7(1)	6(2)	17(1)
		26	() = AUDITIA	BEAROL 7	25/100 4 20 7	A AFTUAC	ITIP &&

기상철에 따르면 올여름(6~8월) 평균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0.5~1.5도, 지난 해(24,1도)보다 0,5~1도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 하는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9,8일) 과 작년(13.3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됐 다. 열대야 일수도 12~17일에 이를 전망 이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다른 산 업보다 무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위는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고 온열 질환 음입으키다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 재해 밤새현환'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 업은 전체 산업에서 온열질환이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종 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건설업 온염질환 발생 사례는 총 81건으로, 이 중 19명이 모수은 일었다.

특히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에는 건설업에서의 온열질환 산 업재해 발생이 평년보다 2배 이상 급증

건설현장, 야외작업 많아 다른 산업보다 더위에 취약 최근 5년간 19명 목숨 잃어

코로나19 전염병 지속 영향 올 여름 체감더위 더 심할 듯 열사병 예방 수칙 꼭 지켜야

사망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집병관리본부가 여름마다 가동하는 온열질한 감시체계에는 열사 병 역탑지 등 더위가 직접적 웨이이 되는 6개 질환만 폭염 피해로 집계되기 때문

게다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 해 감염병 예방 조치가 더해지며, 근로 자득이 체각하는 더위가 더운 심해직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 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건설 현장 종사자에게 '실외에서 2m 거리유 지가 안 되는 경우 바스크 착용'을 권고 한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전문가들은 폭염이 유발한 실제 산재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으로 대표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장은 작업자 탈수 예방을 위해 아 이스박스, 보맹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바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시에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 늘진 장소를 내련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으로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는 별 도 휴게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의자나 돗 자리 등의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 때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유청하면 즉시 조치 해야한다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도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15~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 분)을 섭취해야 한다.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묵이다. 폭연경보가 밥 령되면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잔언자득이 더위로 인해 안제모 안제 대 등을 벗지 않도록 안전장구 착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열사병에 걸리면 의식장애, 혼수 등 중 추신경계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열탈진 은 과도한 땀 극심한 무렵감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열사병은 신속 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온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과 예방수최 준수가 중요하다 °C 이상은 '관심' 단계다. 근로자가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바련해 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온이 35°C까지 올라가면 '주의' 단계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수칙은?

31°C이상 땐 관심, 38°C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에 접어든다. 시간당 10분씩 그늘에서 휴 식할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 시간대(오 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 옥외작업을 자제 해야 하다 온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를 차용하는 거이 좋다

35°C 이상은 '경계' 단계다. 시간당 휴 식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불가피한 경 우가 아니라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을 중지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열탈진 화자는 즉각 안정 취하고 체온 40도 넘으면 얼음물 先처방

민간한 근로자는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에 유 의해야 한다.

기온이 36°C를 넘어서면 '심각' 단계로 올라간다. 이때부터는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이 아니라면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온열질한 한자가 발생할 때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근육 결련은

염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0.1% 농도의 식염수를 공급하고 근육 바 사지를 해야 한다.

체온이 35°C 이상인 열탈진 환자는 서 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식염수를 공급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체온이 40°C 이상인 열사병 환자는 체 온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0°C 이하로 빨리 내 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함 때는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해 증발 냉각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열피로', '열성발진' 등 온열 질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원한 환경에 서 휴식을 취하고 낼수 모욕 등을 통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증상을 완화 학수있다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 · 건설경제



기획기사(2020.6.22.) - 31도 이상 땐 관심,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종한 4 2020년 7월 3일 교육일 제16180호 건설경제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잰걸음'

중소규모 민간 현장도 안전 전문가 별도 선임

公共과 동일 적용 규정 마련

사업 단계별로 '각 주체'들의

'관리 역할-책임 구분'이 핵심

업계 "산안법과 중복규제 우려"

중소 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안전 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지 된다. 또 이천 물류센터 공사 화재 사고 의 원인으로 거론된 위험작업 동시 진 행동 시공 과정의 총괄 안전관리 책임 은 원도급사에 두고, 근로자 보호를 위 해 근로자재해공제를 환대하는 방안이

2일 관련업계에 따 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바련할 예정인 건설안전특별법에 이 런 내용을 담을 예정 이다 현재 법안의 뼈 대를 마련해 건설업

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트넥번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 규 정을 바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발주자는 절절 공사비와 공사기 간을 바련해 설계나 시공, 감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에 전 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취지가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권한이 있는 밥주자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자는 것인데, 건설 관련 전 문성이 낮은 중소 규모의 건축공사 밤 주자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마 발주자에게 지도나 조언을 제공 할 안전전문가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 을 시설하지는 않고 기존 제도를 활용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을 고 려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 정별 간섭 동시작업 관리 등 현장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을 원도급사가 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 이 워도급사에 있다는 의미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 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 한도 특별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근로지

> 보호를 위해 산업 재해보상보험(산 재보험) 외에 근 로자재해공제보 험(근재보험) 적 용을 확대하는 빙 아도 유럽하게 건 토되고있다

트번번에는 번치 조하도 내려되다 시 망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공사를 중지하 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공사는 과 짐금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 망인데, 기존 벌칙보다 강화될 것이라 는 저말이 우세하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특별번 제절 취지에는 공간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증가와 중복 규제 가 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근재보험을 확대한다면 가입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보험료는 발주자가 내 더라도 원청이나 하도급사 중에 누가 가 입 주체가 되는지 추후 책임소재를 가 릴 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 저보거법과 중복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시공단계에서 작성 해야 하는 아저과리계회도 사이번에 규 정된 안전보건대장과 유사할 것으로 보 여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두 번씩 해야 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떻게?

토사 유실·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수시설 현장에서 순찰에 나선 근로자 3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시설 점검 을 위해 깊이 45m 지하 저류시설로 내 려갔다가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 부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며 휩쓸렸다. #2 같은 달 15일에는 전북 진안군의 문 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장의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건설 현장에서 맞춤형 대비가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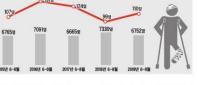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이달 중순까 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이 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 나 적겠으나,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 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철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산재사 고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장 마철 거설업 재해 형화' 자료에 ID로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나철(6~8 월)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전체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작년에 는 다시 증가 (99명→110명)한 것으로 집 계됐다. 사고부상자의 경우 평균 6900명 수준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장바철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위험요 인은 △집중호우 △감전 △추락 △토사 붕괴 △강풍 등이다.

집중하우가 쏟아짐 때면 투사 유심이 나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주변 지반 약 화로 인한 인접건물 및 시설물이 손상 되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 다. 주변 하천 등의 수위가 올라가 공사 현장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볼개구조물 개 보수 및 지하구조물 시공 중 빗물 유 인으로 이하 최수이 위해도 있다.

집중호우시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 사전에 지하매설물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지하매설물 현황 파악하고 가석도로 안전 화보 등 필수 젖은 손으로 기계 조작 말고 미끄럼 방지 대책도 세워야

안전을 확보해둬야 한다.

가져사고 열시 장마철에 집중되는 재 해다. 장마철에는 전기기계 기구를 젖 은 손으로 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건설업 감 전 사고부상자의 21.4%(151명), 감전 사 고사망자의 13.6%(9명)가 이 시기에 발

모든 저기기계 기구는 누저차다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 접지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임시 수저설비 설치장비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임시 분 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각각 설 치해둔다.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 용전 절연상태를 점검하며, 절연장갑이 나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 장구도 꼭 착 용해야한다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고도 장바 철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주변 추 란위형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란방지름 위한 작업빌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 구보 던개들은 사전에 설치해 사고를 데 방해야 한다. 작업자들 역시 개인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토사 붕괴는 주로 흙막이 지보공이 무 너지거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비물이 스며들며 흙의 강도가 저하 되고 토사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사면 상 부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을 금지하거나 자재 등의 쌓기를 금지해야 한다. 현장 주변의 흙막이 지보공, 옹벽 과 석축 등의 상태는 사전에 미리 점검 해두고 필요시 보갑조치를 해야 하다

강풍에따른건설기계등의 무너짐 넘 어진 재해에도 대비해야 하다 수가푸소 이 초속 10m를 넘으면 타워크레인 설치 나 수리, 점검, 해제작업 등을 중지하고 철골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순간풍속이 초속 15m가 넘으면 타워크레인 운전 작 언을 멈춰야하며 초속 30m를 초괴하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각 부위의 이상 유무 절걸은 먼저 해야 하다

아울러 각종 가설물과 안전표지판, 적 재물이 제대로 결속됐는지 살피고,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묶거나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 다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수에는 안전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 등에 대해 서는 과대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트에통풍구를설치해둬야한다.

또, 강풍 예보가 있으면 무리하게 작 언에 나서지 말고 기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김희용기자 hyong@

공동기회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이 도입 된 단일형 일체화 교각 공법 ◎ 현장타설 말뚝 내에 긴장시스탬(강봉, 강연선) 을 적용 외력에 대한 취약구간 (1≤1/β) 에 프리텐션을 가해 초기 변형 억제 ◎ 기존 단일형 현타말뚝보다 큰 말뚝의 수평지지력, 휨 강성을 확보 GNS 말뚝 (단일령 현타말뚝) 대구경 말뚝의 구조적 안정성 향상 당력 도입 >> 💕 말뚝체의 프리텐션 도입으로 말뚝 단면 감소효과 기반암 중기단 의 기호 후역중앙로 120, 유타워 1909호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후역중앙로 120, 유타워 1909호 TEL 031-214-6390-3 FAX. 031-214-6394 🦰 지오텍엔지니어링(주)

기획기사(2020.7.3.) - 토사 유실 · 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4 2020년 7월 27일 월 2일

여름철 불청객 '질식사고' 예방하려면

제16196호 건설경제

위험성 꼭 확인해야 상하수도·배관공사 땐 산소결핍

지난 5월 서울 강남 소재 하수구 개량공사 현장에 서 맨홀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히 고 동료 노동자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하는 사 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아르곤으로 차 있 던 배관 내부에 훼손된 퍼지댐(퍼지페이퍼)을 복구하 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배관 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판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은 질 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 절이다. 특히, 밀폐공간은 공간적 특성으 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치명 적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 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건 강장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한다.

공기 중 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21% 정도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기 18% 미만인 상태다. 산소결핍 장소에서 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상심하 게 되고, 심할 때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5분이내에 사망하게 되다

더욱이 여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집 중호우나 장마 등으로 정화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미 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쉽다

... _ ... 산소농도가 정상범위(18~23,5%)라 하 더라도 오수 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 에 녹아있던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 가 발생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작업 전은 물론 작업 중 반드시 지 속적으로 한기를 해야 한다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적적 공기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의 밀폐공간에 작업 자가 독어가면 직신 재해가 박색하다

특히, 질식사고는 재해자의 절반 이상 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이 1 2%인 점에 비해 질실 으로 인한 사망률은 52,9%로, 일반 사고 성 재해 사망륜이 40배가 넘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0~2019년) 질식사고로 인해 312명 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166명이 사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현황 · 발생건수

장마천 미페고가서 미생문 증신 공기 중 산소농도 평소보다 적어 방심하고 작업땐 사망사고 발생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도 위험

작업전 환기팬 사용해 정화하고 반드시 보호장비 갖춰 진입해야

또, 질식 사망사고는 밀폐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따라 구조자가 호흡용 보 호장비 없이 구조에 나서다 사망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망자 166명 중 22명이 다 른근로자를 구조하려고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동시에 2명 이상사망할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질식사고 사망 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전체 질식사고 사망자의 44%를 차지한다.

사고현장은 주로 오페수 처리시설 상 하수도 공사현장이나 배관공사 등에서 반생해다

유해인자별로는 166명의 사망자 중 황 화수소에 의한 사망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소결핍에 따른 사망자는 39명

아저보거고다 과계자는 "우리나라 거 설업에서 벌어지는 질식 재해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에 대해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라며 "사업주와 밀폐공가 관리자 작업자 가 질식 재해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작업 장내 집식사고 우려 작업을 사전에 파악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무단출임 금 지 △잔언 저 ·잔언 중 화기 △구조시 공 기호흡기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제시 한다

- .. 우선, 밀폐공간과 같은 질식 위험장소 는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 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작업 전에 교육과 훈련,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 용안에 대한 파악 및 관리방안 등의 프 로그램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밀폐공 가으로 평가되 작소에는 작업 과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안전 조치 없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환기도 중요한 요소다 산소가 부족하 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밀폐공간은 강제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 도를 측정하고 환기팬을 사용해 급기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구 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료를 구 조해야하다 산소농도가 현저히 부족한 밀폐공간

에 보호장비 없이 들어갈 경우 순간적으 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상실하



작업근로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 후 밀폐공간인 맨홀로 들어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 재해 예 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공단은 질식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실 태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심시하고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위험군으로 분 류되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 실태조사·위험성 평가 실시 에나서고있다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올해는 지난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방식 해 작업환경실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편 추진 태조사에서 및 폐공간을 보유

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배출시설 보유사 업장을 중점 지원한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밀폐공간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위 험 수준을 고 중 저 위험군으로 등급 화해 위험 수준이 고위함으로 평가된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 도록 하고 진전 기술지원을 식시하다

아울러 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때 필 요장비인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출정기 송기마스크 화기패 구조용 삼 각대 등을 관련 사업장에 무상으로 대 여하는 서비스를 우역 죽이다 장비 무 상 대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로 하면 되다

특히,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방식 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방침 이다. 공단은 사업장이 신청하고 공단 을 방문해 수령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 업장이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장비 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편 학계회이다

질식사고 예방 장비에 대한 구입비 용도 일보 지원하다

공단은 50인 미만소 기업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으 로. 산소 및 유해가 스 농도 출절기 송 기바스크 환기팬

기급 구축설비 등 및 폐공가 작업에 필 요한 장비 구입시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70%를 지원 한다

질식 재해 예방 교육 및 기술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홈페이지(미디 어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질식 재해 예방 스티커, 안전표지, 안전수칙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에 따라 밀 폐공가 작업장의 사업주가 작업 저 '및 페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해하도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李 건설경제



기획기사(2020.7.27.) - 상하수도·배관공사 땐 산소결핍 위험성 꼭 확인해야

 4
 2020년 9월 19일 수요일
 종합
 제6212호
 건설경제

1.8兆 규모 5개 대형사업, 상반기 중앙투자심사 통과

7477억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 10월 '첫삽'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 5건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통 과했다. 에산편성을 위한 관문을 넘으면 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화이다.

18일 〈건설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의 '2000년 중투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00여원 이상 대형사업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824억원이다. 중투심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상 자방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행 만부가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시하는 법적 절차다.

중투심을 통과한 사업 가운데 총사업 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응 복 합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건부'로 조건부로 관문 넘어… 2024년 준공 7219억 '고양 일산태크노밸리' 조성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신속 추진 여수경도 도로건설 등 3건도 탄력

2020년 중앙투자심사 통 이상 대형사업 ()=총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응-복합 개발	(7477억)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72199)
대구시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1210억)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1178억)

경남 고성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1130억)

중투심 관문을 넘었다.

총사업비 규모가 7477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비 346억원, 시비 2394억원, 기타재원 473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태공사 (Lifi로 부행시 준의동 부천종합운동) 일원 40만교 규모부지에용 복합개발사 업을 추진해 연구 개발 시설과 공원 녹 지축, 친한경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다 부행사는 올해 10일 참중해 2024년 준 공을 공꾸 루하고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 7219억원으로 대어급이다. 역시 조건부로 중투심을 통과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 에 테크노벨리를 조성해 중강현실(AR) 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 업 등 차세대 현신기업을 유치하다는 계 회으로,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 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한다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 확인가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완료 해 보상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스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제사업 스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 설사업 스스바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 성사업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성서 자원화수 시설 개체사업은 총사업비 1210억원 규모 다 당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재정으로 전한됐다. 대구시는 이 사업의 입찰방법을 턴기(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결정하고 난참자 결정방법은 가중한 기 준방식으로 하난기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178억원인 여수경도 해양판 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여수 경도 해양판광단지 개발에 대비해 신월동과 아도, 대경도 간 1.3㎞을 아치교, 사장교 등으로 있는 사업이다. 내년 6월 개설공 사에들어가 2024년 완공활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이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변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130억원 규모다 축산산업의 고질적 문제 인 냄새 가축잘밤및 생산량 저하 문제해 절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축 산단지 조성 사업이다. 거류면 부지 19만 ㎡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한다.

이 밖에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공사(총사업비 933억원)도 중투심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재혀기자타세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 높다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 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일요일에 근무하 는 50대 신입 일용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산대사망사고 유형별 발생면함 본석' 자 로에 따른면 일요일 건설현장 사고발생 위협률이 평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 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위험률은 근무자 수에 100%를 곱대 사랑자 수를 나눠 수 처하하 자료다.

건설업의 일요일 사고발생률은 64.9% 로, 평일 사고발생률(35.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토요일의 사고발 생률은 21.5%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맞 추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硏, 현황 분석 일요일 사고발생, 평일의 두배 고령층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현장경험 많으면 다칠 확률 낮아

"촉박한 시일 내 공사를 바치려고 무리 한 작업을 벌이다 보니 건설근로자의 퍼 로가 누려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악해져 사고로 아어지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 난5월 국회에서는 일요일 공공건설공사 를 금지하는 '건설' 울건흥법' 개정안이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수록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됐다. 지난 2016~2018년 발생한 건설업 업무상 재해 사고사망자 중 가장 높은 평 균 비중을 차지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 <u>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연락별 분포</u>

<u>구분 201년 2017년 2018년</u>

<u>1017년 1017년 2018년</u>

<u>1017년 1017년 101</u>

구분	201	6년	201	7년	2018년		
TE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6개월 미만	373	86.7	340	82.5	230	86.1	
6개월~1년 미만	26	6	31	7.5	17	6.4	
1년-2년 미만	15	3.5	15	3.6	10	3.7	
2년~5년 미만	9	2.1	14	3.4	5	1.9	
5년 이상	7	1.6	12	2.9	5	1.9	
계	430	100	412	100	267	100	

사고사망발생자중 336%에 달한다. 60대 역시 사고사망자 배율이 높다 60 대는 평균 35.4%의 배중을 멋지하며 30 대의 뒤를 이었다. 반면, 20~30대의 사고 사망발생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했다 달 은 기간 20대는 평균 1.7%, 30대는 평균 5.3%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근속기간별로는 '초짜' 근로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차 지하는 비중은 평균85,1%에 달한다. 사실상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서 사 고사망자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어 스6개월~1년 미만6.6% 스1~2년 미만 3.6% 스2~5년 미만 2.4% 스5년 이 상이 21%를 기통해다.

근속기간이 긴 '베테링'일수록 사고사 망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배율이 높아자는 제조업과 대조를 이룬 다 제조업의 근속기간법 사고사망자는 6개월 미단이 3.1%로 가장 높지만 이후 부터는 스승개월~1년 미만 10.5% 스1~2 년 미만 14.1% 스2~5년 미만 20.9% 스5 년 이상이 23.3%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이 익숙해질수록 방심하게 돼 사고율이 높 아자는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관례이 풍부해질수록 위험요소에 대한 인해가 높아져 작업을 보다 더 안전 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I너 고 걸려졌다. 기하요기자 hyongi



기획기사(2020.8.19.) -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고시망 발생 위험율 높다

4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제16229호 건설경제

실마리 못찾는 '전문건설 대업종화'… 반발기류 여전

전문건설업종 개편의 실마리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반 보다는 선도에도 봉구하고 일부 저무어 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모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날 서울 모처에서 전문건설험회 산하 18 개 업종별 혐의회 대표자들과 가닥회를 열고 건설업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등

을 토대로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 으로 줄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점 기가 특례기가을 두고 다른 저무 대언종 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설업 종 개편아을 추지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 개편안이 세간에 알려지자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반대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업종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편안 논의 행지만 이견 무좁혀

포장공사업 대규모 집회 이어 1인시위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위헌소송 불사"

전문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레 모든 업 종을 불러모은 만큼 임범에고 발표를 앞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업역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역부 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복수의 전문업종에서는 "전문성과 특 수성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대업종화는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을 야기할 뿐만 아 니라 부실시공을 유발해 국민 안전을 위 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반대의사가 뚜렷한 업종은 포장

공사업이다

국토부는 포장공사업을 토공사, 보 링·그라우팅· 파일공사업을 통합한 '지 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합쳐 하나의 공종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포장공사업계는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대규모 반발 집회를 개최한 데 이 어 지난달부터 국회와 전문건설회관, 국 토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주이다

박영은 포장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우 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는 배경으로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등 포장공사의 전문화 첨단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처럼 전문성을 높여도 모자 랄 때에 전문업종을 대공종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석목유지관리언계는 언종폐지 철히

적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건설산업 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함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이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 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 적은 위혀적이고 위법적인 해적인법작 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협 회가 김&장 법률사무소에 '건산법상 시

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행법에서 △유 지관리업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 검과 유지관리를 대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시설물**안전법**) 스유지관리업자 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교육시설법) 스유지관리 업자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기반시석관리법)음

○구에 이어 공약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 문제 삼았다

이처럼 여러 관련법에서 규율하고 있 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건 산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 권 침해 결과를 초래해 위한적인 행정인 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 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하 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김&장은 "헌법 상 권력분립의 워치 및 하위법령이 상위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률우위의 원 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고 위법" 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직 언으로서 유지관리사업을 선택해 이름 수행할 직업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비 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등 평등권을 위 반하게 되는 만큼 헌법소원의 사유에 해 당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용기자 hyong@

"산재율 증가하면,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산업안전보건硏, 상장사 재무제표 분석… "산재예방, 비용 아닌 투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 영성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아저보거여구워이 최근 발가하 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 효과'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기 발생하면 △1인당 매출액 △매출액 성 장률 △1인당 영업이익액 △영업이익률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1~2018년까지 코스 피 · 코스달에 상장돼 있는 586개 기업 의 공시 재무자료와 연구원에서 추출한 사업재해 발생자료를 결합해 부석해다 산업재해가 기업의 스매출액 스영업이 익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생산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 노사관계 약화 노동력 상 실 등으로 이어졌지만, 경영실적과의 관 계를 정량화한 시도는 국내 최초다.

우선, 산업재해율이 1% 증가하면 기업 의 1인당 매출액은 약 1215만~143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분석 대상 기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인 7 억일의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이당 영언이인에는 매출에보다 더 ㅋ 게 감소한다. 산재율 1% 증가 시 1인당 영업이익액은 211만~247만원 감소하는 데 이는 평균 영업이일액의 8% 정도에

여언이인에에는 사언재해에 대하 지 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이 모두 반 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일은 설명했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재해율이

1% 증가함 때 1.11~1.21%포인트 낮아지 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의 평균 적인 영업이익률이 2,57%인 것을 고려 하며 사업재해이 보접점이 여하이 샀다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 저해다

매출액 성장률은 0.45~0.71%포인트 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륨은 약 6 1% 재해율이 1% 증가하면 평균 성장률의 10% 내인가 감소하는 센이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비용 인 보상비용과 노동자 신규 고용, 간접 비용 등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 [변해]

연구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 까지 포함해 분석한다면 산업재해가 미 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어촌뉴딜 경쟁률 '3.9대 1'… 지자체 236곳 신청

해수부, 내년 사업지 60곳 선정

노후 선착장 현대한 등 어초지역 점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공모에 4배 가까운 수요 가몰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 상지 선정 공모'에 57개 시 · 군 · 구에서 236곳이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에 60곳을 사업지로 선 정할 예정이어서, 경쟁률은 39대1이다. 어촌뉴딜300은 어항 기반시설 현대 화와 함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통하개발하는 어초 재색사업이다

지난해 첫 사업 대상지로 70곳을 선 절해고 올해는 120곳에서 사업을 지해

당초 해수부는 내년에 50곳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 산안을 고려해 신규 대상지를 늘렸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어촌뉴딜300 예 산은 총 5219억원이며, 여기에 60개 신 규 사업을 위한 예산 840억원이 포함돼

해수부는 이번 공모 경쟁률은 지난해 경쟁률 2대1보다 높아, 어촌뉴딜300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분 석했다

해수부는 수산과 어촌, 관광, 건축, 디 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 관 합동 평 가위워회'를 통해 서면 및 현장 평가 등 을 진행하고, 오는 12일에 최종 대상지 를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 사업지가 선정되면 어초뉴 딜300은 오는 2022년 이후 50개를 추가 선정하고 바무리하게 되다

김창균해수부핵신성장일자리기회단 부단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높은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 겠다"고말했다.



기획기사(2020.9.1.) - 산재율 증가하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건설경제 제16242호 **종합**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3



2018년 5월, 단독주백 건설현장에서는 만 64세의 형틀공이 내부비계 1단 (높이 2m) 작업발판에서 1층 작업자한테 유로폼을 전달받기 위해 돌아서다 왼 축 방을 하다며 약2m 아래로 떨어져 목소용 잃었다.

#2018년 2월, 교실 증축 공사현장에서는 만 59세의 직양반장이 학교 건물 5층 외부비계 작업발관을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관이 발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서둘러야"

산업안전보건硏, 재해예방 방안 제시 안전난간 미리 확보해야 위험 최소화 "日·유럽처럼 도입 법령 제정 시급"

'안전난간 선행(先行)공밥'이 건설현장 의 비계 추탁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 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공법을 될 용하면, 비계 설치 해제 등 비계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안전난간 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추탁 재해 예방을 위한 비계 안전난간 선행공 법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 의 추립재해 예방 방안은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임시 가 설통로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비계 구조물은 구성 부재를 하부에서 상부로 단계적으로 조립해 설치한다.

하지만 아래에서부터 조람해 올라가 는 조립의 순서상 안전나간 설치는 작업 발란이 먼저 설치된 후에 이뤄진다. 따라 서 작업자는 비계 시공방법상 안전나간 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발만 위에 서 작업해야 하고 주락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실제 선설현장에서도 비계 관련 주락사고는 가장 반변한 산업재해 중 하나다.

연구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건설임의 중대재해 중 비계작업 관련 수 탁사망자 226명에 대한 분석결과인 주 단킨 재해를 일으킨 기인물로는 스랑한 비계94명(4.6%) 스달비계 34명(15.9%) 스아동식비계 30명(13.9%) 스작업발한 일제형 비계 25명(12.4%) 스말비계 12명 (5.3%) 스시스템비계5명(2.2%)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추락 사망 자 총 99명을 작업종류별로 보면 △비계

위에서의 일반작업 60.6%(60명) 스비7 설치·해제작업 27.3%(27명) 스이동 중 12.1%(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계 위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미고점 등) 스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및 는 설치불량(중간난간대 미설치, 난간사이 간격 60m 초과) 스이동통로 미설치 등 로 안전난간이 없어 발생한 사례가 많다. 바면 일본과 유럽 등의 경우에는 이 오래전부터 안전난간 선행 공법을 도입 해 안져석과 작업성이 충율성을 제고함 왔다. 일본은 2003년부터 후생노동성이 서 '안전난간 선행공법에 관한 지침'을 기 적했으며 유과다체가 협결해 안정나? 선행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이 노련으로 사고사만 재해가 지소점이 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의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안전난간 선형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 안전난간 공법은 경제성도 우 하 것으로 환인됐다

연구임은 "일본 건설현장 기준으로 공 제성을 검토한 결과, 선행 안하나간(교 가새형, 또항) 설치공범은 추행 안하나 설치공법 대비 약 7%의 비용절관 호고 가 있는 것으로 본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내법은 아직 관련 근자가 없0

다만, 국내법은 아직 관련 근거가 없이 X형 선행안전난간을 건설현장에 적용 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만한 규칙 제13조"를 개점해 교차가내다 함)의 교차점이 바닥면에서 45~60m으 내일 경우 중간난간대로 인정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난간 선행공 법이 국내 건설현장에 도입되면 배계실 차 해제작업 중 추락재해 이많이 크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소했다.

김희용기자 hy

건설 분쟁 및 회생 전문 로벌 · 용사대급, 지체상급, 하자, 보증, 기압류, 광법특허분경 · 건설회사 화생(신청-인가, 채권자 대응) · 상황대리 건석학자· 등인적인 건강내려는데 (건화기사시한대회사업수의 (가)사시한대회사업수의 · 가 중하면도 등었다고 및 변기수 확선 변화시다수 문전

'기능인등급제' 이어 '적정임금제' 도입 가시화

'건설근로자' 정책 이끄는 국토부

건설근로자 정책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비증이 같수록 커지고 있다. 근로 자 정책은 고용노통부가 홈괄하고 있지 만 최근 건설근로자 정책이 급낸하면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적 으로 과여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 계 노동계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인 금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 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최저임금이다 다단계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 생산 체계 속에서 가장아래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암금이 각 같은 구려가 근데, 작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로자임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건고법 개정안을 보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해 고시하 법적근거는 고용부 총괄이지만 건설 주무부처 직접적 관여 늘어 긲현미 국토장관 의지도 '한몫'

는 주체는 고용부장관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산 출은 국토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기준은 시중노임 단가를 기반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양서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중

사 체계번경 방안을 내런 중에 있다. 적정임금 고시는 고용부가 하더라도 적정임금 산정과 고시에 필요한 실무각 업은 국토부가 주관한다는 뜻이다. 내년 3월부터 사행될 예정인 건설 기능 안동급체도 국토부가 실제관련 업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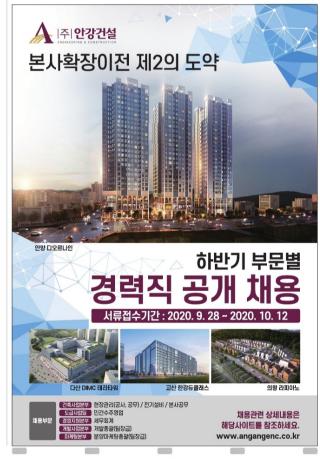
하도록 건고범에 명시돼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60개내외의 건설 기능 작종별 근로자를 초급과 중급, 고급, 특 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급은 격력과 자격증 보유, 교육훈련 포상 등을 총괄해 한산한 경력으로 결정된다. 기능 등급 산점과 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주로 맡게 된다. 고용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등급 산점에 필요한 자료 요점과 위탁 기 관 지점 등의 권한을 국토부가 행사한다.

건설근로자 정책에 고용부가 아닌 국 토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건설산업 전반을 다루는 국토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라 고용부의 통 상적인 근로자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 적도 제기돼 온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은 건 설근로자의 안전과 처루 개선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정임 금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건설근로자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기획기사(2020.10.5.) - 건설현장 비계 추락 시망시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도입 서둘러야

노동안전 제16263章 (은대한경제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축' 팔 걷어부쳤다

현장 패트롤 점점 3만개 → 6만개 안전조치 불량·개선 불이행 작업장

순찰카 32대 추가 투입 기동력 지원 소규모 시스템 비계 인차비 등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감소세를 보 상승하자,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

같은 기간보다 6명 감소한 661명을 기록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지 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3명 늘어난 349명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80명은 '추라'사고로 유명은 단리했다 공사규모별로는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 모 현장에서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

수가 90% 이상을 차지해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각종 안전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 난다 이에 곳다은 소규모 건석현장을 중 신으로 아저관리 및 간도은 대포 강하히

패트롤 점검 목표 2배 확대

공단은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사 고에 대한 페트롤을 강화한다. 안전조치 불량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율도 대 폭 높일 방침이다.

하는 아마니다. 하근에는 취작점건 모표를 개배로 놀린 다. 연초 3만개 현장을 점검했으나 연내

다. 현존 오건개 현장을 참접됐으나 현대 6만개로 확대한다. 불량사업장이나 개선조치 불이행 현 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연 계하는 행정조치 연계율도 3%에서 4% 로 높인다. 이는 현장의 개선 노력을 끌



사고유형별로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난 한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과 같은 추 탁위험 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또 겨울철을 앞두고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한 화재위험을 받지하기 위 해 건설현장의 가연물 격리 제거 여부 와 화재예방 설비, 시설문 안전상태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패트롤 순찰점검 현장 대응성 강회

공단은 순찰점검의 기동성과 신속한 1원을 위해 페트홀 전용차량 32대를 추 앞서 27개 일선 기관별로 1대씩 운영

하던 페트롤카를 총 59대로 늘렸다. 페트록 경용 차량은 이용해 순착점검 페트홀 선충 자랑을 이용해 눈걸음된 지역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밀집지역 순 찰시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방송을 병행 해 안전수획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

비해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지 원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9월 말까지 총 2만5000 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약 3만2000회 순 찬정건은 신시해고 이 준 1250개소는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

'건설안전 지킴이'로 순찰 강화 건설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400명을 활용한 '건설안전 지킴이' 순찰도 강화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 으로 2인 1조로 위험단계별 반복적인 점 검,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을 들어 3분기까진 약 6만5000회의 순 찰활동을 실시했고, 안전조치가 불량하 거나 미개선 현장에 대해서는 페트롤과 범행해 집중 점검을 실시, 개선 이행률 은 제고하다

용 제고했다 공단은 이에 더해 보다 신속 정확한 현 장 지원을 위해 건설현장 정보를 종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안전지킴이 순찰활 동과 페트롤, 민간재해예방기한 기술지

원. 유해위험방지계회서 심사정보 등을 모두 포괄한다

보구 포함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위험공정 및 위험작 업 시기에 맞춘 현장 밀착 지원으로 사고

공단은 순찰: 점검과 더불어 현장안전 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는 총 554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 장별 안전 관련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중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한장 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임 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한

역 지원하며, 안전방망은 공사금액별로 차등 지원한다. 비용지원은 동일사업주당 연간 3개소

홍보등을 지속실시하기로 했다.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한다

화재폭발 예방설비도 지원한다.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IN 용접작업 불연포 비상대피유도선

등의 구매비용을 최대 3000만위까지 지

안전교육 · 홍보 등 재해예방 참여 유도 공단은 사망사고 간축에 대한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유관단체들과 간단회를 갖는

한편, 위험현장 사업주 및 관리자 대상

이를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작업전 '10 안전교육' 자료와 추탁사고 예방 VR콘

안전교육 사료와 무디자고 내려 VR는 텐츠 13종 등을 확대, 재구성했다. 현장 순찰 점검 시에는 추락위험 요인 과 예방법이 담긴 카드북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 추락사고 예방 걸이형 표지 제공을

비롯해 소규모 현장 밀집지역 현수막 게

집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용보 등실 자속실시하기로 했다.
공단관계자는 "페트를 방식의 순찰점 검은 현장의 위형요인을 알려주고 반드 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 력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앞서 사망사고 감 소톱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설안전 우리가 지킨다

빅데이터 · AI 활용 '스마트 시스템' 건설 자동화 · 취약현장 선제적 대응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이영 호)은 '안건이 경영의 제1원칙'이라 는 모토 아래 임직원과 근로자 고객 이 아저운 위하 활동은 저게하고 있 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춘 고유의 안전날건시스템(OHSMS)을 구축해 고위형,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지 원, 점검하고 있다. 산성문산 축은 "빅데이터 활용, 인

공지능(AI) 기술 접목, 정보통신기 술 응합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건설 자동하얀 현장 안전파리 고도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과 AI 기반 실시

'안전이 경영 제1원칙' 바탕 매달 경영진 참석 품질 회의도 중점위험작업 사전신고제 특화

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능형

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능형 CCTV, 스마트 태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판리도 구현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형 TBM(Tool Box Meeting) 활동, 영상 과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공을 들이 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 휴게실과 복 지시설을 확대하는 등 감성안전 활 지시설을 확대하는 등 감성안전 불 동도 활발하다. 근로자가 작업 건설 수로 확인 점검해야 하는 항국을 이 해하기 쉬운 그림형식 수희카드로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는 CECO와 사업부장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품질안 전경영회의가 매달 열린다. 또한 모 든 공식회의 전에는 안전을 이야기 하고생각을 나누는 'Safety Talk'를 신시하다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자체 안전보건 간업안전보건법과 자체 안전보건 건물이 무하된 안전활동도 특징이 다. 중점위험작업 사건 신고제가 대 표적이다. 과거 20년간 발생한 재해를 분석해 위험성이 높은 11개 작업을



업계회을 검토하고 집중 관리한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협 결하사 소속이다. 현결사이 아저Q 대회사 소혹이나 업다시의 안전되 랑과 자율적 관리능력이 중요한 이 유다. 이에 삼성플산은 안전활동 우 수럽력사를 'Safety Champion'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럽력 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고 KOSHA 18001 인증 지원, 공종별 대

표이사 가닥하도 진행하고 있다.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4 입식 안전교육은 지양한다. 직접 체 험하고 토론하는 체험 소통령 안전

엄하고 도본하는 세염 소봉영 안전 교육에 공을 들이는 것도 삼성물산 안전관리의 특징이다. 'Salety Academy'를 건립해 전 임 직원은 물론 합력회사 관리자, 안전당 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화재 추락 지진 등에 대한 제험시설과 영상제험관 안전시설 전 시파음 갖춘 교육시석로 작년에 일 직원 2000여명과 합력회사 650여명이

의원 2000여명과 업무회사 000여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코로나(9때문에 비대면 안 전교육으로 전한했다. 방송 스튜디 오를 구축해 상호소통이 가능한 생 중계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게임 형 식의 E-Learning 안전교육을 개발 해 수강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 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회사이 아저파리여라요 해이 이 회사의 언전관리역당은 해고 에서도 인정받았다. 최근 싱가포르 용상교통청이 주관한 2020년 안전 경영대회(Annual Safety Award Convention)에서 삼성물산의 건설 현장들이 6개 부문의 상을 힘쓸었





기획기사(2020.11.4.) -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축' 팔 걷어부쳤다

노동안전 제16268章 (**은대한경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겨울철 건설현장 '난방기 화재·폭발' 주의보

올해 2월 부산 연제구 소재 단독주 백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내럭빅 해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 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상 1층의 내력벽을 해체하던 중 주택이 붕괴되면 서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준공 46년된 이 주태이 하주은 버티더 내려변은 머저 첫 거한 후 조적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 거인 두 노직 즉 집을 아닌 중 집인을 중 한 것이다. 겨울철 낮은 기온 탓에 발생한 균열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절기 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기오이 낮은 계절전 통성 타에 동절기 기온이 낮은 계절적 득성 맛에 동절가 에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함이 커지 는데다. 시기에 관계없이 빈발하는 추락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 기(매년 12~2월) 건설현장 사고성 재매

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도 꾸준히 12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27명이던 동절기 사고사망지 는 2016년 138명, 2017년 139명으로 증기 했으나, 2018년엔 119명, 2019년엔 120명 등으로 줄었다.

등으로 풀었다. 건설현장 전체의 사고사망자는 줄어 듣고 있지만 동절기 안전사고로 인한 부 상자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부상자 역시 2015년 5694명에서 스2016년 5697명 스2017년 5768명 △2018년 6021명 △2019년 5750명 등으로 해마다 5600~6000명선을 횡보

구성인계 관계자는 "원근 5년 연간 사

전체 재난 사망자는 줄었지만

동절기 3개월은 안전사고 줄지않아

전열기구 사용 많아져 사고 등 빈번 고용부 내달부터 800곳 '불시' 감독 국토부도 966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려하면 동절기 3개월간 사망자 수 감소 점하면 동절기 3개월간 사망자 수 감소 세는 독일히 눈에 되지 않는다." 면서도 "동절기 현장 가동률은 평소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중 발생하는 자라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절기(2019년 12월 - 2020년 2

일) 기준 건설업의 동절기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보면 스떨어짐 스넘어짐 스 맞음 등 순으로 '넘어짐' 등의 비율이 높

통히 하재나 폭박 집신으로 이하 사고

가 동절기에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아저보거고다 과계자는 "하재·폭박 안전보건동단 현세사는 화재 혹발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용접과 그라인당,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해 일 어나지만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및 견열 기구 과열, 건설현장 내에서 피우면 불 이 다른 장소로 번지는 등 계절적 특성 에 따른 사고가 빈밥하다"면서 "낮은 기 은 탓에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보 은 양생을 위해 피우는 갈탄에 의한 질 식 사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사고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현장 안견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가 한 리 '감독'강하에 먼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대 형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9일부터 한달

간 전국 800여곳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에 돌입한다. 열흘간 건설공사 원 하점 이 한동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한 뒤 대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파다되는 현장

이번 강동은나방을 위하 저역 기구 최 이번 삼혹은 단당을 취한 연할 기구 취급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길란 사용 등에 의한 질식·중독 사고, 안전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2일부터 전국

도로와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 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국 965개 검실현장이 대한 안점검검에 일입했다. 민간전론가 10명을 포함한 11 개항동점관년은 동절기 5차계 함 공사 원리 실태를 점검하고, 본그리트 시공 시 동결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결을 전해 당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화재나 폭 발사고를 비롯, 실차자(업에 대문 질식사 모든의 방생 기존에 느 17억대 기존

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주 자와 시공사는 물론, 현장근로자 개개인 도 동적기 아저사고 예방과 대비에 마저 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

건설안전 우리가 지킨다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역량 증대 1000억 이상 투자 최적 현장 구현

아'을 제절해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대폭 화대하고 있다. 거선해장 아저욱 취 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

· 소크로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안전 인력 운영 혁신 스안전비용 투자 확 대 스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스안전의 식 혁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현장별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보사 주십이 아저파리체계 화린에 나 서다 이를 위해 비졌규지 아저파리 나를 적규지하해 아저파리 연락은

스마트기술 확대 · 직원 의식 혁신 현장 관리직 '안전자격증 의무화' 2025년까지 전문가 1000명 확보

다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의 안전전 무가를 화되하다는 고규를 세워다 문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감시단(안전 자킴이)은 위협작업 중지권 등 권한 율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부 안전전 문자문역(안전전문가)도 선임한다. 안전점검 전남조되도 확대해 안전점 검 교육 상시 패트롤인 '365 안전패

도울 한성을 됩내면나 현대건설은 '사람과 생명 가치의 현장'을 안전판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적의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

트롤' 운영을 확대한다.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위생 이 곧 현대건설 경쟁력의 기본이라 는 생각으로 지난해까지 150억원을 출연한 동반성장기금에 올해는 100 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250억원을 협 면사 아저파리 투자에 지**있하**다

해서 안전관리 무자에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모든 건설현장에 스바 트 안전기술 도입을 환대하고 4차 산 업력명 스바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IOT, 바테이터 등을 활용 근로자 출

입 및 위치를 파악하고 출입 제한지



역 및 위험지역 출입 관리, 긴급상황 반색 시 중출 및 위치 파악에 확용하 다 또한 안전모에 스마트 태그(Tag) 등 부착해 근로자 동선을 제크하고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스 발생을 실시간으로 제크하고 인근 근로자에게 계고 알락을 보내 짐식 사고를 차단하다

건설장비 충돌방지 시스템도 도 진불하비 충돌하시 시스템도 모 입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장비 주낸과 작업구간을 모니터링해 근로자 접 근을 통제하고 협착사고를 방지한

. 현대건설은 최고경영진이 주재하 는 안전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영등포 구 대립동 소재 현대건석 기술교육 원에 문을 연 안전문화 체험관에서 는 외사 임식원은 젊은 입니사 근도 자들에 대한 안전 체험교육이 진행 되고 있다. 건설현장 위험요소와 대 형 재해발생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연간 1만명 교육이 목표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현장 안 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장경영에 더욱 노력하기 위해 이번 산업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절했다"며 "임 관리 강화 방안을 제품했다"며 "앞 으로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은 의원 책임지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 든 임죄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기 고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광화에 도더욱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기계종사자 81% "고용보험 가입 원한다"

고용부 특고 14개 직종 석문 87% "보험료는 절반씩 부담"

건설기계존사자 10명 중 8명이 고용된 전로/제공자자 18명 중 6명이 표정되 함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주와 근로 자가 5대통로 동일하게 부탁해야 한다는

비율이 암도적으로 높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 20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4개 직 종 3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용보험 가입을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 기용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학습지 교사 902.6%) 스대여계등장 존점검임(02.1%) 스신용카드회원모집인 (99.9%) 등 작품이 높은 응답됐을 기록 했다. 건설기계동시자도 응답자의 81.0% 기 무의심격 기업은 유비원인 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의 근 은 56% 등 낮은 응답틈을 보였다.

로자 87.2%가 고용보험 가입을 위했고. 400만원 이상은 806%로 비교적 적은 수

고용보험료 적정 분단비율은 전 직종 에서 '사업주와 종사자가 동일하게 부담' 을 응답한 비율이 87.3%로 암도적인 수

준을 기록했다.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은 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약 부담'

'5년 이상'이 52.5%로 가장 많았다. 1~ 2년은 14.6%, 3~5년은 12.6%, 2~3년은 116% 등 순이었다. 건설기계종사자의 겸우 1년 미만 종사

검설가계동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증사 한 배월이 276%로 높은 수처를 보였다. 14개 특고 응답자의 월평로 소독은 100만는 200만원이 45 %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340%로 위해 설치기 사(193%), 건설가계 중사자(191%), 화물 자동차 논경사(161%)에서 함계나타났

권성증기자



기획기사(2020.11.11.) - 겨울철 건설현장 '난방기 화재·폭발' 주의보





















카드뉴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작업 발판 안전불감증







카드뉴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작업 발판 안전불감증

02 국민일보

• 사업명

당신은 오늘 '안전'하셨습니까 산업재해 사고사망 예방 기획취재

• 실적

기획기사 3회, SNS 콘텐츠 제작 1회 캠페인 홍보배너 게재. 안전 캠페인 광고 게재

• 내용

- 기획기사(2020.07.07.) 19면
- · 베테랑 부장도 안전 앞엔 신입사원···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2일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없다"
- 기획기사(2020.09.18.) 12면
- · 안전이 돈이다…기업 산재율 1%만 올라도 경영에 치명타 영업이익률 1.2%P 떨어지고 1인당 매출액 1400만원 감소 기업들 산재 예방 투자 늘려야
- 기획기사(2020.11.10.) 12면
- · 공사장 사망 절반이 추락사…안전대책 고삐 틀어쥔다 산업안전공단 예방 대책 추진

19 기획 국민일보 2020년 7월 7일 화요일

"베테랑 부장도 안전 앞엔 신입사원"… 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일보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12%감소 통계집계21년 내최대폭감소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축"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산업재해 사고사 망자가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만인윸은 처음 () 4 (퍼밀리아드 · 노 동자 1만명당 사망륙)대로 내려앉았다 노사정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좁혀 지고 있다는 이미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 안전보건 강 조주간'을 맞아 산재 예방 유공자를 포 상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훈장, 산 업(근정)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 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 총 82명이 수상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해 7월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사 망사고 감축을 위한 역량을 모았다. 사 고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불시 순 찰점검 중심의 패트롤 방식으로 전환했 다 이런 노력은 긍정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이재갑 장관·산재예방 유공자 기념 촬영 서울 주구 프레스세터에서 6일 열리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 간담회' 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예방 유공자들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7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 현장 에서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년 대비 116명(11,94%) 줄었다.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또 사고사망만인율 은 2018년 0.51 에서 0.46 로 감소해 시상 처음04대에 진입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전문가의 숨 은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날 동탑산업 훈장을 받은 정미경 한국방송공사 보건 관리자는 36년간 노동자 건강증진 활동 을 꾸준히 펼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마

스크 2만1000개를 직접 사 방송 제작 현 장의 파견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 철 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건설업체 한라의 박성일 현장소장은 창의적인 산재 예방 을 실시해 2015년 이후 무재해 성과를 거뒀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우종현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표는 70이 넘은 나 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520여곳에 부적합위험 기계 교체, 간단 보수 등 무 상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포장을 수상하 반철우 성동공업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연도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증감률(%
2010년	1114	0,78	
2011년	1129	0,79	1,34
2012년	1134	0,73	0,44
2013년	1090	0,71	-3,88
2014년	992	0,58	-8,99
2015년	955	0,53	-3,72
2016년	969	0,53	1,46
2017년	964	0,52	-0,51
2018년	971	0,51	0,72
2019년	855	0,46	-11,94

사 부장은 64세 고령의 베테랑 금속가공 원을 별도로 수립했다. 발전소 안전조 전문가다. 그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전 을 취득한 후 협력사에 위험성평가 제도 를 전극 저파하고 실행했다. 350건에 달 하는 작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인도 찾아 냈다. 한만철 삼성물산 책임(산업포장) 은 타워크레인·건설작업용 리프트 등 건설장비·위험 기계 안전관리 시스템 과 프로세스를 정립, 지난 6년간 건설장 비 중대 재해 0건을 기록했다. 근정포장 을 받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비용 때문 에 안전이 뒷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예방 법제도 개선 연구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 대히 SK 기선 주인으 2002년부터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현장을 누볐 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공 도구 및 장비 점검 위험요 소 등을 잡아내며 호랑이 감독관 연합을 했다 반혀 철 GS동해전력 대표(대 통령표창)는 안전팀을 본 인 직속으로 개편하고 매 녀 아저분야 예사 약 5억

치 미흡 사항을 안전사례집으로 발간 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등 국가자격증 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장정 규 한국종합안전 대표(대통령표창)는 열악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 해 예방 기술지도 · 노무 서비스를 지원 했다. 안전보건과 직무교육을 강화하 는 '건설안전관리사-LS'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 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 무이자 최우선의 가치"라며 "2022년까 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2일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없다"

원청 시공사 안전 책임 강화 유해·위험 큰 도금작업 금지도

산업안정보건법(산안법) 정부 개정안 이 6일로 시행된 지 172일이 지났다. 건 석 현장에서는 워청 시공사이 아저 이 무 책임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하청 노 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월 15일 약 30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 정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보호 대상을 특수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 태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를 포함해 를 확인투록했다

생한 김용규씨 사망사고와 2016년 서울 '노무륵 제공하는 자'로 화대했다. 특고 종사자에게는 휴게시설 구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했고 택배기사·대리우저 기사 등 5개 직종은 노무 제공 전에 안전 보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도 확대했 다 공사 금액 10억위 이상이 거석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

〈토지조서〉

전후 소재지 변화 기본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교

■ 공사명 :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례도 있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하재사고 책임자인 위청 현장수장 과 협력사 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 해를 낸 혐의다.

한 노동 전문가는 "다단계식 하청 구 조로 사망사고 시 모르신로 약과하던 시 및 보호 대상 확대 의정보건에 대한 책임 공사 등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화 등 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이

개정 산안법으로 원청에 책임을 물은 큰 도금작업 등을 전면 금지했다. 황산 등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작업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인이 안전보 거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도급 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의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취재픽 기자

보상계획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된구시앙국도단니상에서 시청하는 '앙구시선 '앙구시구' 하천반강 의미시호 위 택입되는 도지 및 불전에 대한 보신계획을 '공인시설을 위한 도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기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얼당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 업 명: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업 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 동수리 일원 보생대상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불임 참조" *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 관리청공고)에서도 얼란이 가능함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7. 7. ~ 2020. 7. 21

6. 열람 및 손실보상템의 장소
 - 감리단 사무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2-3 ☎033-481-4650)
 - 뭰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강원 원주시 입춘로 50 ☎033-769-5761)

7. 보상시기및 절차: 2020년 9월 중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풍지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U.K.	Eren	8条	(문합지민)	공부상	현설	공부상	문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 MA
1	강원도 영구분 영구읍 광수리	신 231	231-6	8908	5101	3,879	1,211	1/3	01.8	1 1		
			1 8				1000	2/3	감*수	1 1		
2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광수리	99-2	99-3	유지	유지	1,596	1,163.	1/1	한.수.원·력			
					도로		49.6	1/1	한 수 등 력			
3	강원도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95-2	96-7	전	목전	4,562	363	1/1	회'순			
4	강원도 양구군 영구읍 공수리	94-1	94-5	전	전	6,845	440	1/1	이 환			
5	장역도 영구관 IS수동 영두명	27-1	27-3	유지	전	635	214	1/1	한 수 원 리			
6	장면도 영구교 영구읍 공수리	27	27-2	유지	전	2,747	255	1/1	이 함			
7	강원도 양구군 영구읍 공수리	29-1	29-9	8101	5101	3,813	96	1302/4556	이"자			
	-		. 7					1302/4556	9.5	0.00		
					$\overline{}$			1302/4556	김*균			
			8 8					650/ 4556	장"자			
8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29-1	29-10	8101	엄야	3,813	806	1302/4556	이'자			
			1					1302/4556	8.8	1 2		
	0		0.00					1302/4556	감글			7
								650/ 4556	장'자			
9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28	28-5	전	전	1,911	57	1/1	집:학			
10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28-3	28-7	답	답	3,964	1,056	1/1	51.40			
11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48-1	48-6	전	목전	22,490	687	1/1	정"규			
					도로		131	1/1	정'규			
12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광수리	46	46-3	전	목전	2,386	459	1/1	집.#	0 8		
13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42	42-3	810#	엄야	6,637	684	1/1	#.8	양군	근저당권	
										ON THE	지상권	
14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33	33-2	전	목전	522	332	1/1	한 수 원 력			
15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41	41-2	전	목전	3,015	60	1/1	정"참	1 1		
16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공수리	41-1	41-3	유지	도로	580	299	1/1	한 수 원 력			
17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광수리	6)275	č1275-3	8101	200	50,999	508	1/5	11.51			

歸緣為	산1-8	선1-17	Siot	일야	1,115	88	129213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9918/ 129213 6612/ 129213 16530/ 129213 16530/ 129213 45623/ 129213	이 '식 이 '순 답'에 고'로 답'해 당'회 오'해 용'해 당'교 급'수 이 '식 이 '쇼 당'로	401		
함엔도 영구군 중구출 중수리	산1-8	ën-17	Stot	엄야	1,115	88	18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9918/ 129213 16530/ 129213 16530/ 129213 16530/ 129213 34000/	이 '순 대'에'교'로 내'해'망'회 오'해 황'해 청'교 권'순			
함께도 양구군 양구관 중수리	산1-8	선1-17	Siot	일야	1,115	88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6612/ 129213 16530/ 129213 16530/ 129213	유·명 왕·명 장·명 강·형 대·영·포·호 대·영·포·호			
원행도 영구군 영구읍 중수리	산1-8	선1-17	엄야	일야	1,115	88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9918/ 129213 6612/ 129213 16530/	8'에 요'함 요'함 영'함'형'회 이'순			
8월도 양구군 양구읍 중수리	산1-8	č1-17	801	일야	1,115	88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9918/ 129213 6612/ 129213	8.에 다.에.프,도 다.에.프,도 이.주			
리원도 양구군 양구분 영수리	산1-8	산1-17	801	원야	1,115	88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9918/ 129213	조.혜 대.혜.퍼.로 이.주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9918/ 129213	.무.홍.요.회 대.예.프.古 여.주			
							16530/ 129213 34000/ 129213 9257/ 129213	01°£			
							16530/ 129213 34000/ 129213	01°£			
							16530/ 129213	0.4			
	Ш		-	-	_			2000		_	
							9918/	8'N			
							16530/ 129213	송"자			į.
							16530/ 129213	8.6	다. 8	근저당권	ļ
							6612/ 129213	정"교			Î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동수리	산1	산1-16	910#	엄야	119,332	333	9918/ 129213	8.4			
							9918/ 129213	5.0			
							9257/ 129213	다.영.프.로 다.영.프.로			
	Ш		\perp	\perp			34000/ 129213	여.주			
							16530/ 129213	01.41			,
							9918/ 129213	8.8			
							16530/ 129213	송'자			
							16530/ 129213	광'순	나.임	근저당권	
							6612/ 129213	용.표			
강원도 영구군 영구읍 동수리	ΔH	čH-15	510\$	810\$	119,332	91	9918/ 129213	B.44		Ш	
							1/5	정"에			
	Н			\vdash	_	_	1/15	M*N	-4-	-	지문법
	Н	_	\vdash	\vdash					8.8	인류	지문입 지문입
	П			П			1/15	5.9	안"시	인류	김·경 지문합
	Н	_	-	-	_	-			_		_
영구읍 공수리				\vdash					_		
20 Mg	B도 영구군 구읍 공수리	원도 영구군 구읍 공수리	원도 영구군 구출 공수리	원도 양구군 구설 청소리	원도 영구군 구설 청수리	에도 양구군 구글 공수리	NS 양구리 구설 중수리	구설 용수인 2/6 2/6 1/15	구설용수입 20% 16 개설 20% 17 개설 1/15 17 전 1/15 17 전	기원 중소리 2765 127 등 12	기원 중시선 20% 등 경기 전 10% 등 기원 등 기

변호 소재자 전쟁 지역 연석(m) 소유자 관계인 변호 소재자 등을 (변화되는) 공무상 변호 지본 성영 성영 관리용후

기획기사(2020.07.07.) - 베테랑 부장도 안전 앞엔 신입사원…(19면)

안전이 돈이다… 기업 산재율 1%만 올라도 경영에 치명타

영업이익률 1.2%P 떨어지고 1인당 매출액 1400만원 감소 기업들 산재예방 투자 늘려야

산업자해와 기업의 경제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 업재해용이 1.0% 증가할 때 연평균 업이익률은 최대 1.2% 포인트 하락하고 노동자 1인당 1400만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 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재무제료 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산업재해율이 1,0% 증가하면 노동자 1인당 연 매출액 은 약 1215만~1431만원 감소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는 본색 대상 기업 1인당 평균 매출액(약 7억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2011-2018년 코스피와 코 스타에 삼장된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틀 통해 국내 최초로 산업 재해와 기업의 경영성과 연관성을 밝혀 냈다.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노동자 1인 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 데, 산업재해울 1,0% 증가 시 1인당 덩 업이익액은 약 211만-247만원 감소하는 첫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 1인당 평균 영업이익액(약 3000만원)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영 업이익 감소는 매출액 감소보다 더 치명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등률 저하는 기업 전반의 경제력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해들이 1.0% 늘 만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11-1.21% 포 인트 감소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57%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에서 매출액 성장률 은 0.45~0.71%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시연구원, 소방 당국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될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規

추정됐다. 연구원은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약 6.1% 수준으 로 재해율이 1.0% 증가하면 평균 성장 률의 약 10.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라며 "이렇듯 재해율은 해당 연도 경영 성과라 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률에도 부정적 이 영화을 미치다" 기 성명했다

이번 연구는 산압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노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물론 생산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라, 노사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불 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기야 경 영 악화로 인한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1984년 인도 화학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3700여템의 사망자를 발생 시킨 미국 다국적기업 유니언 카비이드 와 1956년 2-브로모프로판 사용으로 노 동자 20명이 생식독성장해를 앓게 한 국 내 1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지간접적 손 실액 발생, 자사 같음 심화 등으로 사업 장을 모두 폐쇄했다. 애플의 경우 위탁 기업의 산업재하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핵 분석 결과 평균 1인명 영업이익핵 역업이익적 역업이익적 역업이인적 역업이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영업)인적

211만~247만원 감소

/TIZ: 817A19017111712C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에서 고강 도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사건이 늘자 소비자 불매운동 이 확산했고 이는 애플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

박선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 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코소피와 코스타에 상정된 기 업,즉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 대 상이었기 때문에 산업자해 발생 대응 시 스템도 어느 정도 장취했다고 볼 수 있 다"며 "규모가작은 기업까지 포함해 분 석한다면 산업재해의 부정적 영향은 더 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합 력개받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다. 기업의 안전 의식은 지속적으로 개 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추진국함 안전사 고는 멈추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사망 하는 국내 노동자는 매년 1000억명에 이 른다. 산업재해 연방 투자 여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비 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을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작년 같은 기 간보다 1.1% 늘었다. 1~49인이 근무하 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 (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 은 업종은 건설업(25/명)-5,0%)과 제 조업(9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낙 하로 인한 사망사고(178명·37)%)가 절반에 가까웠고 끼임·부딪럼·화재 및 폭발사고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재해자 수는 5만1797명으로 0.3%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 건공단 등은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 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 됨에 따라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 임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산안법을 저부 개정하 건은 1000년 이후 28년 만 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기도 이 첫 북류창고 하재사고록 계기로 공공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 벌과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 했다.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대 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산압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간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뒤지는 중 소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4차 산압혁명 시대에 겉맞게 산업 현장 의 위험 요인을 첨단 기술력으로 극복하 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은 사고보상 비용이나 신규 노동자 고용 같은 점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인 매출액과 같은 기업의 지속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는 기업이 사업장 내 산재 예방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 문화를 개선해 나가실 기대한다"고 대용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국민일보-산업안전보건공단공동 기획



기획기사(2020.09.18.) - 안전이 돈이다…(12면)

12 기획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국민일부

공사장 사망 절반이 추락사… 안전대책 고삐 틀어쥐다

산업안전공단 예방 대책 추진

올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산 업재해 노동자 254명 가운데 절반은 추 락에 의한 사고로 파악됐다. 특히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구사언아저너거고다(이라 고 단)은 연말까지 '무늬만' 안전지대인 소 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안전설비 구축을 지원하 는 등 강도 높은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

'건설-추락-시망' 악순환의 연속

9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 고사망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명 늘 어난 47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등 대 부분 업종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건 설업에서는 25명이 증가했다 6월까지 건설업에서 사망한 25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6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 설업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69명으로, 매년 2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대로 라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저녀 (855명)보다 130명 이상 감소한 725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불투명하다.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는 매달 끊이 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 신축공사 현장 이 거묵 외변 7층 녹이에서 유리차 식리 콘작업을 하던 A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5월에는 경기도 안양 신축공사 현장에 서 철골을 설치하던 B씨가 3층 높이의 철강 자재 구조물(H빔)에서 발을 헛디 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나 4월에는 부사 오피스템 공사장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C씨가 지하 1층으로 통하는 개부구로 추락해 목숨 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반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254명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 하고사업아저보건공단 제공

올 126명··· 중소 현장 80% 차지 올 현장 점검 목표 6만곳으로 늘려 안전설비 구축 3000만원 지원

건설현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취약했다.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 126명 가운데 120억원 미만의 중 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110명 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0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사고가 103건이었다. 최근 5년간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 에서의 추락 사망자는 1098명으로, 전체 이 80%록 차지했다 공다 과계자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대규모 현 장보다 안전관리가 미약하고 안전시설 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거석혀장패트록 전건 목표 2배화대

공단은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형장 추락사고에 대한 패

트롤을 강화하고 불량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 실시율을 높이는 등 연말까지 건설 업사고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 해 현장점검 목표는 2배로 확대했다. 연 초에 3만곳의 현장을 점검키로 했던 목 표를 6만곳으로 늘린 것이다. 또 불량 사 업장이나 개선조치 불이행 현장을 고용 부 감독과 연계하는 행정조치 연계율도 3%에서 4%로 높였다.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추 락위험 요소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순찰점검의 기동성과 신속성도 강화했다. 공단은 패트롤 전용 차량 32대록 익서 형장에 추가로 투입해 총 59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패트롤 전용 차량을 이용해 순찰점검 지역을 확대하 고 건설현장 밀집 지역 순찰 시에는 안 전관리에 대한 안내방송을 병행해 안전 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반에도 처랑에 하재 포박 예박 장비를 갖춰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신 속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9월 말까지 2만5000여개 건설

을 했다"며 "이 가운데 1250곳은 고용부 에 해정주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설비 구축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공단은 연말까지 554억원을 투입해 건

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건설현장 비용지 원 규모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 로확대했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임차비용과 안전망 구매비 용등을 지원한다. 일체형 작업 발판은 설 치면적별로 정액 지원하고 안전망 구매 비용은 공사금앤벽로 차등 지급하다 동 일사업주당연간건설현장 3곳까지 지원 가능한데 공사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현 장은최대6곳까지지원받을수있다.

이와 별도로 화재폭발 예방설비를 적 극 지원한다. 공단은 50인 미만 건설업 보사 등 고위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재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팬·용접작업 불 연포·비상대피유도선 등 구매 비용을 최대 3000만위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대상으로 3만2000여회 순찰점검 건설 실무경력자를 현장에 투입해 순칠 을 강화하는 대책도 눈에 띈다. 공단은 건설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400명을 '건설안전 지킴이'로 선발해 상시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120억원 미만 중소규 모 현장에 2인 1조로 투입되는 지킴이는 추락사고와 화재폭발 위험을 집중적으 로 감시한다. 순찰 활동은 9월 말 기준 6만5000회실시했다

> 이밖에 공단은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현장의 동참을 유도하고 재해 감소 분위 기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위헌형장 사업주아 과리자 대상 진체교 육도 병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패트롤 방식의 순찰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반드 시 개선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개선을 유도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 는 조치"라며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창여를 단부하다"고 막했다

세종=최재필기자 jpchoi@kmib.co.ki

국민일보-산업안전보건공단공동 기획

잘 들리는 고음질 기도형 보청기



SQ 10 보청기는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자연스런 소리,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국내제조/국산 보청기 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청기를 선물하세요!

다양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 ▶노인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대화할때
- ▶TV시청 핰 때
- ▶휴대폰 통화할 때 ▶ 강의 들을 때

대화,TV,전화,강의가 상 등입니다 ~~

SQ 10 보청기

1. 간편하게 사용하는 충전식 5. 내청력에 맞게 간단한 볼륨조절 2. 양쪽용 이어폰을 통한 양방향듣기 6. 삐소리 웅웅 소리 등 잡음이 적음

3. 편리한 사용법 4.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7. 국내제조제품 (Mad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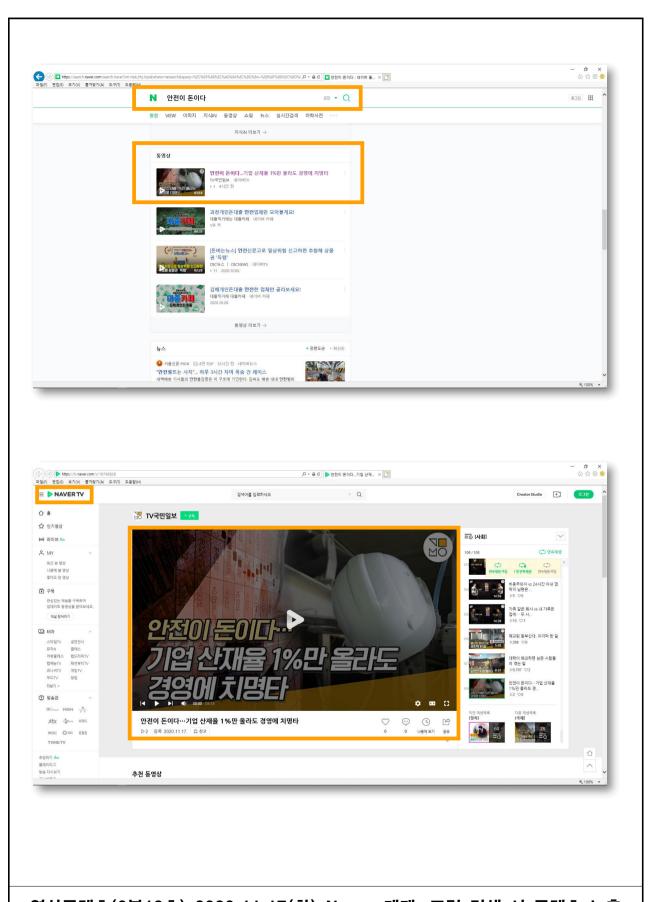
구입문의 02-2168-3844

광고심의번호: 2020-GN1-06-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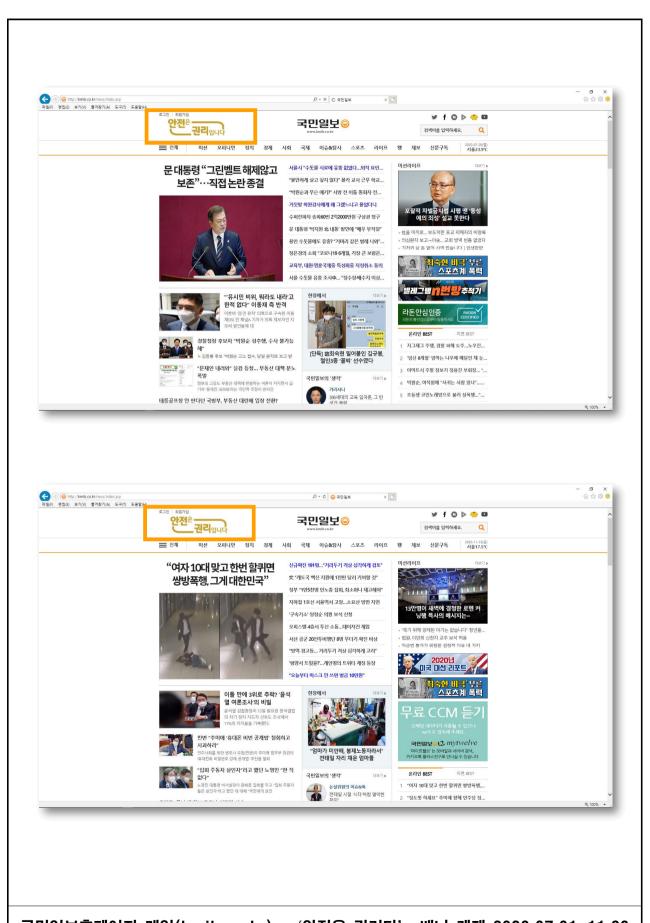
판매원: 비젼케이(www.vjk.co.kr) 동신반매신고변호: 2014-서울양찬-0287호 능함: 302-1237-5704-61 비젼케이(배희정)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2168-3515

기획기사(2020.11.10.) - 공사장 사망 절반이 추락사…(12면)



영상콘텐츠(3분18초) 2020.11.17(화) Naver 게재. 포털 검색 시 콘텐츠 노출



국민일보홈페이지 메인(kmib.co.kr) _ '안전은 권리다' 배너 게재_2020.07.01~11.30







건설현장 추락사망 안전캠페인 5단광고 게재_2020.07.29(수)_2020.08.29(토)







안전 대한민국 캠페인 5단광고 게재_2020.09.24(목)_2020.10.07(수)

03 ㈜내일신문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기획기사 4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5.29.)
 -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사법부 '관대한 처벌', 예방효과 없다 (1면)
 -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18면)
 - · 정부, 사법부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 요청 (18면)
- 기획기사(2020.06.26.)
 -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16면)
 - ·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16면)
- 기획기사(2020.08.07.)
 -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③제2의 김용균 만은 막자 지난해 제조업 산재사망자 32% '끼임사고'가 원인 (18면)
 - · 건설업에서 효과본 패트롤, 제조업으로 확대 (18면)
- 기획기사(2020.08.28.)
 -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④움직이는 흉기, 지게차 사고를 막자 무면허에 기본 안전수칙 안지켜 연간 20여명 사망 (18면)
 - ·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줄인다 (18면)

밥·일·꿈 M

^{석간}내일신문



대표전화 02-2287-2300 구독문의 080-850-0041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4886호)

'미중싸움에 흥콩 등터져' 한국수출 직격탄

홍콩은 한국의 수출 4위국 홍콩 수출 98% 중국 재수출 외환 · 항생지수상품 '폭락우려'

용콩 국가보안범(용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 화되는 가운데 홍콩을 중계무역 기 지로 활용해온 우리나라 수출에 적 적탄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

연도주역업의 도제주역동강인구 원은 23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내고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 수출대상국"이라며 이같이

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도 비지됐답 부지유치, 법접별 등에서 본도와 답의 용문을 목별대우였다. 아는 용용이 아시아 대표 금을 목표 하보로 성상하는 데 본 약명을 했다. 무약이함다는 "물용이 목별자이들 양계 되면 중구 본도와 마찬가지도 미국이 부가하는 최대 25% 주가 관 성을 바다가 나는 경우이 부지하는 일이 예상된다고 "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라 국가들은 낮은 법인석와 안광진 환율대도 형 반. 공용 등 국제들을 구의 '물부'이 기를 보도와 이왕을 갖춘 종명을 충제투 이 기도로 활용하였다.

: 필덕하였다고 합의하고 있다. 모까지 현거의으로 구굴 사람이 어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 상된다"고 밝혔다. 화장품, 농수산식

기회요인을 중 것이라는 본석도 나 있다. 미국의 대중화적 강화로 수축 설립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전별, 전투 전기, 환경 제품, 출라스트 등에서 반사이어를 기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제품도 중국 가 강정 간계에 있는 스마토폰, 통신 전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남 것으로 무여 업회는 진행되는 이제로 기가 phee@neel.com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① 사법부 '관대한 처벌', 예방효과 없다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는 따르면 시단해 산세사고사랑사는 전년에 비해 전 업종에서 감소했지 만,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선 진국에 비해 2~10배 높다. 시민사회

산재사망률 선진국 2~10배 연재공당국 오방에서 벗어나기 현한 정보 노현에도 안안대해와 경실 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과 해 사고를 바라보는 사업과 해리다 형신 변화가 싶었다라. 지적한다. 노 동계에 따끈면 사망사고 등 존대사 고가 발생할 때가는 정무나 처리 문과 보안에는 전문가 생각이 보안 사건 중 교육이 위안되었 보안 재어를 보면 생각이 보안 사건 등 교육이 위안되었 가는 당하지 않았다면 시작주으로 사업, 하지만 사병생이 '편안을 지 방문 대해보여 등에 하지만 생각이 되었다. 등에 자연을 다 있다면 시작주으로 사업, 하지만 사병생이 '편안을 지 방문 대형보회가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온다. 가결받기사 18만 교육노동부가 안면보고집답는 등에 느릿했을은 여러의 귀를 중이다. 느릿했을은 여러의 귀를 중이다. 느릿했을은 여러의 귀를 중이다. 이 나온다. ••관련기사 18면 표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단 한 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논의했음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사법부에 엄정처 있다. 되는 정부로 사업무에 합성자 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과 사업 주에게 사망사고 책임을 강화한 개 정 산안법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무 력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남진 정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쿠팡 입장문, 물류작업자 안전조치 없어

제품주문과 배송에 문제가 없다는 조치를 계속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 점을 강조하며 고객이탈을 막겠다는 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 물류센터는 2019년 기준 168개로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한 물류업

'법사위 월권' 논란 … 상임위 통과한 91개 법안 '폐기'

"의원·부치 반대" '이념 달라' | 제재자구 실사를 약용한 월권사비 들이다. 20일 국회 사무차에 따르면 다는 1 전체 20의 중 하나인 법제라는 20의 국회 선생에서 현재보다는 2에 국제자자 실사를 약용한 월권사비 기다른 상업위에서 발생되는 울리보다 취위돼 는 반안이 12도 12 전체 20의 국회에서 19 제품 12 전체 20의 제품 12 전체 20

부는 연 910억원의 추가에산과 부 청수급 라그크 화대 문제를 들어 '신 양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영양을 냈 다. 이 병안은 현재자 정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 회사관계자는 '상인 위품 정과한 범안에 대해 정부부처 가 많사위에서 이건을 내고 이를 함께 통과를 막는 것은 원통의 일곱" 이 대회의 가실에 단계에서 의건을 분세 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음 경우 에 대회의 가실자를 확으려야 하는 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박준규기자 jkpark@naeil.com



기획기사(2020.5.29.)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사법부 '관대한 처벌', 예방효과 없다 (1면)

정 책 18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내일신문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산업재해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요구 중대사고 사망사고부터 막는 게 중요 전체 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서 발생

자연 나는 가는 행사에 의문을 제가했다. 이름은 선택과 집중을 가방 으로 '나른 사고' 반이라도 막자고 요. 구해왔다. 나른 사고반' 양분이 해방 수 있었던 회복 불가능한 사고'를 선보건공단은 스사고가 많이 나는 곳스러되다! - "선생 (변화한 주작, 충돌, 집식을

주요 선진국 사고	사망만인율	비교(노동	자 1만명 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구분	우리나라(19)	일본(18)	독일(17)	미국(18)	영국(17)
사고성 사망만인율	0.46	0.13	0.09	0.31	0.08

최근 3년간 입	종별 사고사망	자 현황(16년~1	8년)	(단위:명)
구분	Я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합계	2,904	1,490(51.3%)	658	756
2016년	969	499	232	238
2017년	964	506	209	249
2018년	971	485	217	269

55 27 2명

역임을 급증했다. 이를 불해 경박는
20건년까지 산업식해 시고시망가 수 를 해안으로 감독하기도 했다. 본제
산업자가 슬립한 317년 0.520년 시
고시망인인을을 0.37로 출인다는 제
웨이다. 시교자망인인을은 상시 노동
시 1년명 당 산업재에 사망자 수를 말
만다.
실제로 산재사망사고는 건설인 등
내명한 논에에 집중해 있다. 2019년 병원에 설명했다. 10년 6명이 건설
언어서 발생했다. 10는 전년 (48명)
대체 11,5% 감소해 에대 최저지를 기
했다. 그리나 권제 산재사망자 555
명 중 집원 이상(50,15)을 차지함 명
도로 여덟히 많다.
사고 유형병료는 "추막(사고가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발생형태별 통계(16년~18년)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합니다'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추정되는 유품들이 놓여 있다.

전단가능에 따르면 안한 보건과 한다. 사업용, "에인사장시고다. 화장에 대한 모두는 소독수준과 비배 한다. 1만의 국민소들 [만큼의 수준 이 생물을 보고 하고 있다는 기를 보고 있다는 기를 받았다. 이를 들어 있다는 기를 받았다. 이를 가는 이를 보고 있다는 기를 받았는데 있다. 하일 보고 기를 받았는데 이런 보건 한 모두 가를 많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한 모두 가를 많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많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받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받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받았으며, 이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50년 미란 기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50년 미란 기를 50년 미란 함께 있다. 기를 50년 미란 기를 50

부 수보는 선물에 함께 함께 함께 18개(18년 - 18년) (무연형) 수리 부모한 무료한 의해 함께 2명 + 연합 기타 8세(18년) 142 99 93 85 226 281 46 23 22 27 81 276 47 45 33 22 80 280 49 24 23 34 65

점점 후 충분한 개도기간을 준다. 도 단점의 위한 기계설비에 받으로, 방 호보게 등 안라시설을 갖을 수 있도 득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한리 조치를 위한 현장교육도 심시하고 있다. 목이 경우는 원정의 책임이 대공 강화된 개최 신입안인보시법이 음력 시행원에 따라 없으로 사망시고 감소 에 상당한 호계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현황(16년~18년 사고사망자수 847명 613명 73명 (재유율) (100%) (72.4%) (8.5%) 154명 7명 (18.2) (0.8%)

5년간 제조업 재행정태별 사고시당자(14년-18년) 구분 회치 개명 확대성 함타하 부당한 10년 2년 전체 881명 3989대 209명 111명 105명 197명 2072 전체 20명 111명 105명 197명 2078 50년 이상 2278 10명 44명 15명 34명 21명 191명 50년 이상 2278 10명 44명 15명 34명 21명 58

처참한 화재 현장 4월 23일 디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런시 모기면의 한 물류장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하소 화면 72

정부, 사법부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 요청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용

산제 사망시교를 증이기 위한 노매 여도 "우진국원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반부에 안한보고 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한 사람을 소용하기로 했다. 아에 따라 교육노동부는 혹근 사리목의 안전조 차 의무를 규칙한 산업안전보고 있는 기록을 받았다는 경우 기록을 하지만 산업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부를 수지가 한 사업투 수에게 "가십 이하면 점에 또는 이 기를 가 없는 이 기를 가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고 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고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는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되었다면 이 기를 가 되

11/20 14

반은 경우는 피고인 2022명 가운데 2025% (80명)에 불권했다. 또 하임인체 사람에 1000 100년만의 발금을 선 2020명보건형(CHSA)이 불시경로 항의 공급증이 신고비 발금 항의 공급증이 수단 2011년 2021 전하다. 이 불시경로 하는 것이 라마다. 이 없는 사람이 1000명인의 발금을 선 2020명보건형(CHSA)이 불시경로 항의 공급증이 수단 2011년 2021년 2021를 다하 성을 사람이 취임하는 기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사람한 2020명보건 5차를 다하 생물을 가장되었다. 이 되는 가장에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되자 사람을 가장되지 않는 사람이 가를 가장되었다. 하는 기업에 함은 행의 가장된 2020명보건 5차를 감작되어 만하는 전기에 가입하는 기업이 함은 행이 가를 가장된다. 바람이 가를 가장되자 가를 가장되자 차물을 받으면 소설시와 결혼을 가는 가장에 가를 가장되자 차물을 받으면 건설시와 결혼을 가는 기장에 가를 가장에 가를 가장 하를 가를 가장하는 것을 만든 경험에 함께 가를 가장에 가를 가장에 가를 가장되어 가를 가장되었다면 가를 가장되었다면 가를 가장되어 가를 가장되었다면 가를 가장되었

기획기사(2020.5.29.)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18면)

- 정부, 사법부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 요청 (18면)

정 책 16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내일신문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산재사망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의 '열쇠' 정부, 안전설비 지원예산 확대하고 기획점검 강화

을 어딘 큰 모까가 일을 했다며 100 년 어린도 주막에 승겼다. 유가족들 은 승인 관까가 공사원의 부성장 생하는 것은 양동 부성도 안영을 한 인한 관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 양양다. 상대 문화사원에는 후박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난간이나 방안할 이 반전하다. 없이 참소원의 안전함자 이 되었다면 된 선생님의 이 나는 건강에 보였다. 구조를 방지하는 안전난간이나 방안할 이 순인하다도 없이 최소원의 안전점차 가장 관계자가 있었는 경우가 상태적으로 없다. 전문가들은 또 일 등 노동자가 다꾸난인 건설노등자의 맛집 는 나는 지지 있었다. 경우에 가장 나는 전에 비해 상대 전에 가해 시청사 측에 방안할 생태를 느껴졌다고 있다. 그렇지 하지 하지 않다는 것이 되어 살 다꾸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한다. 생태를 느껴졌다고 있다는 기원 이 이 차례 시청사 측에 방안할 생태를 느껴졌다고 있다.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이른바 '재래식 재해'로 불린다. 전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건설현장의 경우 사망자의 60% 가 인재에 가까운 추락사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이중 건설분야에서 절반이 넘는 428

2019년 건설언 공사금액별 사고사망 재해현황

72 874 5098 5098 5098 01 150098 02 75098 01 7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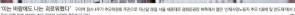
◆'수익성' 욕심이 사고 불러 = 전문 망사고를 크게 줄임 수 있는 방안이 라는 의미다.

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투박 안현보건공단 등에 라는 의미는 연합성장이서 노동가 높 간 건설입 사망자 255명 중 14.7% 막지고가 가장 명이 발생하는 곳이 은 곳에서 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56명)가 바에 및 작업받은 관련 국 다.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환장에서 임사가설물이다. 바케노 제료운반이 업 중 시교를 당했다. 공사규모별로 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 는 1억 미만이 499명(21.2%), 1~3억 판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통나무를 원 미만이 295명(12.5%), 3~10억원

짧았다"고 말했다.





미만 343명(14.6%), 10~20억원 미만 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A씨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현 이다. 장에서 일해 본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안전 ◆소규모 환형 자원이 핵심 - 진문가 입당에서도 불안간이 적어 스트웨스 들은 소규모 사건장이 때한 자원을 가 '반이 결정 학문'반자 '반짜는 가 '반이 결정 학문'가나 '반짜는 가 '반이 작가 '반이 '하는 이 반가나 이 반가가 '안이라고 '반자', 나이 '무리 연장 자-누구나 앞'건인 일반 강군 비계보 . 5 전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십 다 난기가 높아 소규모 업체들이 사원을 생각이 가 많은 것 같다. '만지 살아지가 있었을 것 받지 못했고만 실시하지 않았을 것' 보지 못했고만 실시하지 않았을 것' 용"이라고 발했다. 이어 "우리 현장 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어 노동자 도 정부 자연금을 반았기 때문에 설 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 지랄수 있었다"면서 "습직이 지역을 다"고 발했다. 만시고 됐었다. 노동자 단위는 "지수 만이라고 됐었다. 노동자 단위는 "지수 뿐만계에서 작업을 해본 사람은 선택 안전보건공단은 건설면장을 불사에 할 수 있다면 강관 비계를 설치한 곳 에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차 레 강한 태풍이 왔지만 피해도 없었 고 흔들림이 적어 작업 중단 시간도

◆정부 지원에는 대폭 중액 + 사정이 전략 한다니다. 이의 종에는 연종 나 주어갑판만을 설치하지 않아 급박한 여행되다고 제공기에 가장 선택할 병하다고 바람기계점(2) 전 시고 위에 있 가는 모든 12 건강된 다른 상태 경쟁 기상이 가장 기

의 특별기획점검도 연중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특별기획점 검 결과, 전년보다 건설업 사고 사망 자들 57명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자들 57명 출이는 데 기어했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올해는 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기획점검은 건 설현장 추탁사고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 120억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정한 인간다는 시작이 나는다. 시간에 3 현 고용노동부가 추락 사망사고 위험 맛추다보니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됐다. 됐다.

◆ 빠트를 방식 기획점도 병명 = 이에 따르면 감독 대상 1308곳 6 안전난건공단 관계자는 "경우약 안전보건공단은 건설련점을 불서에 50곳이 산업안전보건방을 위반 당단은 자난해부터 추위사망사고 방

고용부는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 고용무는 식합법만 불위분에 안선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했다. 안전난간이 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급박한

강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 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자 스스로 안전은 권리 력은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말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엄발판과 안전난간 설치에 나서야 한 다"며 "노동자도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례연구보고서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일본 사례

사업안전보건연구원 사례연구보고서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일본 사례 예 대한 확임을 부여해 자체 안전된 미포그램을 개함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당근이원보 사례 생이 선근국들도 건설명을 통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당근이원보 전경 (HSS)의 근 선설명을 통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당근이원보 전경 (HSS)의 근 선설명을 통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당근이원보 전경 (HSS)의 근 선설명을 통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사업주의 의무도반으로 나타났다. 선원(안원보건부인의 하로 반찬 해외 선단곡 후자보고 해외기법 유규회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를 해결 경로난속을 사업주의 의무도반으로 전원된 주막자고 해외기법 유규회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를 제공하는 건설업 주막자고 해외의 유민한다. 선전에 보고 그림, 전후 보고 그림, 전후 보고 기본 전략 보고 기본 전략

무느로 정보공낚아면서 소설만다. 보 대상공사별로 1개월 전후이 후생노 동성에, 14일 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공사계회서를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공동기회: 안전보건공단

10일 모든 공공공사 실제와 제약에서 제해석시 강관 비제 사용을 급지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해당 지에 대한 규칙을 제공, 목별교목을 자기했다. 독일은 제로운 여방기업인 동당형 주민방지시스템, 수행인다는 목하는 동양한 수학생기 시스템에 가장한 내, 술에난 거위은 사람이 가장 이 나는 사람이 있다. 보다 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되는 주민의 있다면 지수에 보는 사람이 보는 자리 보는 수익의 이상에 나는 도 새 모든 수막이워지에서 나는 등의 사람이 되는 자리 보는 수막이워지에는 보다 된 사람이 있다. 또 새 모든 수막이워지에는 보증하는 수익의 있다면 이 기사 인생 기사 인





기획기사(2020.6.26.)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16면)

-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16면)





· 사재사망 처벌강화' 지나 4월 27일 세종문하려면 앞에서 산재사망대책이런곳동캠페인단 주최로 '2020 최악의 삭인기업 선정식' 기지하건이 역리고 있다.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③'제2의 김용균'만은 막자

지난해 제조업 산재사망자 32% '끼임사고'가 원인

노동자 안전의식은 기본, 사업주 의식전환 절실 … 안전설비 투자 확대해야

위, 2018년 고 강당군씨는 발전소를 들어 컨테이어템트 작동 현황을 살피 고 가계에 함당이 난반을 처꾸는 일 용식이는 부분과 고경 부분 사이 무를 많았다. 작업자가 낙반 제기 중 신제가 개이거나, 불답기나, 말라돌 가게에 제기 경우 가계를 막점을 사 이 발생하는 재해를 "까인재제"라고 밤이 많으했기에 노동자들은 "2인!

- 그==6 스크레나, 하지만 요구는 기원대를 주 조도 만난 나스트레를 중 도로 만난 나스트레를 중 되었어 남 생충하는 나스트레를 중 되었어 남 생충하는 나스트레를 중 되었다. 나스트레를 중 되었어 남 생충하는 보다 되었다.

압압세에가 넓어지 않고 있다. 아저 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계 전 번 기계의 유익이는 부분 사이 모든 원을 차끈하지 있고 작업을 수행하는 음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경우다. 특히 전원을 끄고 작업 중이 산체가 꺼이거나. 필러를 나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먼저하지 이 발정하는 제목을 꺼입자해 라고 ' 뜻만 상태에서 기계를 제목은 시키다

전분기와 사업수들에 따르면 고용 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문의할 경우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 다고 한다. 실제로 사업주 의식변화 와 노력에 정부지원이 대해지면서 무





구분	합계	2019년	2018년	2017년
합계	632명	206	217	209
50인 미만	474명 (75%)	164명	155명	155명
50인 이상	158명	42명	62명	54명

갼		합계	끼임	떨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기타
합계		632명	205명	101명	허명	53명	46명	1668
502	미만	474명	150명 (73.1%)	87명	52명	389	36명	111명
50인	이상	1589	5591	14명	98	15명	10명	55명

十世	입세	미앙	영식집(영미·영3	2.주리	식업)	성영식업
합계	359명		203명 (579	6)		156명 (43%)
5년간 제3	도업 '끼임'	사고	'비정형작업'	관련	사고유형	(2014)-3-2018)-3

OLL.			-100 18		- describ	O (2)/4E-5/16	2
구분	합계	(전원 미차단)	설비작동 중 작업	법 (전원	차단 후	다른 근로자가 작	ł
합계	35975	1715	B (84%)		329	B (16%)	

'제조업-규모별'	사고서	사고사망자								
구분	합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50인 미만(명)	829	164	155	155	163	192				

502	! 이상(명)	286	42	62	54	69	59
0040	'제조언-제	INION		LIDETLA	(IIIO)		

2019 '제조업-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수(비율)								
구 분	합계	끼임	떨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폭발·파열	물체에 맞음	기타
사고사망자수	206	66	32	24	22	14	12	36
1,420,401,41	(100%)	(32.0%)	(15.5%)	(11.7%)	(10.7%)	(6.8%)	(5.8%)	(17.5%

위험하면가 등 언어보건라다당하자 임무스 기의 등 제조의 사고자만 해 쉬워집요인 파악 및 개선 스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자물안전관리 관리항상을 위한 지원 임무 등을 점 같한다. One-Point 기술지원은 정 비-보수직업 등 사고사망 발생위험 이 높은 작업사기에 방문제 작업 전 현장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상대적
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사고 사업 정례 비중은 높다"며 "이산 산업 종례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의 생명이 지켜지길 배한다"고 밝혔다. 한남한 함께 \$PV sciang@neell.com

건설업에서 효과본 패트롤, 제조업으로 확대

지난해 사망자 12% 감소 … 안전보건공단, 영세 사업장 시설개선도 지원

지단에 전에 사용자되어 그게 할었 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경기 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조 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사 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화 하는 방향으로 감엄병 상황에 맞 서 감엄병 확산 추세 완화에 맞춰 정

기획기사(2020.8.7.)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③ '제2의 김용균'만은 막자 지난해 제조업 산재사망자 32% '끼임사고'가 원인 (18면)
- 건설업에서 효과본 패트롤, 제조업으로 확대 (18면)

정 책 18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내일신문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④ 움직이는 흉기, 지게차 사고를 막자

무면허에 기본 안전수칙 안지켜 연간 20여명 사망

작업속도 느리고 단순해 운전·작업자 방심이 주요 원인 ···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 적극 활용해야

의, 지난해 않게 참주소계 한 성수공장 다. 228명 (9.9%)의 발여집 제해자 중 에서 C M (20)는 지지처음 운전해 국 8명 (7.8%)이 시판했다. 이 의에 달쳤다 한다는 교통사업 자자자의 접품을 예방 (27.7%)이 사만했다. 기가 위한 작업자까지나 유도자를 처하지 않았다. ◆기본적을 찾실 우시고 비법" 자하지 않았다.



(3)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장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계차에 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비라는 '오명'도 드리워져 있다.

지게차 재해발생 위치구분에 따른 재해자수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19 487 237 93 1,322 1,181 661 541 324 273 112 112 1,190 507 269 89

지게차 후방에서의 발생형태별 재해자수 (2012-2016, 단위:명)									
구분	합계	부딪힘	끼임	딸어짐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넘어짐	기타	분류
후방	1,360	969	330	24	11	11	5	10	0

생하 부딪힌 사고가 가장 많았다. 7 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깔림 및 뒤 집힘 등이 뒤를 이었다.

집 등이 되를 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산업혁명 신문/1을 사이에서는 4사인합역정 시대를 맞아 지게차에도 인공지능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계차에 사물이터네(IoT 다는다. 시계시에 사출인터넷(101) 센서를 장착해 주변 정보를 AI 기법 으로 분석한 후 운전자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경우 사각지대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져 지게차 안전사고가 감소됨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모인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후방확인장 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이 아닌 지계차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0 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문의 1544-3088)한다. 소요 비용 중 공단이 인정 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사업 주는 나머지 30%를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충돌예방장치인 라인빔, 속 도제한시스템, 운전석 안전벨트 연동 장치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 상지에 데에지고 붙는 데이스크로 지근 받을 수 있다. 7월 현재 480여개 사업 장이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줄인다

자격자 운전, 시야확보, 안전벨트 착용

자격자 운전, 시아확보, 안전벨트 착용
가장 반반하여 발생하는 자제자가
교는 넘어집과 끼인. 충돌의 세가지
유청이다. 이름 시교는 모두 인명의
돼도 취실될 수 있는 예정을 하지 기본에 관심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시아를 막혀 있다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시아를 해보 5분는 것은 자재자 인운단형에서 경상이 운전한 경시기로 산업하고 있다.
첫번째는 자작자 운전이다. 나무
답안한 것이지만 운전기를 사기한 사기를 받는 처계 화물을 작세하지
없어한 경역을 부처리고 있다.
번만 자자되를 운영하여 한다는 것이
다. 젊은 이상의 경우 온전가의 사기를
을 통하여고 자격을 발급받은 뭐
지저세여시 시청하는 현세 여성)감
사람은 플라이크 자격자 전쟁 등 경우는
대한 구시가는 전상이 함수 있다.
이를 보내한 반드시기를 가입하는 사람을 경우는
대한 지수에 가입하는 함께 있는 것은
다는 경우이 이와다도 자개차 사기를 경우 있다.
당전이 가능하다. 3분 미만의 경우는
대한 지수에 가진 자세에서 12시간 교육과장을 아수하
된 조용단어를 발급받는다.

근본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이 비포 위업자와 자개자를 공간적으로 본리 하는 것이다. 작업공간과 격리된 각 성자를 위한 연단적도를 미만하고 이 분드를 이용하는록 교육한다면 중동 소리를 구현 경험을 수 있다. 안전성의 사용도 및에서는 안되는 안전 수속이다. 자개차 전원을 확보 3기 위한 단연한 경치가 있다. 측의 전기 위한 단연한 경치가 있다. 측이 되어 유인 경원을 통치가 인료되어 다. 이를 정치는 연안보건공단의 '를 만시작업조소회에 가연의 자원을 받 이 비교과 제명하여 "구입한 수 있다. 제한속도를 설명하고 표시판을 신입다. 제한수도를 설명하고 표시판을 신입다. 제한수도를 설명하고 표시판을 신입다. 제한수도를 설명하여 한다. 인단은 위에 보통 10km 속 6가의 위에서는 기를 보여 기를 하기 위에서는 위한수도를 설명하여 한다. 안전을 위에 보통 10km 속 4도를 제한다 다. 또 위업자들이 이를 먼지할 수 있 도록 을 보이는 곳에 표시판을 실회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지게치가 후진할 때 공 배추 등을 후빈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 리는 장치다. 사진은 서울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예방할 수 있다. 또 허용 하중을 넘어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용되는 허용하 네당할 수 있다. 또 아용 아당을 넘어 서는 작업은 피해야 한다. 지계차는 최대 하중에 따라 1톤, 3톤 지계차 등 으로 나뉜다.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 트의 높이, 화물의 적재 위치 등 여러

중을 넘지 않도록 적재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 예방법들은 많 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약 간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면서 "사업수와 작업 자 모두가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여 '안전'이라는 '권리'를 지키면 좋겠 다"고 강조했다.

기획기사(2020.8.28.)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④ 움직이는 흉기, 지게차 사고를 막자 무면허에 기본 안전수칙 안지켜 연간 20여명 사망 (18면)
-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줄인다 (18면)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O&A) 12회

• 내용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5.28.)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① 의미와 개요] 김용균씨 산재사망 계기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6.11.)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② 핵심내용]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O&A)(2020.06.25.)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③ 사업주 의무 및 민·형사 책임] 산안법 상 주된 의무주체는 '사업주'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O&A)(2020.07.09.)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④ 근로자와 보호대상자] 특고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7.23.)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8.06.)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8.21.)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⑦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책임자는 사업주 (18면)

• 내용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O&A)(2020.09.03.)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9.17.)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와 행위자 동시 처벌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9.29.)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⑩ 유해·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위한 안전·보건 조치해야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15.)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의 주요한 수단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30.)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⑩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19면)

정 책 18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구멍뚫린 사회방역망, 등교수업 위협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문제는 학원 등 학교밖 시설

인천 물류센터 등 지역확진자 속출 …561개교 등교연기

후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후 대해마단에 교업 당이다.
(발가이도록(안대했다.)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기은 상승으로 불가리한 경우. 냉 감업확산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
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방기기를 가능하려고 교실여건에 따라 - 학료 및 방역당국과 유기적으로 연

경제단체 "기업규모 관계없이 지원해야"

2019년 주요출판사 매출 전년대비 7% 증가

무한동네 매축 1위

본학동네 배출 1위
오프라인서점 지원 필요
2010년년 주요 출란사(70개시) 배출액은 전년 대비 7.5% 공가 많으는 전환 1.4% 공가 했으고 교보로고 행동 2010년 중요 출란사(70개시) 배출액은 전년 대비 7.5% 공가 많으는 전환 1.4% 공가 했으고 교보로고 행동 2010년 중요 출란사(70개시) 배출액은 전년 대비 7.5% 공가 많으는 전환 1.4% 공가 있으로 교보로고 행동 2010년 전환 1.4% 공가 있으로 교보로고 배출액은 조인 1.4% 공가 있으로 교보하는 기계 1.4% 공가 있으로 기계 1.4% 공가 있으로 교보하는 기계 1.4% 공가 있으로 기계 1.4% 공가 기계 1.4% 공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한다

간속서수건모조현 낙발 당무 생강 반당은 문화제육관광부 장면은 27 현 단구저작권로호원에서 영상판텐 일 단구저작권로호원에서 영상판텐 일 첫 단구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 있고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온라인 용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는 권고사 한다. 또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이라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역할 당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있고 영화세속사와 만박영화 나시달 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 를 불법으로 유출했을 때 이를 추적 할 수 있는 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 의했다. 해외 영화는 워터마크를 적

등을 선의했다. 문체부는 2021년 예산에 첨단 기 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한다. 또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

개정 산업안정보건법 해석 ① 의미와 개요

김용균씨 산재사망 계기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

한 관심도 함께 가져왔다. 영국의 '공장법(Factory Act, 1833 년)'을 시초로 산업안전보건에 대 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이미 19세 기 유럽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다 만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년), 일본의 '산업안전위생법 (1972년)' 등의 입법은 세계적으로 도 20세기 후반부에 와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광부에 대한

우리는 일제당하기 광학에 대한 재화부도 등의 신경하여 한편 개최부도 등의 신경하여 한편 개최 한편 기계부로 가지 대한 기계부로 가지 대한 기계부로 가지 하는 기계부로 가지 되었다. 근로기자임의 위원을 받아 161년 '노로보신간라'라고 기계부로 기계부로 개최 됐다.

이다.
그리고 유해・위험 역업의 도함
대한 경험 보석 중인에지도 지향하
대한 경험 보석 중인에 있는 기본 경험 중인에지도 지향하
대한으로 한 '선언인에보고반' 보
경안인 300명 12월 대한하박반점
소 하형업과 배종규칙 감공교씨의
소 한 경험 보건에 관하하는 보다
등은 보고 대로 제공교씨의 안한 구를
문항하는 보건 유가 등원
생각 한 보건 유가 등권
생각 한 보건 유가 등권
선산인보고 가준은
전투자회 '산업인원보고 가준.
건물자의 한 보건 유가 등권
선산에 보건 가준.
전문자회 '산업인원보고 가준.
건물자의 한 보건 유가 등권
선산에 생각 보건 가 등원
선산에 보건 등원
선산에 보



도 "기업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때우 높은 상황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

교로보다 자기 막극 마단 구석 이 가이는 자식 (자식 (제보조원로) 경 대표자회의 '가 시작된 가단대 를 전기 시원사용로 등을 최대한 유에 제단체용이 "추가 유통성 지원은 기 또는 감안태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업규모와 관련성이 충분히 해안 고 주장했다. 다"고 요구했다. 이에 만주노름-한 이어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

노동계엔 임금·고용 고통분담 요구

양대노총 "곳간만 불리려 한다" 비판

김 기천하다"을 밝혔다. 영사가 추진 중인 전략인 교육보 하유가 교육 속에서도 전체 국민이 양세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안정당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나기고 있는 이 보다 통하의 구축하다 한다"면서 바탕이 경제단체 건화는 국민의 경 노 "가입점을 그 요청보 부당이 때부 이 사랑 한참 등뿐이 같아 없는 작간이 점 높은 상황인 만큼, 교로나다요! 인한 "아이라고 건축했다"

앞서 경제단체협의회 간사(사무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5.28.)

- [① 의미와 개요] 김용균씨 산재사망 계기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 (18면)

18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내일신문

유급병가, 5인 미만 사업장 12% 불과

"근기법에 법제화, 상병급여 신설" ··· '아파도 못 쉬는' 한국 OECD 중 유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0일 오후 서울 이의도 한국거라소 앞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범법 제

학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인

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 도입해야 한다. 템"이라고 설명했다.

도답에야 한다. 등교 시작 사혹째 등교를 준단하기

8

00 5

"법률구조공단 '직장갑질' 기관장 비호

개정 사업안전보건법 해석 ② 핵심내용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전입인한보건집 한후 개성안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홈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컨 베이이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나 2016년 5월 서 노동자 김용균씨나 2016년 5월 서 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 어를 혼자 고치다 목숨을 잃은 협 력입체 노동자 김군과 같은 사회 적 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산안법의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정확하게 이 해해 보자.

예방 책임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토익스피킹 평균 성적 '한국 127점'

주요 시행 19개국 중 11위 아시아 국가 중 3위 기목 다(15점) 한국(12점) 아반에마다 트(15조건) 한국(12점) 안한데마다 트(15조건) 한국(12점) 안한데마다 등시자의 8개는 한사 기관 등에 한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10일 2010 현재에 보내 보이고에 보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슨 사이를 보고 있으며 40%는 목적은 기업 모인스피리 및 모급이미에 성적보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슨 사이를 보고 있으며 40%는 목적은 기업 등에 하는 10% 보고 사이를 보고 있으며 40%는 10% 등에 다면된 20%에 무슨 기업 (55%) "지구를 많았다. 그 다음은 보고 설계에 지구를 보고 있는 기관 설계 등에 하는 목적인 시험 등에 하는 10% 설계 등에 50% (55%) "이 약을 향할 설정 (55%) "이 약을 향할 설정 (55%) "이 약을 함을 함을 받는 기약이 보는 기약이 기관 수에 10% 등에 기관 수에 10% 등에 기관 등에 10% 등

(135점) '6개월 미만(127점)' '81단 원유(121점)' 수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토리는이 이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토리는이 당한 우리나라는 2010년 토리는이 병원 수에 본석 대상 18개곡 등 13위로 구개했다. 원기가 178점으로 가장 12였으며 이야 되었(173점). 모든 40는 188점 수이 있다. 토스노이용의 수이 나를 2013점(2013전) '대주 목적(1023K)' '대주 목적(1025K)' '대주 대주 1025K)' '대주 대주 1025K)' '대주 대주 1025K)' '대주 대주 1025K)' '대주 1025K)' '대주 대주 1025K)' '대주 1025K)' '대주

(135점)' '6개월 미만(127점)' '해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6.11.)

- [② 핵심내용]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18면)

"노사정 대화, 6월내 합의 못하면 불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와 경영계에 '경고' "후속논의는 경사노위에서"



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

"출판. 언택트 최적화한 체험 구현해야"

한-인도네시아 출판콘텐츠 온라인 화상 상담회

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15 화상 상담회로 전환해 개최한다. 년부터 해외에서 '찾아가는 도서전'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불 개최에 봤으며 인단되시아와는 교역극으로 최근 국내 출판단편호 2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음에 3화패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음하는 코 단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대면 수 합입이 '한류' 도서에 대한 번역 비중 4/3 'S 단위도 산원에 계되인다. 이도네시아는 시난반 정책의 대표

려 축파사 21개사가 참가하다

사용자~

산안법 중 근로기준법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악의적 임금체불 책임자 구속"

"1600명에 체불액만 250억원" 했다. 고용부 "신속・엄정 대처할 것"

5개의째 임금체북로 생활고에 시 달리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고용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악의적 임금체붕 책임자름 구속처

일 것 글 목구였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24일 서 울 영등포 고용부 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 까지 5개월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가 정이 파괴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

이스타항공 1600여 노동자들은 회 사배각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월에는 임금의 40%만 받았고 3월부

2월에는 남음의 40%한 반았고 3월부 터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4월 9일 이스타항공조종사 158명 은 1차로 2~3월 체불임금 21억6000 반원에 대한 진정을 남부고용청에

아튀지라면 또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노조는 "고용부는 더 이상 이스타 항공 집단 임근체불 사건을 미은적 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자가 1600여명으로 매월 70여억원

수사로 전환해 최종구 대표를 항석 대한 체생임금 전점을 고용부에 냈 함 것을 촉구했다. 답간했다. 다. 3차로 다른 작군 417명이 2·5월 이에 대해 교용부 관계자는 "신설 생활임금 수사는 범죄인지입부터 본 50여원 체봉임금 건정을 준비 중 하 수사를 완료하고 양점 대부하듯 60일(업무일 기준) 이내 수사를 완 이다.

이뤄지려면 또 다시 몇 달의 시간이 규모를 키웠고 심지어 이스타항공(흘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4~5월) 체불임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다"고 비판했다.

가) 계속 매각협상 결과를 기다리 은 [서호 2:9명 #점하]을 10억000 자가 1800명으로 매월 10억에는 기가 계속 매각함상 결과를 기간되면 10억에 대한에 대한 건강을 나누가 환경하고 있는 이 있는 지수 생각이 가지 기본 등 제품에는 25억에 제품이 가지 있는 이 있는 10억에 지금 한다면 이스트라운 제상에는 10억에 지금 10억에 기관하고 있는 이 있는 10억에 기관하고 있는 10억을 기관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③ 사업주 의무 및 민·형사 책임 산안법 상 주된 의무주체는 '사업주'

사업가

산업안전보건법 (신안법) 에서 주어는 '사업주'로, 술어는 '하여 이 한다'로 쓰이 있는 형식의 조문 이 많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 용례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 1번안시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이 사업주가 된다. 그렇지중되어, 차어주 대시 '사

계인이 사업주가 된다.
근로가옵법이 사업주 대신 사용자"라는 단이를 높는 짓과는 차 이가 있다. 사업이익을 얻는 지에 취는 산만법 살의 의목화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단 사업 역 명리목적 여부는 불문한다. 사업주는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조 본에 익과 대용을 재명의 여지없어 지켜야만 한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건강 유지 중집시키야 산안법은 제조조에서 사업주 등 의 일반적이고 최조에서 사업주 등 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산재에만 약구를 답고 있다. 사업주 등은 0 산산법명이 정하는 산업재에 예약 가운 운수 ②폐약은 의 인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 보자에게 제국에야 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자세에 제국에야 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되는 이 이에는 자산되는 수 있다면 보다는 지원 이 분이 하는 기본을 제공한는 자꾸 의무에게 포함적 아당기 때문이다. 사업주 등이 위 의무를 위반하 다라도 형별 등의 방적은 있다. 반면 산안된 제14조 이하여 규전의 당는 계획되면 의무에는 기계를 위반하다면 함께 되었다. 사업주 등이 위 의무를 위반하 대한 보다를 함께 함께 보다면 이 이에 가면의 있는 시작에 의무를 위반하다면 함께 되었다. 사업주 등이 되었는 이에 가면의 있는 시작에 의무를 위반하다면 함께 되었다. 사업주 등이 되었다. 인기에 가기 되고 박의 살비를 살게 제조 되는 수입하는 시작은 등의 하는 인기를 가는 시작에도 등의 유럽에도 있어 되었다면 등을 하는 기관을 지켜야 한다. 방주-선생들은 사 집건성들을 받아선 경하는 기관들 지켜야한다. 방주-선생들은 사 건성실들을 받아선 경하는 기관들 지켜야한다. 방주-

· ; ·

설계·제조·수업 또는 건성에 사용
자동 급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
대장 보호카무를 인형한다. 12 명한 보호카무를 인형한다. 12 명한 기술을 가장한 이 경우가 보다가 이 생물이 되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2 명한 경우이 사람이 보호하고 있다. 12 명한 경우이 나는 사업이로 발생하고 있다. 12 명은 경우 이용 배상을 먹었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 대해 보았다를 경우한 수 있을 뿐 한 이나를, 사업자를 성적보는 만 없다. 사업의 손해에상을 경우한 수 있을 뿐 이 이 이 기술을 생각하고 있다. 12 명이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기계한지 나는 전문에 가려를 살 기원이 가려를 살 기원이 가려를 살 기원이 가려를 살 기원이 보다를 생각하고 있다. 12 명이 전혀 보고 있다. 12 명이 사업을 되었다. 12 명이 사업을 보고 있다. 12 명이 보고

의무를 이행해도 민사해임 질 수 있어 산안법의 사업주 의무규정은 대 체로 사업주가 자파이만 하는 최 소한의 기준을 작가놓은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제약하의 사업주의 단원보건 조치에 대한 위부는 산안법 이상 의기준을 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제약하



"고용안정, 3년내 1만명 조직"
의 투표해 5명(67%)의 지지를 얻어 하는 처럼 대한다면 조직"
의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전쟁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전쟁된 한국사용 대전지역본부에서
전쟁된 한국사업이 되었는 이 이 한국
회상 상업이 다른아 시간에 의 비
하는 경우 상업이 다른아 시간에 의 비
해를 국고 있다"이 "치자 산업역명의 업의 위기구목을 위한 고용안된 및
위원당은 장병(제작 의명)의 대의원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기를 시대와 고로보내와 이후의 한 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대대함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 함께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6.25.)

- [③사업주 의무 및 민·형사책임] 산안법 상 주된 의무주체는 '사업주' (18면)

정 책 18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인터뷰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그린뉴딜시대,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필요"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연구전문 기관으로 …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제29대 대구지방환경청장(2015년 8월-2

입했다. 이번 추정으로 약 277억원을 자진홍공사(KOTRA) 등 유환기관 토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예 추가 확보해 약 90개 기업을 더 지원 _ 협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게 실질 _ 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타격을 받을 수밖에 있었다. ●환경 기술 개발에 작지 않은 에산 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가및 최종편가의 재산이토록 해 된 식물 당시 당구이 많지사는 대상 이 투입됐지만 아저지가 이렇다 할 기술으로 조사한 리치 '조치'로 자공 이 으로 조사한 리치 '조치'도 조사 용당기 보다 되었다. 이 보다 기술에 있는 게 현실이다. 의 사업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한, 대한 관리에일을 높였다. 건술만계수 장 (가게사)가 '소의업물을 보다 보다 기술은 전 왕부의 그린 나티의 성 공 국민 변화하기 위해 보 또한 2010년부터 국민대생원만을 국민 본경 중이다. 국민대생원만은 국민 본경 중이다. 국민대생원만은 국민 문영 중이다. 국민대생원만은 국민

이번 중심하지 이라면 집은 번점 대접관단상업적성용자 등에 2000 무슨 해로 등의 자근업적인 피해졌다. 미래관단상업적성용자 등에 2000 무슨 해로 등의 자근업적인 피해졌다. 미래관단상업적성용자 등에 2000 무슨 대접 등의 자근업적인 피해졌다. 미래관단상업적성용자 등에 2000 무슨 대접관단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들의 선언으로 증가가와 함께 여러 인원을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들의 선언으로 증가가와 함께 여러 인원을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들의 생각 인원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는 이라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면 기업을 가면

현안 해결형 과제를 받굴 중이다. 국 자전용상사(KOTIA) 등 유연기반 도기업가지가 1,000억만 이왕인 이 번역 최업회 과제를 발표 중이다. ㅋ 하다는 경기에 가입해 지원 이 바다 된 기업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나는 하는 연안을 수 위원가 기계 수 있다. 이다. 마는 연안을 수 위원가 기계 수 있다. 이는 가는 연안을 수 위원가 기계 수 있다. 이는 가는 연안을 수 위원가 이 보다 한 기계 후 있다. 이는 기계 수 있다. 이를 가입하는 기계 수 있

이 공감하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촉된 일반국민으 로, 과제 평가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감시함으로써 평가의 부명성을 높이 고 있다.

정의비로 제한적이었고 초기에는 지 원 대상 질환이 폐순상 환가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태아에 대한 피해, 찬 식, 간집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 렴이 대상 질환에 추가됐고 의료비 와 장의비 뿐 아니라 중증피해자에 게는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까지 지 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유한 참강기업에게는 녹여산 나라 문제결경한 인구개발(TASS). 급한으로써 실점적인 피회 회복을 부위된 참강기업에게는 보고 대를 보고 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를 위 하여 환경부와 기술원 모두 애쓰지 만 신속한 피해구제가 절실한 피해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언제나 늦은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인 피해 회복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 문진헌 정치사회편집위원 정리 김아영 기자

쓰레기대란 사태 우려에도 수도권매립지 대안 '깜깜'

14일 수도권해안매립위 직매림 제로화 등 점검

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 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 김야영 기자 aykim@naeil.com

갤러리 내일, 류지선 개인전

'피그말리온의 정원' 전시 10~23일

객권리 내익에서 10억부터 23억까 지 류지선 작가의 '피그말리온의 정 원' 전시가 열린다. 튜 작가는 층층이 쌓인 집을 이고 있는 말을 주된 소재 로 장소와 공간에 대한 현대인의 욕 망을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그말리온의 신 화에서 영감을 받아 현실에서는 불 가능한 것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 을 표현한 1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 다. 채도가 높은 색채의 대비와 이질 적인 공간의 조합이 특징인 화면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모호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

하는 사람의 상징인 비너스와 집을 문을 던진다.



이고 있는 말은 이상과 현실이며 동 시에 대상과 주체를 의미한다. 이 같

은 대비를 통해 류 작가는 스스로와

관객에게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질

개정 산안안전보건법 해설 | ④ 근로자와 보호대상자

특고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확대

그들이다. 오랫동안 노동밥의 보호를 받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개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 등 희망해왔던 특고입장에서 직중 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지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입 무상의 재제로부터 보호한 원요가 있음에도 근로가준빈 등이 적용되 지아니하는 자꾸를 독고라고 진익하 교육고료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는 특고의 산업자체 메일을 위해 필 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 목 규제하고 있다.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호대상

선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호대상 확대 活다 구체적으로 실제보면 산안 법이 정한 ①보험성까지수~체극보 보고되요, ②산업기계 적임 운전자 (기종), ②하습시교사, ③로프장계 다, ③학교가 A. 교육자네는기사, ① 대리보건인사, ③산용기보도되면신, 보건인사 직명에 출시하는 자 안보고에 예란한다 보구를 상시하는 자 인보고에 예란이 보구를 상시해 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 이 하며니, 도무를 제공할 때 타인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오랫동안 노동병의 보안은 보다 오랫동안 노동병의 보안은 모양 등안 보다 등의 보안은 오랫동안 노동병의 보안은 모양 등안 보다 되었습니다.



제한, 사업장 진속성, 대체노무 급 지라는 3가지 제한이 이쉬운 측면 도 있지만, 경과적으로 명의 보호로 성 범위를 확여한 것은 의미있는 결 성이다. 개정 산안법은 특고와 별도로 배 담동사체를 보호되었지로 추가졌 다. 산안법 제33조는 '이동점신 단 말장치로 준건이 수가 배당 등을 경제하는 자는 그 충격를 통하여 이 환자동보호 불단을 수가 배당 등을 하는 자의 선업재를 여명을 위하여 필요한 안원조치 및 보신조치를 하 이야 한다'고 규칙하고 있다.

김명진 직책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손끝에서 시작하는 크리에이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스마트폰 활용 교육

오션월드 '오션 마스크' 무료 배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7.9.)

- [④ 근로자와 보호대상자] 특고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확대 (18면)

18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국내 의사수 OECD 꼴찌 수준

지역·과목별 의사 부족으로 의료질 저하 … "지역의사 양성 배치 필요"



용이다. 현고은의 필요시도 다시 구입니다. 답어있는 것을 이용게 중중구도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해당 전 의사수는 OFCD 국가들에 비해 2/3 곳급으로 변하시킨 것인지 곳곳보

선선한 7월 … 8월 폭염 더 심할듯

선선한 7월이 지나면 8월 초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1973년은 기상형이 전국 관극을 시 작한 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중부와 일본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 나고 있다. 기상청은 "7월 선선한 날

월 상순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 년보다 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8~9월에는 평년보다 0.5~1.5℃ 높 은 기온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

2020 성평등콘텐츠 대상 '불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건을 선정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역장기역구 전이 전력경쟁등로표 육진흥원은 '제4회 2020 성평등콘텐 츠대상'정기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합있다. 하군안선편든교육지후위에서느

원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성평등 가치를 담 올해 하반기 내에 공모전 수상작을 내 코테츠 발굴 및 대국민 의식 확 바탕으로 성평등크리에이터를 발굴 마년 콘텐츠 발굴 및 대국인 의식 확 바탕으로 상행동크리에이터를 받물 및 대국인 의식 확 바탕으로 상행동크리에이터를 받물 건물이 많아 진단. 시민 참이 산을 위해 진행했다. 4~5일에 집해 하는 한편. 이후 진본가 전성등을 가 전 견전에서 집수된 콘텐츠 35강원을 대 처 성인지 감수성이 방영된 신구 콘 목계속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상으로 1~5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동 텐츠를 개발하고 성명등 콘텐츠 플

🛖 २५॥/१।सं१ च

정부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

의대 소재지에서 10년간 의무복 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 (50명) 등이다.

전의료대학 설립 역시 제대로 된 공 중 공급과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반면 성종호 대한이사업회 경적이 사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관련적 던 자라가 없다"며 "의사인역의 불 군정이 심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는 지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 점 되도 운영 문제"라고 건강됐다.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역이 보이나를 됐다면 대표되고 건강됐다.

서 의사를 뽑지 않기 때문이고, 충분 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 뽑을 수 없 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며 대하의사현하는 치근 의대정

원 총원 반대, 공공의대 신설 반대 한방점약 급여화 반대, 원격진료 회 월 14일 또는 18일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를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 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 을 포함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 건법(산안법) 시행에 따라, 유해 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염작업 ③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정한 경우, 도급금지의 예외에



한성대, VR·AR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 진행

한성대가 22발터 서울VR-AR
적가점센터 (제작가점센터) 작
가 10호점(성복가 도전수 1-0호점
기 10호점(성복가 도전수 1-0호점 1-0호점
기 10호점(성복가 도전수 1-0호점 1-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7.23.)

- [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18면)

18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불법의료는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것" 원청 사내복지기금 하청업체 지원 가능

보건의료노조 "가호사·PA(진료보조인력)가 의사업무 대행 만연" ··· "의대정원 확대 반대는 환자 안전위협"

"역사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의 고 생명 등관 원호(5명) 1.00명상당 평균 적 의사가 연결 안되는 이간 시 의사 유 업무인 수술 사용 처치 환복당합 8.25명에 이본다.이는 2019년 20개 를 대신한 당적근무까지 의료가만대 차명, 건물기복지 작성, 등면서 실명 병원을 다실 조사에서 PA간호사가 의사인의 부족으로 경기본 업무관 등의 유민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건물보조는 건물수님들이 다년하고 있 PA가 평균 50.88명(9)됐던 것과 미교 오선명 보건역보도 중 점목국장은 기관 것을 보고 생각 차명, 건물기복지 함께 하는 사용 치치 차명, 건물기복지 하는 사용 치치 차명, 건물기복지 하는 사용 치치 차명, 건물기복지 사용 전로기복지 하는 기관 수 사용 치치 차명, 건물기복지 사용 전로기복지 하는 기관 사용 지치 차명, 건물기복지 사용 전로기복지 있다고 보고 있다면 보다는 함께 다른 수도로 증가한 것을 보다

유 업무인 수술 시술 치치 한복원합
처한, 전보기되지 작업, 등의시 성명
등은 PA (Physician Assistant,
전로보조) 건요사용이 대한되고 있
고, 의료인증하는 대하수술과 대리
과, 의료인증하는 대하수술과 대리
과, 의료인증하는 대하수술과 대리
가 바이의 현실하고 있다. 그로
가 비용하는 점심으로 경우자원은
이 대리한 본업어 있다. 한 전체 및 금종이다
성실하는 대한민건 (20사 점점) 보고 이 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치료시설을 대상으로 미디어예술 작품 전시, 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힘나는 예술여행' 특별 순회 전시 시작

코로나19 의료진 치유

일회(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급 를 제공하기 위해 5일 광주 빛고음전

(주)가 작품을 후원한다. 이 작가는 '다시 태어나는 빛-19'라는 주제로 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등 '다시 태어나는 빛-19'라는 주제로 로진들 9개 병원에서 9월까지 특별 순회 전 등 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특유의 한다.

내상으로 미디어에술 작품 전시, 비 대면 공연 등 '힘나는 예술여행'을 지 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쾌보는 ''

원할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집, 사무실 등에 서 개별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포털(www. 을 세상하고 있다. 문화보험(www culture.go.kr) '집목 문화생활'에 서는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도서관에 기 트한 독서를 지원하 로지독에게 도저과 현력 등은 저답 느코테치 등은 복수 있다

온라인 수업 때 저작물 이용 편리해지다

개정 저작권법 5일 시행 분쟁에 직권조정제 도입

다리 실도 하고 없어 3080년(사 다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온라 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함)할 있고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 도했다. 자료자리 물세를 위해 물료는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적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 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있기 때

도 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정조 경 변수 편안 함께 일접한 시장들
정 여정 기적이 1000만원 미만인 경 을 권리하게 바뀌 벤회하는 저작은
우나 아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 유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 됐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에 이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작권자 처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 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

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결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가 정에 대해 이익신청을 할 수 있는 질 지 확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 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성네 내에 어려면장을 로 ㅜ 쓰는 든 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일 두 있게 있다. 이탈리 등록 현용자 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의 보호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저

송현경 기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험지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은 특히 건설업에 대한 관리와 규 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 에 적용되는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 포 이자. 우선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를



개정법은 건설업에서의 안전보 건관리체제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가 120억이었으나 50억 이상 으로 확대됐다. 또한 작업혼재로 인

안전보건관리체제도 강화



갤러리 내일 '의식의 중첩'전

우창훈 작가, 7~27일

접러리 내용은 7일부터 27일까지 유형훈 작가의 '의식의 중합'진을 던 다. 전시 7간 동안 환성된 작업은 물 문 주 작가의 극간 동안 환성된 작업은 물 문 주 작가는 '객실이 나를 다음하는 수 제 '의식의 중합'이라는 주제를 가 건 이번 전시는 20일이라는 7간 등 안 갤러리 내에서 작가가 직접 라이

브 페인딩으로 선보인다"면서 "집중 해 지압을 하는 화가의 의시은 폭발 한 단계로 상승해 시공과 해성의 총 체적인 합앙이 어워ፒ다. 이런 익식 의 결과들은 배양의 현장에서 라이 브 페인의 화목(m) 전장에서 라이 날 제안의 화목(m) 전상에서 라이 남 전 "이라고 발했다. 이어 "화가의 청사이 현장에서 와이 에너지로 표 화폐 기원의 화목에 밝힌다는 20억 간의 이야기를 함께 지꾸보면 종을 있다"고 되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8.6.)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18면)

18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내일신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가나

일주일새 200명 이상 발생 … 방역당국 "이번 주말 큰 고비"

현조하지 않는 등 산속한 검사를 방해하는 형태들이 늘고 있어 방악자의 가속되고 있다. 방악하는 산속의 작사를 통한 감 집 보신 상사를 받아내는 산속의 작사를 통한 감 집 보신 상사를 받아내는 산속의 전상 사는 방악등의 단체에 되는 건 사람이 들어나는 생각이 들어나는 생각이 들어나는 생각이 들어나는 생각이 들어나를 받아내는 생각이 들어 되었다. 건강하는 경우 있는 생각이들을 들수인 일 의 전에 부탁하는 기를 받아내는 경우의 기를 되었다면 있다면 되었다면 있다면 생각이 들어나를 받아내는 생각이 들어나를 받아내는 생각이 들어나를 받아내는 생각이 들어나를 받아내는 생각이를 받아내는 생각이 있다면 생각



건설노동자들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책임자는 사업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⑦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제2 장 제[절 (제14조 내지 제2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사업주가 주된 안전보건관 리의 책임자이며, 사업주는 위 각 규 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제자들 을 두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마련해 을 누가 안전보건된데체에를 마던해 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 하는 안전보건관계자들에는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 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



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등이고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의 관련 자격 취득자 등으로 사행명에 각 정해져 있다. 고리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드십어 참다.

대 보건한 대 전 : 1 전



Advertorial

생약 치주치료제 '이튼큐 플러스' 출시

종근당 잇몸개선·항염증 효과 우수"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복약 중근당(대표 감영주)은 최근 복약 편의성이 개선된 치주질환 치료제 '이든큐 플러스'를 출시했다. 이든큐 플러스는 옥수수병검화정 량추출물 단일제제인 이든큐에 후박 추출물을 추기한 생약 성분의 복합

데다.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 출물은 치주인대의 재생을 도와 치 발발한 시구간대의 세명을 도와 시 아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치조골을 수해 있음 연중에 대한 저항의을 강 채건시켜 잇몸 속 기초를 튼튼하게 한근다. 이 제품은 장기 복용에도 부작용이

는다. 후박 추출물은 치주질환의 원인균 없는 생약 성분 치료제로 안전성이 입했다.



증됐다. 종근당이 독자개발한 정제 축 증됐다. 중근당이 독자개발한 정제 축소기술 iLET(Innovative Low Excipient Tablet) 특허공법을 적용해 한재 출시되어 있는 동일성본 제 품 중 정제 사이즈를 가강 작게 줄었다. 다양한 만성질환 탓에 어리개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중·장난층 환 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했다.

사의 복약편의성을 개선였다. 종근당 관계자는 "치주질환 치료 제는 장기 복용하는 환자가 많고 용 세는 성기 복용하는 환사가 많고 상 법·용량에 맞춰 복용하는 복악순용 도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악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이른큐 플러스가 치주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8.21.)

- [⑦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책임자는 사업주 (18면)

정 책 18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내일신문

도라산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왜 이러나

임진강 교량길이, 육상부까지 포함했다

임진강폭 좁은 대안노선에 계획노선보다 긴 교량 설계 식생조사 지점 모두 지뢰지대 … "밖에서 보고 기록해"

▲교략 김수로 하처에 미치는 영향 커

●보당 실수폭 아전에 미치는 당당 거 = 1/50000 지형도를 보면 대안노선 들이 위치한 경의선과 통일대교 쪽 임진강은 강폭이 500m 이하로 좁다.

이 글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노선 이 최적노선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일대교 교각 수를 7개에서 3 을 제시했다. 비교3안의 하천 횡단 이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고속도로 인근의 식생조사지점, 안에 들어가서 식생조사를 할 수 없는 지뢰지역이다

50m 스테인 도다.(대안2 - 량 구간이 길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동 일대교 교각 수를 7개에서 3개로 줄 다"고 말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노비만으로 는 확보하기 이렇다. 다양한 산업제 생물이 모르지로 구성되어한다. 해방 생물이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는 아니로가 오랫당한 만나. 후한 노동자의 의식을 반응해 보내 사용자에는 아니로가 오랫당한 만나. 후한 노동자의 의식을 반응해 보내 사용자에는 아니로가 오랫당한 만나. 후한 노동자를 목소리가 반영되어 한다. 후한 소문에 의심하는 의소에 하는 이 소문에 가장하는 의소에 의해를 가장하는 의소에 가장하는 이 건강한 기관 기관 등 한다면 의소에 가장하는 이 건강한 기관 기관 등 이 가장에 되었다면 가장하는 이 건강한 기관 기관 등 의료에 의한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에 가장 소문에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에 함께 가장 기관 의료에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에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에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구 상태에 만한 전략적이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구 상태에 만한 경우 기관 기관 생태에 만한 경우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 등 의료에 가장 기관 기관 이 의료에 가장하는 이 병생 건강한 기관 기구 상태에 안한 가장 기구 상태의 안전 무근로서 되었다면 가장하는 이 병생 건물으로 가장 이 그 바에 해당 기관 기구 상태의 안전 당시하는 이 병생 건물으로 가장 이 그런 가장하는 이 병생 가장기가 위해 집소한 사람 등 수 근로서되고가 기위해 집소한 사람 등 심의 의례에 안한 있는 의용에 의용에 가장하는 이 있는 이 의용에 가장하는 이 있는 이 의용에 가장하는 이 되었다면 가장하는 이 있는 이 의용에 가장하는 이 있는 이 의용에 가장하는 이 의용에

7개 지점 모두 미확인지뢰지대 안

에 있었다. 전략환경병가서에는 10×10m 단 위(면적 100m)로 식생을 조사했다 고 돼있는데 아예 방형구 설치가 볼 가능한 곳들이었다. 이번 지점들을 조사하면서 평가서는 교육증의 높 이, 아크목증의 높이, 관목증 소본증 까지 조사한 것으로 서술했다.

함이 위치한 경의산과 용임대교 역 인강당은 양자주으로 내리가면서 3 및 했다. 두 부회 모두 "다시 확인하 용이 가져서 문산한 합류 주에는 3 육이 기계 기원 되어간다. 2학에 100m가 넘는 구간도 있다. 명한 원이가 음요한 것은 "입하는 1 명한 원이의 입의원구축 위한 호흡 과 연관에 인리원구축 위한 호흡 과 연관에 인리원구축 위한 호흡 과 연관에 인리원구축 위한 호흡 가 설계계 대표는 영향이 라크는 1 보기 때문이다. 보게 국보부는 전략원경의가본인 에서 "대보계획 및 한원만을 고망 등 일 리름을 방해하고, 교리 수를 들어 1 일 기계 등에 유한적으로 평가받다. 1 명의 인하는 1 명의 1 명의 인하는 1 가장자리 나무들 일부만 측정하고, 나머지는 눈으로 추정해서 기록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경 기회의와 업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분기하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원하며, 입시 회의는 위원장이 원요하다고 안정 할 때에 소급한다. 회의는 근로까 형 및 이 사용자위원 각 과학단의 출석 으로 개의 대통화가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참선으로 의결한다. 근로자 대표, 방해산업안전하루는, 해당 서 양이 대표자, 산업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 주에는 해당 사업에 총시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해 위원으로서의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들이갈 수 없었던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숲을 관찰할 수 있는 밥 가 장자리나 도로변에서 최대한 폭 넓 게 식생조사를 하는 것이 위치"이라

1 달었다. 이 회장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작무를 대하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안보보석위원되는 U개최 일 시 및 정소 교육시원 조사의 내회 보의 시청을 기록한 회의로 작성에 관신 사원을 기록한 회의도록 한 사원을 의접하지 못하기나, 의접은 사원을 의접하지 못하기나, 의접은 사원의 역사 도소 이행방법 등이 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보건 위원회에 중계기는 경우에는 산업안보건 위원회에 증명기구를 두어 해결하 가나 제3자에 의한 증제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보건위원회 여성의 단다. 산업안보건 시험원의 사원 본 경우에는 상업안보건 문제를 산업하게 되었다.

산업안전



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사무극장은 "임진강을 통과하 는 교량 길이 조작과 식생조사 거짓 부실 작성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기 회를 열어 실제 조사한 내용을 야징 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

했다.

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 보(此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 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 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에게 산하이 않아나 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索성 확보 됨요
산안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索성 확보 됨요
산안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간전보건위원
회가 심의 의원한 사원을 성심하게
이행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산전보건위원회는 산안한 및 단 채현학, 취업하고 있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 및 단 생건이 됐다. 보안되는 대용으로 심의 의결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수업원인회보건위원회를 가실 의 의원한 사람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로 대학간다 실기없는 예체능 학과에 관심

비교과활동 없어도 가능

예체능 분야는 흔히 폭기를 가지

▼비결· 니사인 세월 = 비금· 디자인 관련 비교과 활동이 부족할 경우 교 과성적과 수능최저학력기준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교과 전형을 고려한 수 이다 가처대 패셔디지이 코테츠디자이하과 상명대 애니메이 선정공 인천대 디자인하부 인하대

전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은 "예체능 학과라고 해서 경쟁률이 나 합격선이 낮은 것은 아니니 전년 나 합격선이 낮은 것은 아니니 전년 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교과 성적이나 논술·적성고사 실력 등이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판

체액 한방울로 알츠하이머 진단 가능해진다

고려대-경희대 공동연구팀

수 연구팀과 황교선 경희대 의과대 학 교수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그 래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혈액과 뇌척수액 내 존재하는 알츠 하이머병의 주요 원인물질을 펨토그 에 (femtogram, 1벤로는 1/1002조) 이밀로이드와 타우 단백? 수준까지 한번에 검출해낼 수 있는 검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고감도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 윤 교수는 "이번에 개발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동시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윤대성 고려대 바이오의공학과 교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 - 연구팀과 황교선 경희대 의과대 절이 체액의 생리학적 환경(산도 pH 7.4)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 런 특성을 활용해 뇌척수액과 혈액 내에서 몇 펨토그램 수준에서 베타

검솔애내는 데 성상했다. 윤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다양한 질병 진단에 확장할 수 있는

갤러리 내일, 김정좌 초대전



소리, 33.4x24.2cm, 윷칠목태캔벗 위에 나전. 윷칠재료, 2020

특유의 가치들을 그대로 작품 속에

불겨낸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내일신문사) B2 갤러리내일 전화: 02-2287-2399 송현경기자 funnysong@naeil.com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9.3.)

-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주요사항 심의 · 의결 (18면)

원격수업 6개월 학교현장은

"학습격차 커지고 우울·불안감 늘어"

교육부·시도교육감,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 중·고교생 23% 원격수업하다 '딴짓'

"원격수인 북문에 학교 수입시간 은 미 강이겠고, 대신 쉬는 시간은 참아병이오" "대본 수업하고 하는 시간은 동반에 안되오, 화장점 32 다 수업시력 템이 용비시 중간에 교 설로 들어갔어요. 물론 기본은 나무 고요." "사업 전에서 하는 원리수업 은 컴퓨터만 취로 가열어요." 전 모 학생 (세종시 수영제 교육 2명 인)이 최근 학교 수업에 대한 분인도 토모였다. 김상은 이에도 끝 안되 답답에서 '대전에 있는 학원에 다닌 다고 말했다.

유근에 부측만는 15일 시도교육간 현의에서 "박반고 격히 꺼 항방 가 수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 자근된 시도교육(남동도 현직수(10) 때 문권 시도교육(남동도 현직수(10) 때 문 본제에이 나타지고 있다며 등교 기행을 막한 연수나 배우된 정비도 기업왕보다 오는 전문 학교들은 등교수업 을 재개한다.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다. 추석 연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날



● 시역 상황에 맞게 유건은 교육교 바는 방역당국과 충분한 협의나 등일이 있었는지 여부다. 추석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남 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구축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부 르면 중·고교생 23%가 '원격수업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시도교육

전체도들이 있었다. 이약다. 추석 내 전형은 교계가 나타니기 시작했 경우 등교수에도 보다가 처음할 것 하지 보다는 것이다. 보다는 것 하지 않는 보다는 지수를 될 할 수 때에 없다. 가장 는 분류는 본 전체에 보다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보다는 기술을 할 생명하면 있다. 발생한 수십 강의 발표가 나타는 전체에 함께 하지 보고되는데 함께 가고로부 수업에 대는 학습과보다는 이렇지도 대로 참석하고 있다는 경우 보다는 기술을 보다는 기술을 보다는 기술을 보다는 기술을 받아 기술을 보다는 기술을 보다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노사정 합의

"전속성 재검토, 적용제외 신청 남용방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 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 작용 확대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속성' 기준과 '작용제외 조항' 남용

관광업 퇴직노동자 전직지원 나서

노사박저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 로자들면제면에 교로되다도 이미 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 퇴직 노동 자들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에 나

두 기관은 관광업종 퇴직노동자의

로 개발하고 전국 12개 재단 중장년 회를 시작으로 제주 관광업종 종사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지 자의 전직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원학 계획이다

재단과 관광인자위는 다음달 15일

전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 제주지역 호텔관계자 대상 공동설명

19도 관광검증 중사사들이 많은 어 러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집안의 생계 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들의 불안 과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선다. 부산에서 관광업을 회의에정자를 대 학음을 겪고 있고, 부터 집안의 성계 나도 재단에서 관광례자인적자원계 가 과정을 진행한다. 관광업중에서 과 고등은 다옥 글 수밖에 없다"면서 반위원회 (위원 3 업세포, 관광인자 의 작가 과정을 진행한다. 관광업중에서 과 고등은 다옥 글 수밖에 없다"면서 반위원회 (위원 3 업세포, 관광인자 의 작가 공항은 함은의 관련 분야로 "이들의 빠른 재취인을 위해 중한년 의 작가 공항은 학문의 관련 본야로 "이들의 빠른 재취인을 위해 중한년 의 관광업공반다. 합의 자유가 교육 기간 관광 사업의 기간 관광업자가 고 밝혔다.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전 기자 nihan@naeil.com



법외노조 처분 '공무원노조도 '원상회복' 대합인이 전조적 대한 법의노조 원보서본'의 위법하다고 단원한 기본대 회사라운영화 이 많은 이용로 함아이용 받는 전국원인노조 (전원인노조의 대회사도 '환성회복'을 요구한다. 원인노조 최저지원산회복무용위협회 (대원한 이 없는 이용로 활아이용 받는 전국원인노조 회사회사 (전원인노조의 대회회에 대책을 상상이 협약할 장한 요구했다. 시간 인원에서 회복한 라인노 전공원 사원인노조 (전원 시간 원칙 사원인노조원인 등 한 한 사원인노조원인 등 가장보다 시간 인원에서 회복한 라인노 작업된 사원인 시간의 대원인 (정상은 건 공연인노조원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와 행위자 동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범의 으로 평광형발과 행정질·서보로서의 과태됐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한법 이번 행정법과 취임이 대해 형법성 의 형법을 과하는 것이다. 이런 형 점보구 위반병의가 건접적으로 몇 명성의 질사에 강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서 형성질·성별을 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역정전으로 행정적되고 있으는 회해에서 영경형법을 과해 약하는지는 당해 위반병의가 영정 가능성에 따라 취임하는 정도 와 가능성에 따라 취임하는 경도 가 가능성에 따라 취임하는 경도 가 가능성에 따라 취임하는 기를 자기를 가 가능성이 따라 취임하는 기를 가 가능성이 따라 기를 지는지 안하는지 개최되다. 산안법 소령의 행정형법은 제167조 이하 7 개조로 규정돼 있다.

과실 처벌규정 없어 고의범만 해당 를 그대로 방치해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뤄졌다면 그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급인이



에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 규정은 얼거주의를 취하 고 있는바, 안전조치 의무내용에 규 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근로자에 제 사상의 결과가 발생됐을 경우에 는 사업주에게 산안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고, 형범상의 업무상과실지 사사되어나의 모래 되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벌칙 하는 형식인 점과는 차이가 있다. 도급인 안전보건소자 위한 및 월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식의 근로자와 관계수급 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도급인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국내외 AI석학들 '빅데이터 워크숍'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 18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

(나.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성배 미국 이번 워크숍에서는 입성배 미국 배인트메리즈대 경영대학 중신교수 가 '블록체인과 박데이터의 융합'을,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미 내외료현장의 인공지능 모습', 유성 존 세종대 인공지능 박데이터 연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9.17.)

- [9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와 행위자 동시 처벌 (18면)

18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산재보험 재심사 늦장·졸속심사"

김 웅 의원, 올해 기한초과 99.9% … 1건당 심의시간 3분 44초에 불과

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사건이 기한을 초과해 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말
문의 사건이 기안을 소파에 서] 산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	재심사청구사건 접수 건수(조)	3,139	3,219	3,503	4,492	3,217
들이 붙이되는 겁 다 이런 사실은 국	전년 대비 증감율	3.7%	2.5%	8.8%	28.7%	15.4%*
김 웅 의원(국민	사무국 정원(B)	26	25	25	25	25(현원 26명)
h o 크곤(크린	정원 1인당 접수 건수 (A)/B)	120.7	128.8	139.6	179.7	(207)**
a '최근 5년간 산업	평균 처리 일수	43일	49일	74일	108일	140일
년석한 결과 확인됐다.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처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경원(최은 사무라(리) 및 사무준 또한 기 판기관이다.		9	한 사건	당 평균	심리 시간도 4
면 2016년과 2017년 기		F임(심리회의 (
가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모 박힌	한 사건	당 평균 나타나!	심리 시간도 4 면서 졸속 심9
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것에 비해 2018년 6.08%, 8%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6 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3년 3139 매년 꾸	또 박힌 우려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0	심리 시간도 4 면서 졸속 심9 20년 1월부터
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것에 비해 2018년 6.08%, 3%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99.9%에 달한 것으로 나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0 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3년 3139 매년 꾸 는 1년에	또 박힌 우려 월끼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지 총 7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1 5번의 호	심리 시간도 4 면서 졸속 심의 20년 1월부터 1의에서 논의
보면 2016년과 2017년 기 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것에 비해 2018년 6.08%, (%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99.9%에 달한 것으로 나 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1 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3년 3139 매년 꾸 는 1년에 ! 건수기	또 박힌 우려 월끼 심리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지 총 7 는 3419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1 5번의 호 1건이었다	심리 시간도 4 면서 졸속 심9 20년 1월부터 의에서 논의 다. 1회당 평
만 2016년파 2017년 기 하지 못한 재심사 비용이 당에 비해 2018년 6.08%. %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99.9%에 달한 것으로 나 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남사위원회)는 산재보험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1 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	3년 3139 매년 꾸 는 1년에 ! 건수기 다. 이로	또 박힌 우려 월끼 심리 45.6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지 총 7 는 3419 건으로 선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1 5번의 호 1건이었다 님의시간	심리 시간도 - 면서 졸속 심: 20년 1월부터 의에서 논의 다. 1회당 평
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것에 비해 2018년 6.0%. 8%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199.9%에 달한 것으로 나 남자해보상보험 재심사 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1 건에서 2019년 4482건으로 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 안해 2015년 43일이었던 저	3년 3139 매년 꾸 는 1년에 ! 건수기 다. 이로	또 박힌 우려 월끼 심리 45.6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지 총 7 는 3419 건으로 선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0 5번의 호 3건이었다 님의시간! 됐다.	심리 시간도 4 면서 졸속 심9 20년 1월부터 1의에서 논의 다. 1회당 평 은 1건당 약위
다르면 2016년과 2017년 기	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1 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	3년 3139 매년 꾸 는 1년에 ! 건수기 다. 이로	또 박힌 우려 월까 심리 45.6 44초	한 사건 것으로 도 제기 지 총 7 는 3415 건으로 (에 불과) 런 지작	당 평균 나타나! 됐다. 200 5번의 호)건이었다 님의시간! 됐다. 게 대해 :	심리 시간도 면서 졸속 심 20년 1월부터 1의에서 논의 다. 1회당 평

검역소 원격진료 설치하고도 사용 0건

최혜영 의원실 "3년 8억9천만원 지출"

2016년 6억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 2018년 2019년

타났다. 의료인력이 인천공항검역소 3명, 부산검역소 2명, 군산검역소1 명, 여수검역소 1명, 제주검역소 2명

발전 부문 배출권에 환경부담 강화

환경급전 도입 고려해 배출할당방식도 변경

내년보던 반자시들이 배촉귀비요 다.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 제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배출간거래제한 대규모 온실가스 배 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 출하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 서 감촉하되, 할당량이 남을 경우에 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

에서 최종 화정됐다고 밝혔다. 한단 가스 배충량의 비준이 제2차 계획기 에서 최종 위칭됐다고 밝혔다. 함당 가스 배출반의 비전이 제2차 계획가 계획이 계획은 배출간기로 하는 건(2018-2029)이 7025에서 72.5% 십가스 배출한도와 부모반 연충벤 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연충 등이 추 함당 가장 및 방법 등을 경하는 계획 가지만지 최종, 단설도 12만 연하는 이다. 이번 제3차 영당계획은 2021년 . 550가 입체에서 20개 연충, 650가 입부 12025년까지 5년등인 시행된다. 제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봉균 이 배출간거리뿐만 대규모 운상가스 비 응충분도 제2차 계획가(건설) 5억(18)

매하거나 구입하는 제도다.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 상으로,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

전환(발전) 부모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성하는 환경급전 도양을 고리하여 배출요로가 집합 기간 전(2018~2020년) 70.25(에서 73.5% 다 기관 전(2018~2020년) 전화(밥전)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

ADHD치료제 '공부 잘 하는 약 아니다'

"병의원11곳, 환자24명 불법사용"

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 제를 불법 오남용한 병의원과 환자 = 불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한다스(스) 학교에서 한국 사고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 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 되는 병·의원 등 22곳을 선정·기획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경, 폐로스민정10mg 1만8636정) 처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방받아 투약했다.

iol 작반됐다. 예를들면, A의원은 2018년 6월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 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 다 2020년 3월까지 22개월 중단 B단 자에게 총 91회(3만3124정, 페니드 정10mg)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 석약저는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 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세회 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2만1966정)(메니드점10mg 3330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

우이고 , 감시 내용은스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스마약류 재고량 적정 등

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교회기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⑩ 유해·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위한 안전・보건 조치해야

유해,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을 없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 해, 위험요소를 관기하기 위한 대해 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함은 유 해, 위험 사업장에 대해 따루해, 위 형 방지 조치 (오도급 시 산업자에 이방조치 (3유해, 위험기계 등의 조 사 및 지원 (9유해, 위험기계 등의 조 사 및 지원 (9유해, 위험기계 등의 조 가 조치 등을 구제하고 있다. 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객용대 근로자 보호조치해야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 한 고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건강장 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을 제시하고 유해인자의 유해성·위 험성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다.



갤러리 내일, 신문용 초대전

10월 5~15일

새로운 형식을 나타낸 작업을 볼 계와 함께 번해 가는 나 자신을 발견 있다. 특히 신 작가는 중이의 한계 하고 자연과 나의 상생의 세계를 경

를 떠나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다양 점하면서 새

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다 충적 회화로 보이기를 바 란다"고 말



중소·영세환경기업 재정지원 가속화

여성정책연구원장에 문유경 명예선임연구위원

모유경 한국어성정책인구인 명예 생연구위원(6])이 한국어성정책 위원 제16대 완강에 28일 취임했 임가는 3년이다. 문유경 현감은 한국어성정책인 여성친화정책전략단당, 국무·홍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이성가족 정책분석평가자단위원회 위원, 이성가족

용취형 통계위원의 위원, 한국이상 등 연구가라으 함의 이사 등을 연임했다. 문의 명확한 비로 유명 위한 이 의 인 이 나라 이성함께의 신설로 자내해는 가상원들이 한 기간에서 있답한 일본은 연구자를 제 그 실을 걸하는 생각에서 생각이 "주민들이 함 이 나라는 있도록 해석을 주도 상원가 생물다" "주민들이 함께 되어 있다"가 개의 원칙 본부를 밝혔다. 본위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성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9.29.)

- [⑩ 유해·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위한 안전·보건 조치해야 (18면)

장애인 학대예방책 강화 시급 ③ | 인력-인프라 태부족

조사 지연·보호 지원 부실 이어져

옹호기관 1명 상담지원 연간 459회 과부하 … "피해장애인 돌봄 가능한 체계 필요"

#. 와상장에보 혼자 거통하지 못하는 B(지적·뇌건증 장애)째는 노안장기 요양 편경을 받아 가정건호 및 이동 무속을 이용했다. 하지만 집안에 쓰 방병 초기에 빼두 개입이 여자지 제기와 고등이 쌓여 집임이 불가해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되기나 꾀해 l의 남편은 매일 숲을 마시고 R씨를 폭행하고 목욕이나 약복용을 챙기지 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 않았다. B씨 안전을 시급히 확보해야 를 놓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다. 피해자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 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기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략에서 가장 많은 학대의상
세계 전대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남북으로 저항이 갈라져 조사활동에
이해움을 겪었다.
자난해 경기부부적이라면의용로
기관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신규 개강
한단서 경기도 전체의 신교점수 건수는 2010년 30 전체의 신교점수 건수는 2010년 30 전체의 신교점수 건수는 2010년 30 전체의 2010년 30 전체 2010년 30 전체의 30 전체의 2010년 30 전체의 201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 인구수와 지역 특성에 따라 인력 추 가 배치가 찍으하다"고 막해다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현황



다는 연락 1/개 사사에의 의미하에 선 '자이자의리 시항제' 미단에도 등 인의 성별교 의례 적이도 개 이상 | 쓸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치배야 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자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다. 김동기 교수는 "쉼터는 학대공간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기관 현황 (단위 : 명)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	장애인권의 응호기관 상담인력 (2020년 6월)	쉼터 중사자 (2020년 7월)		
서울	10	2		
부산	2	4		
대구	3	5		
인천	3	개소준비중		
광주	3	개소준비중		
대전	2	3		
음산	3	3		
세종	2	개소준비중		
경기	6	6		
경기북부	5	3		
강원	4	4		
충북	2	6		
충남	2	3		
전복	3	내년 설치 예정		
전남	4	2		
경북	2	3		
경남	2	개소준비중		

용호기관이 설치되면서 되레 촉소됐 다. 용호기관이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쉼터 용할 수 있는 공간 등 마련이 필요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⑪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의 주요한 수단

산업인전보고템 (신인법)은 신압 새해를 여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저 이 안전 및 보건을 휴가 중인적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액의 예방을 위해서는 등록 아들적인적 조건에 대한 현재한 인전 보건 조치 있어 노무를 제공하는 지가 자신이 다무는 기계·설비·공경·원객료 또는 작업 환경 등의 위험성을 인석하고 되요 한 대응을 여행하고 역실을 하는 대육을 여행하고 역설을 하는 자여계 공사한 업무에 되었으 안전보고에 관한 교육의 실사가 산업재에 예방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



3000만원 과태료 정기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을 변 건설업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 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 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아인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식계한 내용은 '산압안안보건교 유규정'에 규정되어 있다(미당) 명 이내의 집제교육을 현작으로 하 고 바로가 축하면 전한 내용을 받는 시호보사기이 한다 등).
2012년 1월 25일까지는 개별 건설환경에서 일본건교자를 채용함 때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 어떤 '채용시기의 안란보건교환'은 건설성 차면에서 4시간 이상 설 시하도록 한기초존안보건교육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설성이 하는 생각 이는 사이를 받는 기초존인보건교육는 한 인보건건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이수유를 받금받고 이는 연장에서 나일할 수 있게 바면 것이다. 근로자는 시설간에 제공한 조치에 따라는 안 전체제 여명에 환한 조치에 따라는 한 건체제 여명에 환한 조치에 따라는 건 전체제 여명에 환한 조치에 따라는 한 건세계 여명에 환한 조치에 따라는 건 보이게도 안란보건교육을 받고 그 교육대용을 따라 산업체제를 예방 할 의무가 있게 된다.



에너지 효율화 등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

환경부, 오염물질

형 지원을 주진하고 다양한 분야적 원원경비를 용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연중 지수에 언론 지원의 시원간인을 해준다. 한편 환경부와 한지주경보인는 15 일 시절 환경은 오실가스-통합보신은 다네서 신경된 기업과 '스마트 생태 경영 구축사업의 성공적 주진을 위 선거에 함약'을 제해했다. 건동구 환경부 부석전원정적인은 "미네 기주반의와 환경위기에 신체 연으로 대통하기 위해시는 중소기에 의 의 전원의 부석전원 보역을 기억하여 "동기부 등 관계부처의 합의하여 그만부터 경제을 문한 중 소기업의 녹색전원 보역을 적극 지 원리고 그만부터 사건에 참인한 기업을 인원리고 기관부터 사건에 참인한 기업을 기업하고 기관부터 가속에도로 될 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기업 청년인턴 지원

성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신규

성기업 확년만만 지원 시압을 납하도 구수였다.
김정선 이기부 자란은 "적극적인 법명 해외과 신속한 의사결경으로 이의통하세요 이용평차 개선, 위 기가록 건급 자원, 외학단점에서 일 지리 지원 등 크로나라로 이러움을 적는 과민들에게 열이 "고보나라 극복 과정은 본은 그 이후에는 지보나라 등 작품 보신,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형부 한 설을 누릴 수 있도록 작곡통이 다와 원생기 및 했다. 원연을 가져 의사대해마ael.com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15.)

- [⑪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의 주요한 수단 (18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추세. 수능방역 '불안'

발열체크기 온도표시 제각각 … 짝퉁 항균필름 세균 득실

에 방균저디가 된 필등 부착이다. 분무형 소독방역은 바람이 불거나 장소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보통 하루에 1~2회 방역을 하도록 하 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 다. 보통 1회 정도 살포하는 수준으 로 그나마 교실중심이고 식당과 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 그나며 교심증산이고 식당과 화 대원을 사내하지 못하고 있다. 가다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심, 강당, 교과교실이나 제합장보 는 만하면(대실하면자당·비비)의원 수 한 에비스침, 시험당일 방역철 사들의 증언이다. 제상이 설치한 반 응상대로 "군가소동을 삼군제, 항건 채 대체 세워야 = 교로나 바 환자 위험 어리로 이는 심지역 효과 분들 등이 연간다면 제합인가 다시 위작되는 상원에서 '집간'의 와이나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살명 다 관계를 제기했다. 년도 대하수하는라시원'에 영향을 했다. 살균제 살포 외에는 손소독제 나 항균휴지 등으로 대체한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 지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하 유성본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 고 있는 실점에어서 보건당국과 교 옥부가 나서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 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다는 시작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되는 항균필름 90%가 공인기관 테스 트와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명본세을세기였다. 전도 내약주역응력시점 에 영양을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높아 은 '화확안전제품법'에 의거 생활화 지고 있다. 수능일인 12월 3일 당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은 "소독이 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 날씨에 따라서 발열체크는 크게 달

의 걱정이다.
추운 공간에 있다가 교실로 들어 갈 경우 열화상 카페라나 발열체크 기 온도는 실제 체온보다 낮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험 감독 관이 수시로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파영화기면 는 고모다() 답답에(영화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 지 않고 있다. 고3 교사들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평가원이 시험출제와 채점, 시험 관리를 넘어 방약에도 신 경을 쓰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세우

재활용품 수거안정화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확대

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추 진할 계획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선접한한보건답은 이 접되 필요 성 있는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 로감독관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 로감독관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는 노동관 게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 참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위탁업무 수행시 안전보건공단 직원도 근로감독관

식원도 근토심속반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프로디프로 전환을 구체적으로 살라보면 선언인된보건 제 제 15조는 근로감독안에게 법에 때 변은 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 인명한 보건되는 사용하게 되었다. 산 연안된 보건에는 생물을 사용하기 위해 시합한. 산화 기존, 석면에과 제가입자, 산 연안된 보건에는 생물을 사용하게 하고 인명한 배하는 연구실인한 보건에는 소속 작 원리를 사용하게 하는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면보건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면보건 전략 기존 사용하게 지막하여 보고 산업구에는 사용하게 기존 상태를 가는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면보건 전략 기존 사용하게 지막하여 보고 한 소속 작 있는 전략 기존 사용하게 하는 이 기존 사용 기존 사용하게 하는 이 기존 사용 기존 사용하게 기본 경우에 지막하여 기존 경우 연간 도본 보이며 따른 병명을 위하면 보실에 따른 병명이 가는 선물에 대한 검사를 사용하게 기본 전략에 기존 등 전략에 기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일간 부분파업 결의

자업 - 특근 중단도 계속 과 특근 중단도 이어간다.

내년에는 월 2만2000원 올리는 방안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선정

2학기 대학생 자녀 400명

건성근보자공제회는 건성근보자 의 자네 교육이 부담을 참감하고 코 모나19로 이약하을 겪는 대학생들의 충분에 지원을 위해 200년 오후기 푸른달리 건성근보자공제회 기부장 학생 4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칙 경약금을 지급했다고 90일 됨 했다. 전체회는 이미 1학기 620명의 공 제회 2억약을 선정해 정학다들 지 그래(의 교육기보고 2선보급)

발했다. 한국장학재단의 { 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체하는 코르나19에 따른 사례적 이 학생들에게 20억8000만원의 강하는 "강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4 가리투기로 별도의 장학용서 수이식 을 지급했다. 용해부터는 한국당학 하 인사를 전하며 국가와 사회일은 을 일지 있고 장학생들에게 이사와 전반 '사동등의 기부경학사업'에 기 응세계 흥분한 인치료: 성당해 원 학적 상학생을 선정하고 있다. 공체하는 2014년부터 2020명이 대 선명의 공세계 이사당은 사신에서 "건'을 당부했다. 변원 기자 niher#inselli.co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



전교조 7년 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 재개 유원에 부흥리 집 교육부 정권(오른쪽 네번째)과 권정오 전국교적인노동조합 위원장 로또 세번째)이 19일 정무서울림시에서 임관 전국교적인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재계 회의을 시작하여 기념활명을 하고 있다. 전하느라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30.)

- [⑫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19면)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카드뉴스 8회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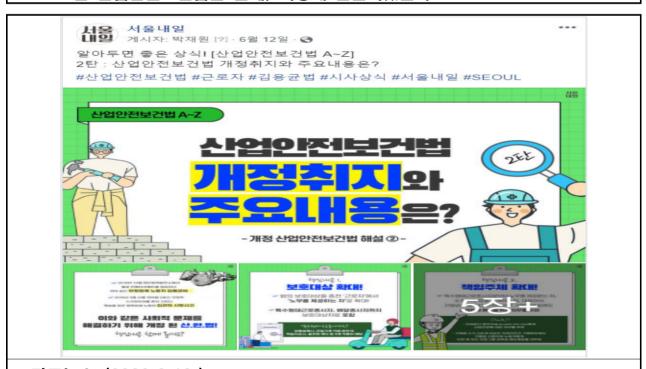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5.29.)
- · 1탄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6.12.)
- · 2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6.26.)
- · 3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와 의무주체는?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7.30.)
- · 4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과 도급사업에서의 적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8.19.)
- · 5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8.31.)
 - · 6탄 산업안전보건법중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9.28.)
 - · 7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벌칙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10.30.)
- · 8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화 안전교육, 근로감독의 역할은?



카드뉴스 (2020.5.29.)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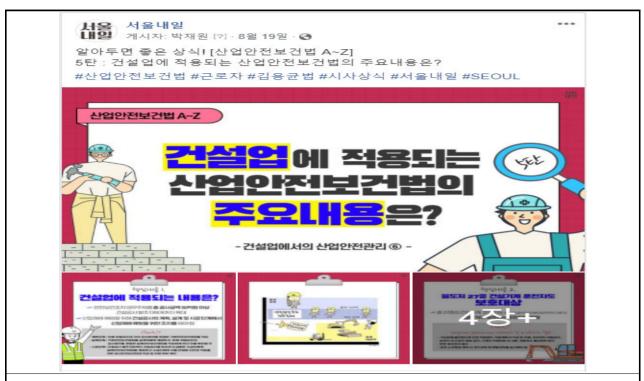
1탄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카드뉴스 (2020.6.12.)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2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카드뉴스 (2020.8.19.)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5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카드뉴스 (2020.8.31.)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6탄 산업안전보건법중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내용은?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동영상 1회

- 내용
 - STOP! 더 이상 끼임사고는 NO! (2020.9.29.)



동영상 (2020.9.29.)

- STOP! 더 이상 끼임사고는 NO!

04 동아일보사

• 사업명

'4대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언론 캠페인' 시리즈

● 실적

기획기사 3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6.25.)
- ·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롤 강화 ··· 작년 산재 사망 12% 뚝 (B8면)
- 기획기사(2020.08.18.)
 - · '사망률 50%'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B6면)
- 기획기사(2020.09.24.)
- · 산재 위험땐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B8면)

東亞日報

2020년 06월 25일 목요일 B08년

기획 **B8** ⑤ 제30743호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동아일보**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롤 강화… 작년 산재 사망 12% 뚝

안전보건공단, 현장 안전 지킴이로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정밀기기 제조업체 씨 엠에스코리아의 변수정 대표는 지난해 작업장 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환기장치를 설치 해 작업장 내 위해 물질을 줄이고 추락 방지를 위해 계단에 난간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클린사업' 지원을 반았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

시설 개선 외에도 안전 컨설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바닥에 널려 있는 드라이버 등 작업도구 때문에 미끄럼 사 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용 수 난함을 보급했다. 생산하 장비를 쌓아두는 정 치대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했 다. 변 대표는 "작업장 크기에 따라 환기장치 배기 성능을 달리하고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 는 걸 알게 돼 컨설팅이 아주 유용했다"고 말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12% 감소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성현장 등 각 종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55명. 이는 전년 대비 11.9%(116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 고사망 만인율'은 0.46으로 처음으로 0.5 이하 를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일선 현장의 안 전조치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공단은 안전시 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 으로 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불시 안전점검(패 E통) 회소를 늘렸다

가장 집중적으로 패트롤을 한 현장은 추락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이다. 최근 3년 동 아 추락 사고로 소지 거석혀장 그로자는 831 명, 특히 5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600명 (72.2%)이 숨졌다. 부적합하 작업 발판을 사용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 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2만7757곳의 건 설현장을 점검해 고위험 현장 1082곳을 적발 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06명 (추락 사고 사망자 276명)에서 지난해 428명 (* 265명)으로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 성을 보위해야 하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경 기도의 한 재개발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 A 씨는 "시공 규모가 작은 다가구 주택 공사 등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곳이 많다.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

건설현장 안전시설 강화는 지역 주민 안전 과도 직결된다. 공사장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의



건설현장 안전조치 불시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불시 안전점검(패트롤)을 통해 건설 현장 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작년 각종 산업현장 사망 855명 전년보다 116명 ↓ … 사상 최대 감소

추락 사망 사고 많은 건설현장 등 작년 하반기만 2만7757곳 점검 소규모 현장 추락 방지시설 지원도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안전조치 미흡 사고 끊이지 않아 올핸 제조업까지 패트롤 확대

택지개방 지구에서 근무하는 권혁일 현장소장 은 "공사 현장 주위에 분진망 역할을 하는 망 을 설치해서 먼지도 줄이고 낙하물 사고 가능 성도 낮췄다"고 말했다.

공단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 락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 금액 별로 비용의 50~65%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현장 여러 곳을 운영 중이더라도 여가 3곳까지 지원하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전시설을 강화한 현장 과 아닌 곳은 사고 발생 비율 차이가 컸다. 2013~2018년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곳의 재해 율은 2.74%인 반면, 미지원 현장의 재해율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3.05%였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 패트롤 확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아 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 4월 38명의 목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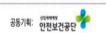
앗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끊이 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5.0%) 늘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198명·78,3%) 골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었다.

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에 집 중했던 패트롬을 제조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다.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을 120억 원 미만 현 장까지 넓히기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 약 3만 곳의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제조언 패트록은 간하하기로 하 것은 시만 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 209명, 2018년 217명, 2019년 206명이 제조업 현장에서 숨졌다. 3년 동안 숨진 사망자 632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05명(32,4%) 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다가 숨졌다. 기계 전원을 와저히 차다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계를 재 작동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현장 점검은 '30-30-3 전략'을 원칙 으로 하다 약 37만 개 사업장 중 위험 사업장 30%(약 11만 개)를 선정하고, 이 중 30%(약 3 만5000개)에 패트롤을 한다는 것. 적발된 불량 사업장 3%(약 1000개)는 고용부의 현장감독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민간 공사까지 '공기 산정 의무화' 확대 작업 서두르다 일어나는 사고 막기로

정부. 현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건설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도 모든 공장-창고에 적용하기로

정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 사 재박은 만기 위해 현장이 아저기준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발표된 종합대책에 는 민간 공사도 공사기간(공기) 산정을 의무화 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당겼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 부문 공사에만 적용되는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화대하다 공기를 죽이려고 작언을 서두르다 사 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산재를 일으킨 발주자는 형사 처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 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가 작은 시공사는 보험료 가 올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안전조치를 잘 지 켜 재해율이 낮은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유도하 는 것이다. 건설 자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 재 600m' 이상 창고, 1000m' 이상 공장에만 적용

되는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 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벽과 내부의 마감재는 준 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 해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 도 나여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용접 등 과정 에서 북꽃으로 이하 하재른 만기 위해서다 이름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 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존 공사대급 1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다 은 답 100억 워 미마 혀장 전용은 시작으로 내녀 7월 80억 원 미만, 2022년 7월 60억 원 미만, 2023 년 7월 5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 규모(50억~120억 원) 현장은 위험작업 신고제가 신설된다. 용접 등 배관 작업, 유증기 가 발생하는 미장·방수 등 작업, 불티가 생기는 절단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신 고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대상도 화재 고위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패트롤카는 지난해 27대에서 연내 108대까지 늘려 점검 횟수와 대상 을 늘려갈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기획기사(2020.6.25.) -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롤 강화 (B8면)

東亞日報

B₆

2020년 08월 18일 화요일 B06면

기회

⑤ 제30789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동아일**부

'사망률 53%' 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산업안전보건공단, 집중점검 나서

늦더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10일, 경북 크를 8년 만에 청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이 내 려가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를 구조하러 들어 가 3명도 모두 2~3분 만에 쓰러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모 두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이다.

기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여름 더위가 시 작되면서 올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짐식사고 비 상이 걸렸다. 오페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 공간 에서 일하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오고 있다.

● 사고 나면 절반 이상 숨져

직식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재 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312명이

10년간 312명 사고… 166명 숨져 부패물질속 황화가스 흠입 '최다' 산소 결핍-일산화탄소 사고 順

률(1.2%)의 40배가 넘는다.

질식사고의 원인은 크게 산소 결핍과 유해가 스 흡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통상 21%)보다 낮은 18% 미만의 산소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다 산소 농도가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지러움, 구토, 근력 저하 등 으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10% 아래로 내려 가면 기도가 폐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다. 8% 미만이면 실심에 이르고 6% 미만이면 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호흡정지와 함께 5분 안에 시망함 수도 있다.

유해가스 흡입은 오수, 폐수 등 부패하기 쉬 유 물질에 녹아 있던 확화가스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대표적이다. 맨홈 등에 있는 부패한 슬러지(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 침전물)를 긁어내면 황화가스가 공기 중에 섞인 다. 이 가스를 흡입하면 산소를 뇌로 보내지 못 하게 돼 산소 결핍 때와 같이 의식을 잃게 된다. 최근 10년 동안 질식사고 사망자 166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황화수소 흡입(48명·28.9%)이 가 장 많다. 이어 산소 결핍(38명·22.9%), 일산화 탄소 흡입(34명·20.5%)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는 시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호흡이 정지된 뒤 구조되더라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환각 등 여 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질식 재해를 막기 위 한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옥 상반기에도 6명 인명 피해

직신사고는 옥해도 이어지고 있다. 직신사고 는 통상 무더위와 함께 발생 건수가 늘지만 올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 해는 이미 상반기(1~6월)에 5건이 발생해 6명 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장기간의 장마가 끝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에 있는 수산물 보관 탱 나고 당분간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질식사고는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쉽지 않다. 오 히려 섣불리 구조에 나섰다가 인명 피해가 더 커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27일 대구 달서 구의 폐지 재활용 업체에서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 다. 이 사고 역시 지난해 9월 있었던 영덕군 오징 어 가공언체 사례처럼 밀폐 공가을 청소하던 작업 자 한 명이 질실돼 쓰러지자 동료 3명이 구조에 나 섰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경우다. 최근 10년간 질 식사고로 목숨을 잃은 166명 중에는 구조에 나섰 다가 시망하 경우가 22명에 이른다 공단 과제자 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의식을 잃어 기어서 탈 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질식사고 발생 질식사고를 당했다. 이 중 사망자만 166명에 이 시에는 반드시 산소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

"밀폐공간 작업땐 안전장비 갖추고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중간 환기만 잘해도 사고예방"

른다. 시망률 53.2%로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 하고 구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단, 사고 예방 위해 8월 말까지 감독

질식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밀폐 공간에서 일할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과 작 업 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 해 봐야 하다 전당하 가격을 두고 화기하는 것 도 필수다. 또 위험 밀폐 공간에는 반드시 감시 인을 배치해야 한다.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이 같 은 기보적인 안전수치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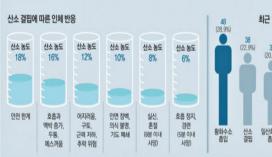
고용노동보아 고다으 이단 98일까지 여르청 질식사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폐 공간 출인 금지 질식 예방 장비 보유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 램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특히 밀폐 공간이 많은 폐수 배출시설 등은 실태조사 를 거쳐 위험 수준을 등급화하고 고위험 사업장 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지도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 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에 산소와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기본적 이 수칙을 잘 지켜 사망 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 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impark@donga.com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질식사고 예방장비 구입비 최대 14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무상대여 가능"

작업 현장에서 질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공기호흡기 등을 미리 갖 취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구조도 장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질식사고 예 방을 위해 갖춰야 할 장비 10여 개를 궈장하고 있다. 우선 산소 농도와 혼합가스 농도 측정기가 필요하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일할 때 쓰인 다. 밀폐 공간 안으로 바깥 공기를 주입할 수 있 는 공기치환용 환기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작

장비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를 갖춰 폐된 작업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과 도 된다. 밀폐 공간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도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구매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한 사업장당 2000만 원 이내 에서 구입비용의 70%(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질식사고 예방용 장비를 무상으로 빌리 는 것도 가능하다. 장비 구입비용 지원이나 무상 대여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유선전화(1644-859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관리

업할 때뿐 아니라 부상자를 구조할 때도 필요한 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작년 실태조사에서 밀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중점적으 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 직원들이 사업장을 직 이런 장비들을 영세한 업체가 모두 갖추려면 접 찾아 질식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 름평가하다

>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밀폐공간 보건조 업 프로그램' 등 질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또 질 식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작업 전후에 점검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 > 박재명 기자 jmpark@donga

기획기사(2020.8.18.) - '사망률 50%' 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B6면)

東亞日報

B8

기획

2020년 09월 24일 목요일 BO

@ 제30821호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

산재 위험땐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안전보건공단 "산안법 안착 서둘러야"

지난해 1월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의 고층 전기열선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 씨가 "작업 중지"를 외쳤다. 딛고 있던 발판 에 문제가 있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즉각 작 업을 중지시켰다. 이후 발판을 보강한 뒤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A 씨처럼 혀장 근로자가 아저상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근로자 작업 주지귀'이다 SK이처서유하한 간은 개벽 대기언 은 이미 입찰 안내서와 공사 계약서에 근로자 작 언중지 권한을 명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이 같은 권리를 얻은 것은 올해 1월부터다 노동계에서 근로자의 권의 보호 를 위해 혀짓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이 권리를 알 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해 1월 강화된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 현장의 안전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은 올해 1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여러

올 1월 산안법 30년만에 전부 개정 "2m 건설현장 작업 발판 없을땐 근로자 즉각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고용부, 사례별 구체적 기준 제시

'급박한 위험' 범위 놓고 분쟁 소지 "안전 우선하는 근로문화 정착돼야"

가지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지만 핵심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 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근로 자가 스스로 파다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함 수 있는 귀하음 주는 게 작업증지권이다. 그동안 국 단시킬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 에 사실상 누구도 권하음 행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B공장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하면 근로자 사고다. 당시 근로자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에 있던 노조 대의원이 '라이 정 지'를 한 뒤 응급처치를 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생산라인 무단 정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 고,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내에 서 작업중지권 행사는 힘든 일이 됐다.

하지만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에서 근무 하던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작업중지권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김 씨 사망 전 함께 일하 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의 작업환경이 열악하 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만약 근로자 차원에서 위험한 상 황에 '스톱'을 외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음 수 있다는 성착이 계기가 된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 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 다 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하 처우를 해서는 안 되다" 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하을 명문화한 것이다.

● '급박한 위험' 두고 갈리는 노사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지금도 있다. 개정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어 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에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 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해당 법 개정 당시 급박한 위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 를 들어 높이 2m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데 작업 발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추락할 우려가 높을 경우 근로자는 즉각 작업증 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 는데 바로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데 산소 농도 측정 없 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한다면 작업중 지 권하이 생기다

노조는 이 같은 권하음 중골 요구해왔다 이 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사측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는 불만이 크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느 자연주지귀과 과려해 노사 이겨이 큰 사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현장 예규로만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간 1000명 가까이 산재 사망

정부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사실상 내에서는 이를 명시한 법안도 없었고, 작업을 중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건 국내 작업현장 안전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 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만173명에 달한다. 해마다 1000명, 매일 3명 이 상이 일터에서 작업 중 숨지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2015년 근로자 1000명 음 대상으로 자연중지권 과려 조사를 하 결과 75%의 근로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권 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업중지가 근 로 문화로 정착되면 근로자 스스로 언제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산 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안착돼 근로자가 위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 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impark@donga.com



佛,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공통 인지때 법의 보호

美, 작업중지권으로 근로 손실 줄여 日선 법원 판결로 근로자 권리 보장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도입해 왔다. 위험한 작업을 회피하는 것이 노동권의 하나인 데다 생산성 향상에도 도 움을 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국노동관계법, 노사관계법, 산업안 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로자의 작업증지 권 한을 명시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세하게 작업 중지 권리를 명시하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에서 작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편이다.

미국에서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 안전권리

기업인 알코아가 대표적이다. 1987년 기업 경쟁 황이 위험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지할 때만 법으 력이 떨어지던 알코이는 신임 최고경영자(CEO) 로 폴 오닐을 선임한다. 오닐 CEO는 취임 일성 으로 '아저 경영'음 내세워다 그는 "혀짓에서 사 고가 날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면 일단 공장을 멈 추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는 연간 400건이 넘는 현장 작업중지가 이뤄졌지만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근로자 100명당 1.86일에서 0.2일로 오 히려 줄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1982년 12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 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심각하고 즉각적 인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상황에서 철수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

강화에 나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압루미늄 제조 하다. 다만 함께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역시 민법 618조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을 규정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권리를 7 질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일본은 근로자 직 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위험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한 근로지 의 권리를 보자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impa



기획기사(2020.9.24.) - 산재 위험땐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B8면)

05 매일노동뉴스

• 사업명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2020 "바꿔야 줄인다"

● 실적

특집기획기사 9회, 전문가 칼럼 10회, 온라인캠페인, 오프라인캠페인, 좌담회(1회), 집담회(1회), 노동안전패러다임 2020 책자 발간·배포

• 내용

- 노동안전 패러다임 2020 특집기획기사 : 9회
 -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글로벌 인터뷰① 스테판 허시 독일 DGUV(재해보험조합) 대표 - "만병통치 해결책 없어, 일하는 환경에 맞는 조치 취해야" 〈2020년 11월 3일(화) 지면(8~9면) 및 온라인 보도〉
 -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글로벌 인터뷰② 사일러스 승 싱가포르 인력부 산업안전 보건국장 - "코로나19 대다수 이주노동자 기숙사 발생, 격리·검사·치료·복지 다면적 접근" 〈2020년 11월 6일(금) 지면(6~7면) 및 온라인 보도〉
 -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글로벌 인터뷰③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플랫폼 회사 배달 알고리즘 정부 승인받게 해야" 〈2020년 11월 16일(월) 지면(12~14면) 및 온라인 보도〉

〈이하 생략〉

- 안전보건 전문가칼럼 : 14회
 - ·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2020년 4월 23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 ·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해야 (2020년 7월 2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 · 현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2020년 7월 3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2020년 9월 1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이하 생략〉
- 온·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 온라인 캠페인 광고 : 홈페이지 노출 249일〈2020년 4월 27일~12월 31일〉
 - ·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백면 광고 〈2020년 9월 14일~18일(5일), 9월 21일~25일(5일)〉
-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좌담회, 집담회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주년〉기획좌담회 (1회) 〈2020년 4월 27일(월) 11시 : 청년재단 회의실〉
 - · 〈왜 노동자 죽음은 되풀이되는가〉 기획집담회 (1회) 〈2020년 5월 18일(목) 14시 : 청년문화공간 JU〉
- 노동안전보건패러다임 2020 단행본 발간·배포
 - ·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2020 단행본 2,200부 제작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유관기관 단체 배포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① 스테판 허시 독일 DGUV(재해보험조합) 대표 - "만병통 지 해결책 없어. 일하는 환경에 맞는 조치 취해야" <2020년 11월 3일(화) 지면(8~9면) 및 온라인 보도>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② 사일러스 승 싱가포르 인력부 산업안전보건국장 - "코로나19 대다수 이주노동자 기숙사 발생, 격리·검사·치료·복지 다면적 접근" <2020년 11월 6일(금) 지면(6~7면) 및 온라인 보도>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③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플랫폼 회사 배달 알고리즘 정부 승인받게 해야" <2020년 11월 16일(월)
지면(12~14면) 및 온라인 보도>





ㆍ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2020년 4월 23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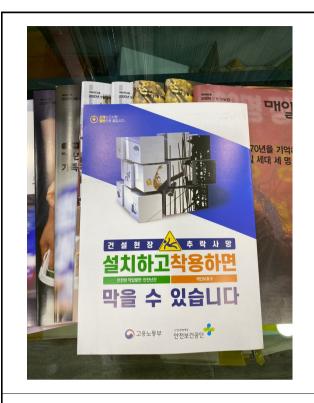


현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2020년 7월 3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2020년 9월 1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백면 광고 <2020년 9월 14일~18일(5일), 9월 21일~25일(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주년> 기획좌담회 (1회) <2020년 4월 27일(월) 11시 : 청년재단 회의실>



<왜 노동자 죽음은 되풀이되는가> 기획집담회 (1회) <2020년 5월18일(목) 14시 : 청년문화공간 JU>



노동안전보건패러다임 2020 단행본 발간·배포

06 부산일보

• 사업명

'안전한 일터는 당신이 만듭니다

• 실적

기획기사 3회, 기고문 1회, 특별보도 1회, 지면광고 4회, 메일링서비스 1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4.28.)
- · '위험에 내몰린 직업계 학생들'(18면)
- 기획기사(2020.05.19.)
- ·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18면)
- 기획기사(2020.06.16.)
- · '잇따르는 승강기 안전사고'(18면)
- 기고문(2020.06.05.)
- · '코로나와 산업안전'(21면)
- 특별보도(2020.07.01.)
- ·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22면)
- 지면광고(2020.07.10./07.17./08.06./08.07.)
- · 5단 광고 게재(지면 1/3 사이즈) 4회
- 메일링서비스(2020.07.01.)
- · 웹구독자(약 13만명) 메일링 서비스

18 2020년 4월 28일 확요일 제 23218 호

기희

부산입보

실습생은 '근로자 아닌 학생' 신분, 노동법 사각지대 '신음'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227만 명 불・운・경 지역에서 사이웨에 조 사하는 근로자 수다. 조선·자동차 업종이 밀집한 부・울・경은 전국에서도 '위험의 외 주화'가 손잡히는 곳이다. 추락, 충돌, 끼 임, 질식 등 4대 악성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는다. 〈부산일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과 함께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 다' 시리즈를 통해 지역 내 주요 산언병 사 고와 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안전 비용을 하청언체에 전가하는 구조전 문제도 짚는다.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현 장 노동자의 비교은 마기 의하 대책은 상태



공업계고 실습실 전경.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작업계고 학생들은 학내 실습실이나 산업체 현장 에서 금속 용접. 절식. 남댐 등 작업을 실습해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위험에 내몰린 직업계고 학생들

학교와 현장에서 실습 위주로 교육받는 특성 하-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 몰려 있다. 실습생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무해 사업안정보건법 등 노동병이 사간지대에 놓 여인기 때문이다. 직업계고의 성과 대부분을 취업 물로 평가하는 제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

■실습생은 '근로자' 아닌 '학생' 2017년 11월 9일 제주시의 한 음료 제조회사 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 모(18) 군은 홀로 작업 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져 끝내 수 졌다. 이처럼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사고 급이질 않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당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안전사고 40건 학생 신부 탓 근로시가 준수 호시 등 노동 최저기준 보장마저 '그림의 떡' 학교, 취업률 급급 안전 점검 소홀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등 대책 시급

한 안전사고는 40건에 달한다. 현장실습생이 사

한 사고도 2건 포함돼 있다. 특성화·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에 따르 면 27일 기준 부산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재학 중 인 학생은 1만 8000여 명, 부산 전체 고등학생 수 인 8만 2132명의 22% 수준이다. 이들은 3하년 이 되면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배우 기 위해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이들은 '근로

자'가 아닌 '학생' 신분만 인정받는 탓에 각종 노

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 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존 '일-학습 병행'에서 학습증심 '현장실습제도로 수정했다. 2017년 1 월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 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 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근로자' 신분을 제외한 '학 생 신분만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 조치와 교육, 근로시간 준수와 휴식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산업체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고 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

■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 급급

기 급급해 현장실습 압체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실습 참가업체 수가 취업물과 연계된 만큼, 안전 요소 등을 까다 롭게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마 에스터고는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매년 취업률을 공개하게 되어있다.학교 입장에서 는 졸업생 취업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장실습은 졸업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취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 단계시험 두 있는 세고다. 단종 교육되장에 따르 면 직업계고 학생은 3학년에 '산업체 채용약정 형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3개월)에서 연중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현장실습 참여 업체를 까다롭게 책정하기보다 최대한 많이 선정해야 취업률을 높이기 유리한

실제로 취업률은 교육부의 학교 '실적 평가'와 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교육부는 1승의 지표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취업률 올리 중 하나로 '4년간 평균 취업률'을 평가하고 있는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실습 참여 학교 수	586买	577곳	516天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521 99999	4만 2785명	1만 7656명
연장실습 참여 기업 수	2만 8248곳	1만 9539곳	7209⊋
현장실습 중 검심·중심 시고	14건	222	271
현장신습 중 사망 사고	1건	1건	021

데, 100점 만점 중 무려 20%가 취업률에 영향을

■ "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해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안 전점검을 위해 '시·도교육청 현장실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직 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협의체 위 임료 다 수 단 및 단리함에 크고시하다 합니세 되 원 대부분(98.6%)이 작업계고 담당교사 등으로 만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면서 '산업안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 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 단위에서 현장심습생을 위한 정 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 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 지원단은 현장실사 단, 전담노무사 등으로 구성된다. 노무법인청록 는, 선택도구시 중으로 구성된다. 모구입인성속 하승혜 노무사는 "지원단은 직접 실습업체를 방문 해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꼼 꼽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습 현장에서 안전사고론 죽이기 전단/ Fac는 열립 현영에서 한전시되면 출어기 위해 실습생 보험가입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하 노무사는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 여할 경우 산업자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조치하 고. 기업 내 실습생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기업 현장교사가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

리연합회가 교내 실습실 안전 보장 등

수면 과학의 결정체!

"고글 없어 눈에 톱밥 들어가도 꾹 참았죠"

재학생·졸업생이 말하는 실습 현장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지난 2월 '특성화 고 화생·졸업생 교육·노동화경 및 차별 실태조사 고식을 통해하고 목적 고등환경 및 사를 돌려오시 보고서를 냈다. 목성화고 3학년 학생과 졸업생 71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는 위험한 실습 현장에 노출된 학생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답겼다.

서울의 한 디자인 관련 특성화고에 재화 중인 A(19) 군은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 나무를 잘 라야 하는데 고글도 없었다. 대신 아크릴판으로 얼굴을 기리는데. 봅밥이 눈에 들어가면 아팠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실습하는 줄 알고 꾹 참았다" 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의 안전 지도도 허술했다 고 증언했다. A 군은 "실습 중 친구가 손가락이 반 정도 잘켰는데 병원 가서 봉합한 뒤 '왜 정신 못 차리냐'고 다그치면서 안전지도는 안 한다. 그 러니 1년에 한두 번씩 꼭 사고가 난다"고 전했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B(19) 군은 현장실습 때 생긴 흉터가 아직도 한 번씩 아린다. B 군은 "공직물을 작업하는 데 학교에서는 털이 달린 장갑을 줬다. 장갑 털이 빠지는 탓에 다들 장 간을 안 끼고 작업했다"면서 "그러다 공작물이 간

자기 내려앉으며 손을 다쳤다. 근로자들은 고무장 갑을 끼고 하는데 학생들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 답을 가도 하는데 확성을는 은사 옷했다고 들어 냈다. 톱질을 맨손으로 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350~40 0도에 달하는 뜨거운 히팅건을 사용하는 데도 얼 굴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다른 학생의 주장도 있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 참여 언제나 학교가 안전 문 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 업 특성화고 졸업생은 "안전 문제에 대해 회사에 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데 한색에게 '악아서

하라 고 다 떠넘긴다.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서 안 하다 고 다 대답인다. 교육부 등 유선가전에서 한 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안전 교육이 더 세분되어야 한다는 목 소리도 나왔다. 부산기계공고 졸업생 김동혁(2 9) 씨는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전공에 상 3) 서는 학교에서 한편 교육을 받을 때 한당에 당 관없이 일괄적인 내용을 알려줘 아쉬웠다. 조선과 는 용접 업무가 많으니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는 법. 전자과는 감전을 피하는 법 등 세세한 안전 수 착음 알려줘야 안전사고 예방에 심진정인 도운이 된다"고 말했다

>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수면장애 57% 급증...잠 못자는 노인 사망위험 높아..

아니, 멘탈닥터, 착용만 했을뿐인데...

잠이 솔솔~ 매일 상쾌함으로 지냅니다





고생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안해본 것들이 없 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에 다니며 침도 맞고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였어요. 잠이든다 싶으면 아침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몸은 불대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병원이나 한의원의 전단결과는 뭐 특별한게 없다는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거예요, 물론 배 일밤을 못 잔 건 아니지만 10년 등안 밤에 참 이 안 와 고생한 적도 많습니다. 수면제도 먹 어보고 했지만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더와증 덴탈닥터라는 제품을 함게 되었어요. 처옥에 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하며 반신반의하였지만 일단은 믿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게되었어요 착용하면 푹신푹신 쿠션이 있어서 편해요. 멘

릴닥터 나레이션을 듣고 안구운동을 하다보며 저도 모르게 복잡 했던 생 간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록 눈이 감겨요. 그랬다가 다시 깼다가 내가 잠들었구나 라는 생각 으로 다시 안구운동을 하는데 그럼

또 다시 장에 들어요. 이렇게 스르뷴 장 드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스르륵 잠 들지 않을 때는 멘탈닥터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는 확실히 마음도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 이 관안해져서 멘탈닥터를 벗고 누우면 잠이 잘 와요. 볼면증. 수면음악이라는 테마 말고도 여러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제는 참과 관련된 테마 말고도 용서 정신거강 센프테라파 지짓 스트레스 등 더 다양한 테마를 하며 행복한 싫을 찾을까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수 많은 분들에게 이 멘탈닥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못자는 괴로움을 느껴본 저로서는 멘탈닥터의 도움을 정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수면을 못 취한 저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으니까요

"불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잠, 제대로만 자도 고생 안합니다!" 임상으로 입증한 뇌건강 개선에 도움



지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주문하시면 40% 은 당시는 선원공고을 등에 구매하신 등에 열어야 한민들이 처음합니다.

기획기사(2020.4.28.) - 위험에 내몰린 직업계 학생들(18면)

전국 4대 항 중 사망자 수 1위… '안전 투자' 눈감은 탓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사망사고 있따르는 부산형

최근 2년간 항만 노동자 8명 사망 낮은 조도·중장비 운행 속 맨몸 작업 시설 노호하 등 연안하 화견이 웨이 기존 '안전관리 상성현의체' 유명무실 무제점 즉시 개선토록 예산 투인해야

물동량 2000만TEU 이상의 '메가포트'. 세계 적인 환적 거참항. 부산항이 이 같은 타이들을 얻 기 까지. 365일 24시간 부산항을 쉬지 않고 돌리 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빛나는 타이를 는 고등자들의 최고 함이 있었다. ᆾ다는 다이를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다. 부산항은 최근 전 국 4대항 중 '사망자 수 1위'라는 오명도 떠안았 다. 2018년부터 2년간 8차례의 사망사고가 잇따 라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부산항의 사망 사 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는 투자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비롯한

■ 잇따르는 사고…예견된 '인재'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남구 감만부두 4번 선석 앞에서 이동 중이던 크레인기 사 A (48) 씨가 야드 트랜터에 치여 숙졌다. 당시 A 씨는 근무를 마친 뒤 이간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해 3번 선석으로 걸어 이동하는 중이었다. 보통 부두들 이동할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만, 이날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던 탓에 혼자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트랙터 운전자 B(3 2) 씨는 당시 비가 오는 데다 날씨마저 어두워 시



부산형 근로자들이 수십1의 컨테이너와 중장비가 설름 없이 용죄이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1월 부산 남구 신감면부두 야작정에서 근로자가 컨 테이너에 깔려 숨졌던 사고 현장 모습.

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화살은 A 씨와 B 씨로 향했 다. 왜 셔틀버스를 타지 않았으며, 왜 주변을 제대 로 살피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 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병'에 있었다. 산업안 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 업면 조도는 75럭스(lux) 이상이어야 하나, 사고 당시 조도는 7월스에 봉과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3시 고그는 가격으에 불러났다. 현영 고양자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조명이 어둡다는 이야 기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부두에서의 의원처마하 사항으 이쁘마 아니다 후구에서의 취업성단한 상황은 이분한 아니다. 2018년에는 두 명의 작업자가 라싱콘(컨테이너끼 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도구)을 손수레로 옮기던 중 참변을 당했다. 대부분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산항은 지계차를 이용해 라시콘을 옮기고 있 지만, 복항에서는 여전히 이 장비들을 노동자들이 직접 옮기고 있다. 중장비들이 쉴 틈 없이 머리 위 니는 데다 조명마저 어둡지만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용쓰고 매 목으로 부두에서 작업을 받이다.

부산항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총 8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만 5건, 2019년에 3 건이다. 경상, 중상 등의 사고는 더 빈번히 발생한 다. 부사항 아저과리 사성형이체에 따르며 지나 다. 우산당 한신본리 창출합의세에 따르는, 시단 해 1월-9월까지 부산항에서는 총 9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중상은 2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는 '넘어짐'에 의한 부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물체에 맞음'이 26건, '끼임'이 12건, '떨어 집'이 9건으로 뒤롭 이었다.

점 이 9건으로 뒤돌 이었다. 부산항운노조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향인 북항 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컨테이너가 떨어지거나, 신 가게 고딕성으로 단해 단네하다가 할어지가다. 전 규 장비를 들어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 운영사들이 적 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 책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언 제까지 부두름 유역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메니

제//시수무를 논경을 서도 모든은 양광에서 마당 선비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문제는 노동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 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경우 '작업 중지' 등을 요구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두의 경우 단일 사업장이 교수 사이하다 하시는, 구구의 8구 인물 시합하여 아닌 데다 혐의해야 할 주체가 많아 이마저도 이 려운 상황. 현장 노동자풀은 안전한 부산항을 만 들기 위해서는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각 부 두 운영사, 노조 등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일을 모온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2018년 11월 20일 부산 동구 자성대부두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18년에 일어난 5 포 현광의 도청자가 참겠다. 2018년에 될어난 3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안 전사고 방지 긴급 대책회의'가 얼렸다. 부산항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

석혁이체 등 구성해야 하다는 고간대가 형성돼 다. 2018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2019년이 서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가 구성됐다.

상설업의체에는 부산해수청,부산해수청, 부산 항만공사, 운영사, 노조 등이 참석하며, 분기별로 장건을 모았다. 2019년 5월에는 북창, 신항, 감 천항 각 1개 부두에 유관기관 합동 현장실태조사 도 진행됐다.

하지만 삼설혐의체가 구성된 2019년에도 사망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이후 각 기관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이가고 있지만, 특상공론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성혐의체가 구성된 이후 에도, 2019년 12월에는 2건의 사고가 보름 간격

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북항 감만부두에서 어두 운 조명 탓에 사고가 난 것이 드러난지만, 아직까 지도 조명이 교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조명을 지도 소영이 교체되지 않았다. 자고 이후 소영을 LED로 교체해야한다는 요구들이 나왔지만, 교체 바용을 누가 낼 것이냐를 두고 기관 간에 '눈치 싸 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형이체에 참가하 하 과계자에 따르며 보 당시 됩의제에 참가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 산항만공사 측은 '집주인'과 '세일자'라는 비유를 들어가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 산항만공사가 비용을 들이고, 향후 운영사에 구상 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지만 서로 책 경을 정부하는 성용으로 배립시키했지만 지도 목 임을 미루는 사이 6개원이 지났다. 아직도 감만부 두의 조명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공포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산한운노조 후생복지부 태홍식 부장은 "안전 사선템인치가 만들어지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사고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즉시 개선이 안 된다면 "탁상공 론'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협의체에서 책임소재 른 명화히 해서 노동자이 아저운 치우서으로 하느 을 상략이 에서 도움차의 전인을 퍼무진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압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전국 첫 '항만 근로자 안전 관리지침' 추진

부산해수청, '지침' 연구용역 완료 보고 오는 6월 안전관리 주체 지정 등 발표

서 국내 최초로 항만 근로자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유지인이 외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14일 '부산항 근로자 안전 관리지참' 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 다. 해수청은 이 자리에서 나온 부산항만공사(B PA)와 항만운송사업자, 항운노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

. 그동안 국내에는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이 전무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은 전 직종에 대한 기준이다보니, 항만하역 작업 에 목화된 구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 부산 항만공사에서 만든 '항만 안전매뉴얼'이 있으나, 2013년 제정된 데다 작업별 근로자에 대한 상세 한 지침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침 제정 용역을 수행한 한국한만연수의 부산 연수원은 일본 등 국외의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지 침과 국내의 항만 안전관련법 등을 참고해 지침의 요보 수에의 중은 인단단합 중을 참고에 사장되 초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복잡한 계약들로 얽혀 맹확하지 않았던 안전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작 업별로 세부 지침을 규정했다. 지침에는 하역작업 공통 안전수칙부터 컨테이너화물 하역, 일반화물 하역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치까지 단겠다.

하지만,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 적도 나온다. 부산항은노조는 사업주가 지침을 지 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작인 중지를 요구한 수도 있다는 강력한 조치 등이 따라야 지침이 실

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도 조명 밝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인 75럭스(lux)의 10분의 1에도 모 미치 수준이었다. 기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준을 키지 않을 때 따르는 제재 조치도 뒤따라야 지 침이 실효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항만 내 안전 사고 뿐 아니라 조그는 이와 함께 정한 대한한 시고 문이다다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 김용군법'(항만운송사업 법 개정 법률만)'도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다고 감조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과 같은 강제 조항은 이미

중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향후 이 지침을 법제화 하기 전 정부 부처간 협의 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항단연수 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는 "부산항 근로자 안 전관리 지침을 전국 항단에 적용하기위해 이를 해 수부 관합의 "항단운송사업법"의 하위법으로 법제 화 하다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번과 충동 할 우려가 있다.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용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현대HCN 부산방송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종료합니다.



현대HCN 부산방송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2019년 08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통료 이후에는 아날로그 TV를 통해 시험하고 계신 세대는 시험이 어렵기때문에 현재 별도의 전비 없이 아말로그 TV를 통해 방송 시험 중 세대는 1977~8900 또는 국반없이 124로 연의주시인 지속적으로 방송 시원이 가능한 수 있도록 만배하므로 있습니다.

사전에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방송 신호로 변환하는 단말 장치 등 현대HCN 부산방송의 조치를 이미 받으신 세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계없이 지속적 시청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대HCN·부산방송 설립 1877-8900



기획기사(2020.5.19.) -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18면)

18 2020년 6월 16일 화묘일 제 23252 호

기회

부산일보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 강요하는 불법 하도급이 '화근'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❸ 잇따르는 승강기 노동자 안전사고

최근 5년 사이 40명 가까이 숨져 국내 4개 언체 '공동도급' 편법 동원 최대 40% 수수료 떼고 일 떠넘겨 영세 하청업체 '안전 투자' 여유 없어 매년 현장서 안타까운 재해 되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극한까지 이윤을 추 구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이윤을 짜내는 시스템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반대급부로 사업장

시그러는 안동이 확립해지고, 언제급구도 사업장 의 안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영세업 체, 하황업체의 몫으로 남겨진다. 사업 현장 전체를 관장하는 성숙한 안목과 안전 에 대한 철학은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장의 개개인 은 거대하 이유 추구 시스테이 보쬬의 뿌이다. 매 은 거대한 이를 우구 시스템의 우합할 뿐이다. 내 낸 산업 현장마다 안타까운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 만 학습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맺었는 사망 소식이 거듭 들려오는 이유다.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엘 지는데 3을 구년 에단대구 된 어퍼보에지는 물 리베이터 노동자 2명이 숨졌다. 17층에 있던 엘 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이 들이 화를 입은 것.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인 7월. 이번에는 동래구의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노동자 1명이 순진 채 박견된다. 이렇 교리에 되는 보증자 18% 점단 채 불단했다. 이렇게 작업 중에 안전 사고로 사망한 엘리베이터 업계 노동자는 지난해에만 7명. 최근 5년 사이 40 명 가까운 엘리베이터 노동자가 현장에서 꽂다운 생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



2019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 도중 승강기가 추락해 인부 2명이 숨졌다

국내 엘리베이터 언계 시장규모는 여간 3조 50 역대 필리바이터 쉽게 사용규모는 현단 3호 50 00억 원까지 급성장했다. 그런데도 이처럼 엘리 베이터 안전 사고가 속출하는 이유는 불법 하도급 이다. 원칙상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하도급을 주 는 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지 바에 따르면 엘리베

이터 언체는 여저히 '고통도급'이라는 교묘하 비 법으로 수수료만 땐 뒤 일을 하정입체로 떠넘기고 있다. 이들 대형 엘리베이터가 이 과정에서 책정 하는 수수료는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실제로 이 같은 언계 관행이 듬통나며 군내 엘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



리베이터 언체 대꾸들이 지난해 국각에 증줍이 소 단메이터 답세 대표들이 시는데 육당에 돌돌아 오 환 요청을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당시 국감장에 서 밝혀진 이들 4개 압체의 하도급 비용은 40~5 0% 선. 따낸 사업의 절반을 영세 하청압체에 떠 넘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보사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아까트 에리 되는 무건지락에서 이하지고 있는 아파트 달리 베이터 사고 역시 하칭압체에게 낮은 단가를 강요 하다 빗어진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국감장에 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역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 지장시고는 지식 필요에 있는 당세골은 도시하구 지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했 고, 윤며 겨자 막기로 타지역에서 영제안제가 내려 가서 알하다 받아진 사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세 하청업제는 저가 수주를 위해 안전

어저럽 영제 아침합제는 자기 구구를 위해 안전 비용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까지의 계약도 받아들 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현장 에 배치되면 신형 안전장구류가 지급되지만 영세 업체는 이직이 잦다는 이유로 중소제품을 떠안기 거나 안전 장구류마저 본인이 구입하다록 압박히 는 경우가 잦다. 노동 전문가들은 불법 하도급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단가로 사 업을 수주하게 하고 더 촘촘한 법망으로 원청 업 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국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정반 이상 국 산립현광에서 들어서는 안전자고의 혈안 이용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이루어져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재래형 사고 이기 때문이다. 무단 칼이되어 버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기 위해 원외 에서 거듭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 UHC 그 체결채 주하다. 주대재체기어워버버의 설립도 그 에널액 등 한다. 등대세에 기급처합됩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 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 수위 역시 기 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다.

근 한답한한모안답보다 됐다. 그러나 2015년 입법 청원이 시작된 중대자해 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 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지 금도 표류하고 있다.

금도 표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지난달 노동부의 안전보건 특별감독이 이루어진 지 하루만에 노동자가 질식사한 현대중공업 사례 만 봐도 정부와 관계 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지도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도 이런 상황인 데 여기서 저가로 2차, 3차 하청을 받은 중소 영 세기업을 나무랄 수 있겠느냐.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법인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고 정확하게 문 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악질적인 덤핑 관행도 뿌리 뽑아야"

업계, 부실 계약으로 인건비 부담 행안부 '2인 1조 점검' 권고 불구 '1인 점검' 만연, 사고 위험 노출

불법 하도급과 함께 노동자의 목숨 위협하는 악질적인 덤핑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사고로 취하 돌라비아더 오동자 A 씨는 시간에 사기도 진단 동료를 잃었다. 동료의 사고 이후 행장안전부는 업계에 '엘리베이터 현장 점점을 2인 1조로 하 라'고 권고하고 있다. 불시 단속에서 1인 점점이 적박되면 범정을 주겠다는 신이다

A 씨는 실제로 업계에 만연한 1인 점검이 술한 안전사고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그는 "혼자 호출

O 국내 4대 업체 엘리베이터 관리 현황



을 받고 나가서 달랑 엘리베이터가 1대뿐인 아파 트를 보면 막막하다. 기계실까지 걸어 올라가 고 장을 파악하는 사이 벌써 1층에는 유모차 부대와 노인이 몰려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서 어서옥 눈이고 그러며 또 마음이 쫓기다. 그러 다 보면 제대로 된 수리보다는 일단 엘리베이터 가동만 시켜놓고 보자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

그러나 당장 2인 1조만 되어도 1인이 밑에서 조음하고 나머지 1인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타고 점감하면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나아진 다. 노동자 안전도 마찬가지다. 연식이 있는 아파 트는 지하 1층만 가도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갑작 스러운 사고가 나도 도와달라고 외부에 연락할 방 법이 없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업계는 '2인 1조 점검은 늘어나는 인

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엘리베 이터 업계에 덤핑이 만연해 있어 인건비마저 배가 을라버리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춘 수 없기 때문이 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 유지보수요금을 엘리베이터 1대당

16~20만 원 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전하는 승강기 유지보수요금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제대로 된 가격이 15만 원이라면 곧바로 다른 업체에서 10만 원에 치고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 아파트 업대위는 무조건 더 싸 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영세 업체에서는 한 달에 2 ~3만 원을 부르는 언체도 하다하다. A 씨는 "아마 "3한 현실 부드는 업체도 어나이나, A 씨는 아마 전국 어느 아파트도 표준 유지보수요금을 자키고 있는 아파트는 없을 것"이라며 "심한 곳은 대당 8 000원을 부르는 곳도 봤다"며 혀를 찼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덤핑으로 따낸 부심한 계약 은 곧장 현장 노동자들 쥐어짜는 구조로 이어진 다. 그나마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의 경우 숙직 반 근무를 하면 다음날은 하루 휴무가 주어진다. 그

러나 영세 업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A 씨는 "잠 도 못 자고 새벽에 호출받고 일하러 나가다 전부 대 들이받은 동료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괴감이 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덤핑은 업체가 만만한 인건비 를 쥐어짜기 위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고, 공채라는 게 없는 이 업 계에서 영세업체 노동자는 '지금만 참고 경력 쌓 아서 이직하자'며 이를 감내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권상국 기자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모델명 : IM-1200 원터치 남녀공용 사이즈: 230-280mm 색상 : 블랙(BLACK) 할인가 : 59,800원

혈류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장착된 **건강신발**

특허받은 최첨단 IMOOV CHIP(변환단자)이 발목과 허리 척추로 전달되는 충격전환흡수 무배터리 영구진동단자 - 혈행을 개선해주고 피로를 풀어준다.



수병으로 전통하는 일반 모타나 바이브레이터 와는 완전히 다른 평으로 전등하는 분 되는 선생이 다는 두 평으로 전통하는 특수 현 무배터리 전통단자 로 협략률 개선해 주고 발로부터 발생하는 총

반로부터 발생하는 총 격을 전통으로 흡수전 환하여 인체에 기례자 는 지민으로부터의 총 격을 완전히 흡수하여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보행이 편해지는 중치 이다. 많은 연구 논문 과 연구결과로 증명된 아이우보집은 행물개 성이 총계를 16대에

고 이를 당되면 제한을 이 많은 인기를 즐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건강 신반은 받이 틀만하거나 받을 다리가 자주 걸리거나 보 명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유하며 활부효략이 일말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러가지 불만한 사람들을 해결

해 중 위 있는 진정한 건강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리리 당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진동하는 참으로 녹 하장에 동타면 특허대장이다. 외마는 가벼운 나트래쉬원 단당 사용하여 봉장이 일당하여 방면색의 병생요인들 원 전적으로 자근하였으며 부드리운 회의는 말음



IMOOV CHIP NEW INVESTOR OF WEIGHTON THE DECLEGY STAND IN THE CENTER OF INNOVATION!



우수한 제품이다. 아이무브침의 내무에 많은 박한은 지구의 미세 한 전통 또는 지구에나지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아 제조를 위신하다 은 전동을 받아 제조를 위신하다 여 부패를 지연하고 더욱 건강한 여 부패를 지연하고 더욱 건강한

산선도를 유지하는 특징도 있다. 아이 점은 내부에 영구자석 9개를 산입하여 3,200기우스의 저 기력을 발생시켜 현대안에게 꼭 필요한 자기력을 공급해



기획기사(2020.6.16.) - 잇따르는 승강기 안전사고(18면)

21 브산인보 2020년 6월 5일 교육일

Opinion

고 공감

도시와 수레



이종민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대표

강서구, 옛 대저수리조합 철거 계획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개발과 보존의 양남 마주쳐 상황 신간 일제강점기 지어져 보존 주장도 제기

시민 모두가 잠시 고민해보아야 묘방과 해결책 찾도록 노련해 이면

근래에 강서구청에서 발표한 한 공모전이 논 정거리로 따올랐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는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의 자리가 옛 대저수리조합 사무동'의 부지가 있는 자리에 건 립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개별 건물로도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 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일고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다. 늘 부딪히는 일이지만 IBC S어를 가지게 한다. 를 구찾이는 될어지만 개발과 보존의 양날이 마주 서는 꽤 심각한 상황 이다. 시민 모두는 잠시 고민해 보여야 한다. 나는 도시를 짐을 싣고 지나가는 수레에 빗대

고 싶다. 당대를 사는 시만들을 짐으로 싣고 역 사의 길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수래, 고통과 역 경과 희망을 동시에 이고 가는 목묵한 수레. 지 나친 비교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른 수레가 끝 어야 하는 도시의 궤적은 꽤 무겁고 지난하다.

그 수레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굴러가려며 고 무대가 본글라서 않고 막다도 할다가라면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어느 한 바퀴가 다른 하나에 비하여 작다면 수레는 회전하여 마침내 전복될 것임이 뻔하다. 단단하기 또한 장이에 전력을 갖잡아 된어다. 현실하면 즉시에 주저앉 같아야 한다. 한쪽이 부실하면 즉시에 주저앉 게 된다. 잘 굴러가기 위하여 지녀야 할 조건들 이다. 또 하나의 조건은 당의 견실함이다. 물이 고여 질쩍하거나 모난 돌로 방해가 된다면 순 조로운 진행이 어렵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 바퀴의 균형에 의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좋은 도시의 표본이 아



날까. 그 과정에서 행정가는 어쩔 수 없이 마부 의 입장이 되고, 두 바퀴를 연결할 중의 처지기 되 답응이 되고, 무하다를 단일을 복되 사사가 된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의회나 위원회의 입장 은 도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이다. 예컨대 중, 동, 서, 영도구 이른바 원도심의

의장단이 공동으로 산복도로 고도제하음 해제 파용단이 공공으로 전략으로 고로제단을 예재 해 달라고 부산시에 청원한 것은 매우 이기적 인 사례였다. 막상 그곳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 보면 많은 시민의 생각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지 않아도 아래의 도심은 이미 무직 이다. 그러지 않아도 아래의 모임은 이미 두절 서한 고층 건물의 포화 상태인데, 거기에 산복 도로 주변마저 우후죽순 개발된다면?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다.

이후로 유사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지역 사랑을 넘어 개발이 타지역에 밀린다는 강박관념까지 가세한다. 하지만 도시란 선을 그어 구역을 나누고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 서야 하는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다. 그러한 관 점은 그야말로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뿐 만이 아니라 그곳을 노리는 타지인들의 관여도 만만찮다. 이른바 자보이 목표인 그들에게 지 역은 늘 투기의 대상이다. 그러한 이기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의 문제는 행정가와 건축가들을 괴롭힌다. 개방을 전제로 한 직업군 근국가들을 보다는데, 개물을 안세로 한국 답답 인 건축가들은 늘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할 필연적 운명에 선다. 이번 공모전을 대하는 건축 가들의 입장이 대체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와 내 동료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고만해야 한 대 성교로는 답시 학급을 참구고 고인에가 한다. 어디 건축가뿐이라. 하지만 한 도시의 역사란 도시에 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하고 갈등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문제 이다. 모두가 수래에 실린 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의 논쟁이 공명하게 해결되길 빈다. 양비론적인 시각이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묘방과 해결책이 꼭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 가 발생하였다면 진행을 잠시 멈추고 두 비퀴

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균형을 맞춤 일이다. 차제에 행정가들은 부디 시민의 주장 하나라 도 길바닥에 버려진 하나의 돌맹이와 어느 한 곳에 땐 작은 웅덩이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시 다지어 탄탄한 길로 만들기 바라다. 수례를 모는 마부의 입장은 그래서 힘들고 전문적이어 야 하는 것이다. 일컬어 당국과 관료의 의무이 고 책임이다

오공아의 그림채빈

그깟 선 때문에

양조장 집 순독이와 자전거포 집 순독이는 '절친'이 다. 녹소을 꼭 잡고 다니던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것으 제 더. 잘 돈을 딱 답고 더라는 이들이 해어서게 된 것은 한 쟁 때문이다. 양조장 순독이는 마을에 남고, 자전거포 순독이는 피란을 떠난다. 철모르는 두 아이에게 전쟁으 로 인한 이별은 길고 긴 숨바꼭질 같다. 김정선 작가는 조 않아 하는 로 보는 함께로 보니 함하는 이 나무 해졌 장을 자려고 콩발에 누웠는데 그날 방 하늘이 너무 해졌 다'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쪽 (숙바꼭장)을 만들었다. 풀숲에 숨어 잡을 청하는 어른들 속에서 순독 이가 하늘을 보는 장면이 아프다. 꼭꼭 잘 숨었던 자전 거포 순독이가 고향에 돌아온 날, 그는 친구를 찾아 나 기보 는 기가 있었어. 할 아는 할 그는 한 가를 찾아 다 샀다. 하지만 남은 것은 또한이 무너진 양조장 건물 뿐. 양조장 순독이의 숨바꾸질은 영환히 끝나지 않는다. 핍 판 헤스트와 아론 데이크스트라의 〈도망치는 아

이〉는 전쟁이 범어지면 어떤 일이 새리까 사사해보라고 이가는 인상이 불안시한 역시 할 이 정말가 정정하되고요 말한다. 집은 산산이 부사지고, 어린이들은 늘 '쉿, 조용 히 해'라는 말을 듣는다. 학교에 갈 수도 친구와 거리를 뛰어다닐 수도 없다. 하루하루 외줄 타듯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는 길은 도망뿐, 거친 바다를 건너 겨우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지만 도망쳐 온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기의 순독이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난민 아

이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하나뿐인 지구 위에 사 장 그리구 구나에게 들을 선고, 아이들은 사가 주에서 함들은 왜 내 당 네 망 선을 긋는 결까? 차재혁이 쓰 고 최은영이 그린 〈이 선이 필요할까?〉는 사람을 나누 고, 가르고, 구분 짓는 선 자채에 질문을 던진다. '이 선 은 넘어오지 마!" 동생의 말에 소년은 누가 선을 그어 는 함으로서 되는 성용 모아 보기로 했다. 홍았는지가 궁금해진다. 그는 성용 모아 보기로 했다. 선을 감으니 외면, 따돌림, 배척 등의 단어가 따라온 다.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선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 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 할 때 선을 사이에 두고 같은 색의 사람들끼리 뭉친다.

할 때 안을 사가에 구고 들는 역의 사람들까지 중인다. 그러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소년은 자신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선을 모아온 할머 니를 만난다(그림) . 두 사람의 선은 이어져 있다. 누가 그어 놓았는지 알 수도 없는 선, 그 선은 정말 필요한 것인까. 소년과 할머니는 선용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 갓 선' 때문에 미워하고 도망치고 숨고 희생당하는 일 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chris@busan.com



TIZIZ

코로나와 산업 안전



김도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의 63 가66 에 드용고 단 중화시되 더욱의 1카데미를 석권했다. 계급 권력구조와 불평 5이라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

지금 국가·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모든 사 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모든 국민은 정부의 역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수칙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경과,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 서지군의 그 날파, 우리나다의 정역시스템이 전한학의 반범이 되었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너도나도 1우려고 하고 있다. 시각을 산업안전으로 돌려보자. 산업현장에

서의 예방시스템은 어떨까. 재해를 당하는 근 로자 수는 연간 10만 명 수준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855명이다. 하루에 2~3명이 가 존의 품은 데나 하는 나라로 가다 이는 현재까 지 코로나19로 확진 받거나, 돌아가신 분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고 사망 발생률에 있어 서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니, 최상 위이다. 이 의마는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나 안전관리가 아직도 후진성을 먼치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그런데도 코로나19처럼 모두의 관심을 끌지 그런데도 고도다(3시점 도우의 현심을 들시 못하고 있다. 간혹,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전에 대한 현실이다.

요즈은 코로나19의 장기하로 군미 대다수가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단비와 같은 프로그램 하나가 전 국민을 열광 하게 했다. 바로 얼마 전 방영된 '내일은 미스 터트롯'이다. 모 기업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성 공비결 5가지를 제시하였다. 바로 새로운 인재 발굴, 기본과 원칙 준수,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 추구, 창조적 복제, 위기 대처 능력이다.

이 성공 요인 5가지를 산업안전과 연계해 보 자. 첫째, 그동안 무명 가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스타가 된 것처럼, 그간 형식화된 관 리감독자의 역할이 실질적인 안전 보건관리 기 능을 단당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하을 부여하 공을 탑성을 구 있고록 독립의 전간을 구먹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이 뒷받침되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록 무명이었지만, 가장력과 무대매너

등 기보기를 갖추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 것처럼, 산업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 전화 등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추락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작 업 발판, 안전난간, 개구부에 추락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트로트라는 한정된 주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의 다양한 무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듯이 사 업주는 위험성 평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

정마다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작년도에 성공한 '미스트루' 포맷을 할 수에, 다인도에 장당한 비스로 첫 도깃을 될 용하여 무대를 꾸민 것처럼, 안전에서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지속해서 안전 문화 수준이 항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성용에서의 대체 중력이다. 마지막 회 생방송에서 우승자 발표 문자투표가 감당할 수 없는 폭주로 인해 집계가 지연되는 방송사고 위기가 왔다. 제작진은 이를 회피하 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집계방송 연기 라는 본다이 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알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은 곳곳에서 잠재하고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을 접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안전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안전한 작업을 마치고 트로트 한 소절을 흥얼거 리며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퇴근하는 모습 을 상상해 본다. '사람(안전)밖에 난 몰라-.

GENPAPA (젠파파) 특허받은 100% 천연소가죽 기능성 키높이 / 망사신사화!

인체공학적 설계 / 특허인솔 (지압효과) / 가볍고 견고하며 튼튼하다

특허받은 100% 천연소가죽 기능성 망사신사화!



특별행사가 168,000원

49.800원

특히 제10-0687107호

세련된 디자인에 통풍성과 위생까지!!

수차업으로 정정되어 만든 명시 수제품, 편이 에 무수한 원정성으로 신발 내용이 공기를 없었 살림 원천적으로 최단하여 중다. 부드러운 전 발리 변화로 감하여 휴가 상시간 산이도 문편함 함께 취약 확성하고 될 어머리가 호점인으로 한 디자건이 출보하는 정생 방자 신사화로 인기가

엠피스포츠(MPSPORTS)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지 항부 해면

디자인과 품질로 인정받는 수제화!

특허받은 100% 천연소가죽 기능성 키높이 신사화!

키높이 신사화를 신으면 평소 키보다 7cm 더 커보입니다!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지 항부 해택

목의 제10-0687107호

6개월 무상 A/S 보장!

특별행사가 -168,000원 - 49,800원 PRE에 2,500한 소비가 보

가죽시험성적서 KATRI NO : STHE20-00000739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mm

제품구입 문의전화: 1522-8567

기고문(2020.6.5.) - 코로나와 산업안전(21면)

밀물썰물

인형들아 안녕!

더 이상 인행들은 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를 이어 오던 프로 스 포츠 선수들에게 다소나라 위안이 된 것은 관중석을 차 지했던 이형특이었다. 프로추구 경기 때 귀약동(성이 시겠던 안영을이었다. 프로젝구 3기 때 디딜을(장단 용품 인형) 설치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팬들이 보냈 거나 구단에서 미련한 갖가지 인형들을 보면서 선수들 은 물론 TV 중계를 보는 팬들도 즐거워했다. 국내 끄 로 스포츠가 와국까지 전파를 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중석에 놓인 인형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형들을 볼 수 없게 됐다. 방 격당국이 최근 프로 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 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5월 5일, 프로축구는 5월 8일 개막해 현 교도에 가는 5월 5일, 교도로 다른 5월 6일 개국에 전 자까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여자프로골프도 5월 14일부터 대회를 시작했지만 갤러리 없이 경기가 치러 지고 있다.

프로 스포츠에 제한적이나마 관중 입장이 허용된 것 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병 이내로 지속되 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다 프로 스포츠의 무 과중 경기가 이어지면서 구다들이 재정적 위기에 놓인



것도 한몫했다. 의단파구와 해수욕장 등이 개장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KBO 리그와 K리그는 초기 관중 비율에 대해 30% 수 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증이 경기장에 입장하다라도 예전의 응원 모습은 찾 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일 발표한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보면 패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인장부터 응원, 식음료 취식

과정까지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됐다. 경기 관람 시 모든 관중은 입장할 때부터 야구장 내 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체온 37.5도 이 상이면 출인이 제하되다. 과라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

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나 카드 결제만 허용된다. 야구장 내에서 식음료 매장은 운영되지만, 관람석에 서의 취식 행위와 음식물 반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주 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는 허용된다. 관람석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응원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말 분출이 우려 되는 구호나 응원가, 접촉을 유도하는 응원 등은 제한 된다. 사직야구장에서 때창을 하는 '사직노래방'은 당 분간 옛일이 될 듯싶다. 김진성 스포츠팀장 pa

과명섭의 플러그인



취준생 분노 폭발시킨 '인국공 사태' 우리 사회에 또다시 공정 화두 던져

첫와대·정부 자기 장대로 일방 집행 수긍할 만한 기준・절차의 공감 없어

시간 걸려도 공동의 원칙 도충해야 국민과 더불어 가야만 정책도 성공

'여민(與民) 정부'의 길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3대 급기'가 회자한다. 대입과 병역, 그 없는 3대 답기가 있어간다. 대답화 중국, 그 리고 취업 영역에서의 부정 또는 불공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작·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여서 이 세 영역은 항상 국민 이슈가 되곤 한다. 사회의 많은 난제도 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웨만 많은 단세도 이와 낡아 차는 경우가 많아 원인 한 국민은 자신만의 식견을 갖고 있다. 이 때문 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토 론이 가능할 정도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로 블리는 인천국제공 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딱 그렇다. 일자리 자체가 생존 문제인 데다. 정규직 전환 은 노동시장 진입을 바라는 청년층에겐 더욱 민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로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는 1997년 IMF 구제금용과 20 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 은 더 까다로워졌다. 예전처럼 고도성장을 기 는 더 까더보십시다. 애인시티 11보용공을 기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대기업 등 민간 영 역의 취업 기회는 더욱 적어졌다. IMF 구제금 용 이후 실업자 급증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 움 직임, 여기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접치면서 비정규직은 많이 늘어났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회 축소는 자연스레 취업준 비생의 눈을 공공 부문으로 돌리게 했다. 공공 부 무이 집안적 안정성과 함께 취언 기하의 공정성 문 첫 학합적 현장정과 함께 취합 기회의 항공장 도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 태 이후엔 대부분 기압이 아예 채용 공고조차 내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이 돌파구로 공기 언어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 더욱 목을 꽤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재의 취업 시장 구조인 셈이다.

20~30대의 일자리 갈증은 한계점을 넘어섰 다. 이들은 초등생 시설부터 온갖 경쟁에 시달 리며 자라오 세대다. 어느 세대부다 결쟁이 몸 에 배어 있다. 병역 의무마저 경쟁해야 했던 이 들이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취업 장벽 앞에서 느끼는 악육함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러 사항에서 복거지 이고고 사태가 청녀측 의 볼만 표출의 기폭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물론 일 반 국민 사이에도 각자 처지에 따라 의견이 분 는 국한 자이에도 역사 자자에 따라 되는 하는 분하지만, 문제 제기의 큰 흐름은 공정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수렵되는 것 같다.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정규화

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에 대한 립국일 단단 가문과 열차의 구성장되 소통 부재가 꼽힌다. 누구도 비정규직의 정규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들의 처우 개선에 어깃장 을 놓는 목소리는 없었다. 비정규직으로만 향하 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입 장을 보였다. 다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취업준비생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인국공 사태의 발단을 보면 청와대외 사들 인식을 서대의 물건을 모든 성되대의 정부의 공갑과 소통 능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공 식 외부 일정에서 약속한 일어니만큼 어떤 일 이 있어도 꼭 성사시켜야 하다는 안박감이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발언 시점에 따라 정규화 대상이 칼로 무 자르듯 갈린다면 누 구라도 선뜻 수궁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말한 '기회와 과

정, 결과에서의 공정'에 시비를 걸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공정함이라는 공공의 잣대를 당사자들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이, 자신의 장 정자자들화의 중심이다 도등 없어, 자신의 것 대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설정하고 이를 다 른 사람에게 휘둘러댄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 겠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하다 기하아 과정, 결과에서의 공정은 모든 국 한다. 기업화 파정, 철회에서의 중장은 모든 목 만이 수궁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로서 준거점 이 돼야 한다. 물론 국민 각자의 생각은 천차만 벌이겠지만, 공통 잣대의 원칙에 따라 어긋나 느 이해과계를 조작하고 정리한 수 있어야 하 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수궁하지 못할 당사자는 없을 듯싶다. 또 하나는 가짜 뉴스나 보수 언론의 탓으로

부산일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돌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태의 원진을 달다지 않았다면 당았다. 과연 가짜 뉴스나 보수 언론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가 없었을 것인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나라 전체를 큰 천으로 다 뒤덮을 수 있다고 생 가하는 거만큼 못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이는 것인점 중베이나고 아저 않을 두 없다.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말에 더 분노가 치밀었다 고 한 것이 이해할 만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시간은 촉박하다. 그런데 총선 압승으로 정치적 힘은 더 강해졌 다. 성과에 대한 조급중이 생길 만도 하다. 그 렇더라도 일방통행식은 곤란하다. 이참에 인국 고 사태의 의미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국민 중사대의 되마를 할 해야할 말로가 있다. 국진 눈높이에 맞춘 공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정 책의 지름길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여민(與民) 정부'의 길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D 오늘을 여는 시

구름

김창

구름, 내가 꽃향기 맡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 뒷산을 넘어가던, 구름, 내가 달리는 기 차 타고 검은 터널 빠져나올 때 포도밭 위에 띠 있던, 구름, 내가 수초 사이 작은 물고 기 구경할 때 저수지 잔물결 위에서 출렁이던, 구름, 내가 참외발을 지날 때 강 건너 산자락에 걸려있던 구름 미끄럼틀 타던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집으로 돌아감 때 아파 트 피뢰침 꼭대기에 걸려있던, 구름, 내가 구멍 팽팽 뚫린 커다란 달을 보며 음악을

- 김참 시집 <그녀는 내 그림 속에서 그녀의 그림을 그려요> 중에서 -

들을 때 밝하늘을 횟단하던 구름

경계가 없는 하늘처럼 구름에서 시작하여 구름으로 끝나는 이 시는 문장이 끝나지 않는 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듯 쉼표 가 구몸처럼 떠 있다. 지금 내 눈 속에 들어오 는 구름이 있다면 이미 일 분 전의 구름이 아 니다. 무상하게 변화하고 흘러가는 구름은 일

분이라도 자세히 보아야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 마치 오래된 너와 나의 관계 같기만 하다. 무심한 한 사람과 늘 그 곁을 지키는 한 사람 라나가 구름일까, 네가 구름일까. 문득 한 사 락을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맑은 아침이다

목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이 다. 방역 문제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다.

다. 영국 문제가 그렇고 영제가 그렇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주 등 장하는 말이 바로 '거안사위(歷安思危)'이 다. 이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로 '편안할 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재난을 미리 생 각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 모범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방역 당국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러한 거안 사위적 자세를 잘 취해 와서일 것이다.

지난해 외터에서 사고로 숨지 근로자만 85 5명(하루 평균 3명)이고 전체 사고 재해자는 9만 4,047명이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사고 사망자가 53명이고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 상례 재해자 수는 1 659명이다 이러한 산재 의 결과로 고귀한 인적 손실뿐 아니라, 직-간 접 손실액이 무려 2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 일자리 예산과 맞먹고 부산시 예사의 약 2배 수준으로써,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 되기에서 클레인되아지(함하다 본 것이 있다. 다. 바로 산재손실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

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두는 '거인 사위'의 단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및 각 개인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버는 것이며, 또한 눈 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배광호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광역사업부 치정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니다. 게제되면 고로를 지급합니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 편장국 독자 부, 우편반호 48789, opinion@busan.com, 팩스 051~463~8880, 문의 전화 051~461~4112.



2030 부산 도시계획 ⇒ 뜨는 지역 SBS CNBC '부동산 삼국지' 고정 출연

약력: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EBS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법 교수 다수 공공기관 자문위원/한국 생산성 본부 지도 교수 SBS CNBC 부동산 삼국지

2019. 12. 03 부동산의 보물 지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도시 계획 2030도 수정되어 박종철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로 준비 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관리)계획 2030] 부산광역시 부동산의 미래 택거리 여기에 다 있다! 도시 계획' → 또는 지역, 지는 지역 미래 개발지 철저 해부 분석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부터 전수받는다



-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 시 간 : **오후반 2시 ~ 5시**(선착순 25명) **저녁반 7시 ~ 10시**(선착순 25명) - 교육비 : 5만원 (교재포함) / 계 좌 : 농협 301-0273-4950-71(김순이 내집땅)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협성프라자 6층 내집짱 재테<u>크 교육원</u> 의 : 0511 507-4986 / 010-3849-4986

내진 당 코로나시대의 부동산 재테크 시장 방향 제시 재테크교육원 NPL(부실채권) 김지투(교실



아직도 경매하러 가니? 우리는 내집땅 재테크 교육원에

NPL 하러 간다

왜?) 경매보다 더 안전하니까

왜? 경매보다수익률이더좋으니 (왜?)경매보다 대출이 쉬우니?

[NPL 공개 무료 특강안내]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10 협성프라자 6층(내집땅재테크교육원) 경매를 건의 70%는 NPLI 경매보다 더 안전하고 수입되어 다 같은 NPLI 이런 오르고 게임니까? 한도소에는 경남기를 가긴 대통하면 생물 제로 한다. 클러시대 전문 나면 이 보다

[NPL 매입 장점] 관심 가져야 하실 분!

내 집 마련을 쉽고 저렴하게 마련하실 뿐 '내 공장을 가지고 싶은 분 *임야 취득으로 연금 받고 싶은 문

' 경매보다 수익률이 더 중습니다 결예를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부동산 투자기법 및 교육을 그대로 내집당 재테크 교육원에 가져오다

특별보도(2020.7.1.) -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것"(22면)



07 안전신문사

• 사업명

"산재 사망을 줄입시다" 온·오프라인 연중 캠페인

● 실적

신문지상 캠페인 13회, 카드뉴스 12회, 전문가 칼럼 10회, 우수사례집 1종 1000부, 기획 광고 7회 등

• 내용

- 신문지상 캠페인(1면)
- · '야간작업=2급 발암물질'이란 사실 아시나요?(06.18.)
- · 코로나19로 배달 급증… 종사자 안전대책은 제자리(07.23.)
- 카드뉴스(홈페이지)
 - ㆍ 해외 안전문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10.05.)
- · 슬기로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생활(11.11.)
- 전문가 칼럼(1면)
- · (김광일)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06.25.)
- · (허억)'안전사고 Zero'에 도전하는 듀폰의 경영철학(07.16.)
- 우수사례집
- 기획 광고(전면 규격)
- 안전보건 영상(유튜브)
- ㆍ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 미리 알고 준비하자! 산재 탈출 넘버원!!(04.28.)
- · 찜통 날씨 주의!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07.08.)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480호

safetynews.co.kr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K-방역 우수성 세계가 인정… 각국 자료 요청 쇄도

국내 신업현장 적용된 아 노동자업훈련부(MoLVT) 등 현재 13 개국 17개 기관에서 관련 지료를 요청했

단 개설 밝혔다. 수 보다 전 보고 함께 한 보고 함께 한 보고 함께 한 보고 함께 한 보고 하는 이 보고 함께 한 수 있도록 했다. 수 있도록 했다.



인전보건공단은 코르나(9 환산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한 코르나(9 대용 강한지료 를 해외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사전은 안전보건공단 전강).

안전신문 유사 사칭 주의 요청

최근 일부 인타넷 키계 등에 인접신문시의 관련된 세용이 개시돼 있어 지 회 신문시에 분의 등 확인 요령이 있기에 지해와 무관함을 일러 드립니다. 지회 인안신문사는 18년이 중간 이후 3년이 인도화 단 만있도 건설만들어 나 사업을 등의 불통이나 자료를 전해하거나 금융을 모수하는 등 발생적인 병위를 만 바가 없습니다. 안전신문사 기계를 사람이며 추지를 강해하거나 금융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점쇄 용하지 마시고 사실 해인을 했히 하시기를 단부드립니다. 이름은 안전 신문시와 병명이 유연한 이라면 신문시도 지회하는 과제가 없음을 발하는 나 독자와 병명이 유연한 이라면 신문시도 지회하는 과제가 없음을 발하는 나 독자 이라는께서는 각별히 유선하시아 피생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02-2275-3408 — 🚱 안전신문사 -

2020년 안전신문 연중 기획 캠페인 '산재사망을 줄입시다' 편리함 뒤켠 새벽을 밝히는, 그들이 시는 세상이 궁금하다

새로운 안전방송을 ▶️ YouTube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7월 과 🕩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 한국기스공사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_함께_응원합니다

'야간작업=2급 발암물질'이란 사실 아시나요?(06.18.) 신문지상 캠페인(1면)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484호**

safet mews.co.k

"화학사고 차단 특단 대책 마련하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대산석유화학단지 6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서 촉구

이제감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산석유화 학단지 6개 기업들을 향해 사고가 재발 하는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 한 대액을 촉구했다.

라 대책을 속구했다. 해서는 기업 최고경양자의 인천경양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원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최근 국방부에서 국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걸했다.

아저보건공단-고방부

국방 안전보건문화 확산 협력

안전보건공단이 국방부와 손 잡고 군 전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

안생시고에서를 위해 다양한 불름을 거 생한다. 안현소분들에서의 내무을 가 동박는 미래산인일에인 군 영명의 안 전시고 이병을 위해 최근 자발하여서 국 동박은 안원소분들에 가를 및 안원보건문화 하나를 위한 임무원인을 체결했다. 박무를 안원소분들만 이사를 가를 받는 이원 생명이 공무원인을 체결했다. 박무를 안원소분들만 이사를 하는 이원 병명이 공무원인을 제결했다. 병명이 공무원인을 제결했다. 이원 병명이 공무원인 함께 작업된 이원 인간 소무인인전원에게 발전을 위한 생명 공동연구 소문 안원시고 조사 소부 역 이원권인사보급 등을 지원하다. 등에 근 인원시고 조사의 전문의 공 등에 근 인원시고 조사의 전문의 공 등에 근 인원시고 조사의 전문의 공 시스템 구속 등 개원인전관에 또 당신 제 본원인의 보안되기도 인원시고 조사 이 전문인들은 지원하고 안원시고 조사 이 본인에는 지원하고 안원시고 조사 이 전문인들은 지원에 자료하고 조사 이 전문인들은 지원에 가료하고 조사 이 전문인들은 지원에 가료하는 지원에 가료

사업장 노동자 안전의식 고려 아지도 걱정하고 개합니까? 이 그 문제를 삼인안전박신문이 (철레 드립니다. 안전신문사는 산업재례 유항: 취약시기에 맞춰 배달 산업안 백성문을 제작 노립하고 있습 다. 산인안전박성문에는 사업장 서 자주 발생하는 재례 유항: 반화로 알기 쉽게 전달함은 불 예방을 위한 대책까지 제시하 있습니다.



교육보육부자형 전원하라면보기의 ---- ● 한국산업안전본부

- 🚱 안전신문사

'월 300만원에 목숨 건 질주' 안전사각지대 배달노동자들의 실태

코로나19로 배달 급증… 종사자 안전대책은 제자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외출 대신 음식 배달이 많아지고 있다. 임명 배달산 업 은 플랫폼산업 으로까지 진화하 며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숨겨 져 있다.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음식

그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화물이 숨어 있다. 1년 15년도 더 빠르게 음이 숨어 있다. 1년 15년도 더 빠르게 음이 처럼 해진되어 오늘하는 이 차를 하지만 하는 '해답생명' 이 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사고가 나는 연결된 6.3%, 사망사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바라지고 있다고 바라지고 있다고 바라지고 있다고 바라지고 있다고 바라지고 있다고 나라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름이 그게 증가 함께 이를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 나를 했어간의 시간도 반이 사람이 되어 보내 있다면 하는데 지도 반이 보내 기가 이 가를 하면 것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이를 하는 것이 하는데 이를 했다면 이 하는데 이를 했다면 이 하는데 이를 했다면 이 하는데 기가 있다면 하는데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데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데 기가 있다면 이를 보내 기가 있다면 있다면 이를 되었다면 이를 되

보 등은 일상이며 종종 역주평까지 감행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 사고로 이어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항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어행(53,3%)이 가장 많았고

촉도 배달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

코로나19로 외출보다 배달을 선호하며

방 감소대책은 건설입과 제조업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유관기관의 안전집검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 사 집장의 노동환경도 둘지 않다. 거대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한 배릴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관리・감독이 미

성증과 변화에 따른 뿐다. 건축이 비한 것이다.
한창에 다듬한 기안은 지난 에 국합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역했다.
한 의원은 "배달감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역했다.
한 의원은 "배달감상에서 이 문제에 지어했다.
한 의원은 해달감상에서 이를 되었다면 사이를 위해 조산되자 이 문제를 조산되자 이 전한 기업에 가장 조상하는 기관 조상했다.
전문가들은 배달한 이름수 문제되는 이름수 있는 지문자보다 불안했던 이름수 단이라는 집을 가려려야 하는 다고 있는 지문자보다 불안했던 이름수 단이라는 집을 가려려야 한 다고 조산했다.

병원 가장에 가장하게 있는 지문자보다 보안했던 이름수 안이라는 집을 가입해야 한다. 또 이를 생물지 기상하는 하는 지문자보다 보안했던 이름수 있는 지문자보다 불안했던 이름수 당이라는 집을 가입해야 한다. 또 이를 생물지 기상하는 있다.

본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합니다.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社告 산업안전벽신문 매월 무료 제공



제작 문의=02-2275-3408

새로운 안전방송을 ▶️ YouTube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캠블과 ▮️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28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벌칙 대폭 강화된 사업주 및 안전관계자가 꼭 알아야 될 생활법전



- ◆ 산업안전보건법 대조식(법시행령·시행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별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 ◆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구역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 '사업장의 산재예방지침서' 100부 이상 단체(교육용) 구입시 20% 할인 및 기관명 인쇄 가능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3-01-0639-058 (주)안전신문사

124m×184m 양장본 / 1104면 / 정가 25,000원

수록내용

안전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Tel.02)2275-3408~12 Fax.02)2274-6548

신문지상 캠페인(1면) 코로나19로 배달 급증… 종사자 안전대책은 제자리(07.23.)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481호**

safetynews.co.kr

김 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2020년 6월 25인 모으인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검조정회의서 건설현장 회재안전대책 발표

정 총리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 과 작업장 곳곳에서 인전관리 수회이 제 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화인됐다"며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 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한 사고가 인 제 어디서는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화재 안전대 크게 ▲화재 발생원인 근본적 제거 엄장 안전관기 수준 강화 ▲안전강 화 극복 등 세/자다. 정부는 가장 먼저 화재 발생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가 위해 불어 기 쉬운 긴혹사자를 되흘하고 그동주 각자내에 돌여있던 참호 등에 대한 안체기들도 시청합다는 방송하다

안전기준도 선정하는 방향이다. 또 지입점에 안전한데 수준을 배 하는지 연호에서 실제로 자동해고로 인접에서 실제로 자동해고로 나는 제외이다. 무리 화대위함이 높은 조정은 동일을 담으면 한다고 그 이행실대를 만-하게 계속 점점을 예정이다. 아울리 인건당시품까가 뿌리밖에 있는도록 중국세계 발생이 불어나는 전자를 얻게 되었다고 내다면 경제 세계 제계 함께 부계하였다는 방향이다. 생명이나 병생이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생명이다. 생명이나 병생이는 생명이다. 생명이나 병생이는 생명이다. 생명이나 병생이는 생명이다. 박창원



자난 200년 경부는 국민생병 지키기 3최 프로젝트 용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중 하나가 사건 생해 사망시고 감소하루아이었다. 또 유현 문제인 경부 는 신인사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제 사망자수가 그 제 감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게 사망자수가 그 제 감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게 사망자수가 그 제 감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게 사망자가 그 제 감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서 사망자가 그 제 경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서 사망자가 그 제 경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서 사망자가 그 제 경소했다고 발표하여 202년에서 사망자가 그 제 경소하여 11 10년 감소한 다른 사망자가 보고 202 명이 202 년에 202 년에



社告 산업안전벽신문 매월 무료 제공



제작 문의=02-2275-3408

사업을 노동자 안전에서 고려. 어디도 걱정하고 개십니까? 이제 그 존대를 산업인하여신문이 해 점에 드립니다. 안전신문자는 산업제에 유한별 해안시기에 맞춰 때문 산업안전 네신문을 제와 노념하고 있습니 다. 산업안전에서문에는 사업장에 서 자주 발생하는 제에 유원을 반화로 앞기 집에 개절만을 붙는 액병을 위한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대략까지 제시하고 성급니다. 에게 지나실 수 있는 인접수의 는 EKNH의 인기하고 행동의 비화로 이끄는 산업인합택신문 기후 기위의 약환경보대행기관에 구독시용하시면 사업등에 부족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영향 화재 줄었으나 사망자 폭증 소방청, 봄철 소방안전대책 결과 발표

응분 화제는 5% 감소한 반면 이용 등합고 화제는 50로 사반지수는 50가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원은 지난 행부터 5월반지 전한 '병철 소방인전대학'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병용에 대한 명 2 3 ~ 5월 발생은 제간수는 등 1반103연건으로 지난해 건 1반188명건 대비해 참 2소했다. 인 에도 601인(시판 129일 부성 50% 도 자산해 67일 배비해 참 2소했다. 이 에도 601인(시판 129일 부성 50% 도 자산해 67일 배비해 참 2소했다. 이 에도 601인(시판 129일 부성 50% 도 자산해 67일 배비해 참 2소했다. 이 에도 61일(시판 129일 부성 50% 도 자산해 67일 배비해 중 2소했다. 이라 이행 냉동양교 화제 등으로 사망자수는 129일으로 50% 등가했다.

원과 편달을 바랍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며 산에 사고시면자 감소 일인으로는 건설명장 감독과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거분했다. 이라한 교육노동사의 발표는 지난해 건설명장에 대 한 쾌트를 집건되어 역할이 산에 자자시장지수의 감소 에 큰 있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으나 이것은 건설을 기업이 용당되신 하는 지원 조산명 자신의 인경되어 있던 아

변 산의 사고시망자 감소 원인으로는 건설현장 간목과 정공기보 사업장이 안전관련을 집중되으로 계획했다. 이라한 고용노동부에 발표는 지난에 건설현장에 대 한 패트를 집합반의 역업이 산에 새고자망자수의 감소 에는 도안으로 작용했음을 감소했으나 이것은 건설형 기의 하면에 하면 설계 적임만 감소와 안전에 있지 원 전체 변발한 결보가 필요하다. 전체 변발한 경보가 필요하다. 전체 환경 사업에 대통해 경설 등에게 기원으로 성 하는 작성이 설계를 제 못하는 있던 상용에서 있었으로 점소이기가 의한 성연한경보 노력에 수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가 의한 성연한경보 노력에 수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가 의한 성연한경보 노력에 경험 관계 사업자수가 중가한 것이 이를 반 경원 변화으로 참소시키가 의한 성연한경보 노력에 수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가 의한 성연한경보 노력에 기원 보다는 오병에서 병연하는 연방 것이다. 등에 또 한국소등은 경로운 집량부의 출발가 설명하는 모병에 기원 사업자수가 중가한 것이 이를 반 경원 보다 기계를 생명으로 들어가 위해서는 다락 기원 비바 보다인 생명소를 보다는 경상에 보다는 등에 보다는 경보를 제한 경험을 주는 기계를 대한 상대생명을 보다는 경우를 기계를 보려를 보는 경우를 경우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보면는 점상이는 유료를 이위가 의 인노등론들은 마단 한국소들은 제상원을 일으로 한 기계 기계를 지역적으로 노력을 지역되고 성서는 중리회에 기계되었다면 보다는 도등든을 기계기 위해 계속으로 노력을 지역되고 기계기 위해 계속으로 노력을 기계되고 기계기 위해 계속으로 노력을 지역되고 기계기 위해 계속으로 노력을 기계되고 기계되고

● 안전신문사 -

새로운 안전방송을 ▶️ YouTube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캠블과 ▮️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www.safetynews.co.kr

산업안전보건법령집 ● 안전신문사 124m×184m 양장본 / 1104면 / 정가 25,000원

28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벌칙 대폭 강화된 사업주 및 안전관계자가 꼭 알아야 될 생활법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산업안전보건법 대조식(법·시행령·시행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 ◆ 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별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 ◆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구역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 '사업장의 산재예방지침서' 100부 이상 단체(교육용) 구입시 20% 할인 및 기관명 인쇄 가능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3-01-0639-058 (주)안전신문사

안전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Tel.02)2275-3408~12 Fax.02)2274-6548

전문가 칼럼(1면) (김광일)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06.25.)







1989년 5월 1일 차가 제1483층

safetvnews.co.kr

2020년 7월 16일 모음일

정미경 KBS 보건관리자 동탑산업훈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 초청해 노고 격려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안전을 실천할 때 안전 한 있다가 만들어 전다'며 "정부도 크고 작은 사업장 곳곳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더 용공지들의 면법 사례가 더욱 많이 화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재예방 유공자를 초청해 포상을 수여하고 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선명 노래를 4대했다.
한편 이날 시상보에서는 참이점 한국
방송공사 보건한리자가 동안산이용은.
이에서도 참당가 연구소등이 했단산이본
보상일 (주)한다 현상소등이 했단산이본
보수 우등에 한국산이가 등학의 회의 이상 당시간으로 보았다.
또 박물속 (음등장식 부성과 한단철 상성불산 책임이 각각 산업포공, 전역

이밖에도 잠정규 한국종합안전 대표에 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告 산업안전벽신문 매월 무료 제공

社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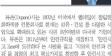
안전신문사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식약처, 시장형 수급관리체계로 전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에 따라 공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성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지난 12일부터 제지됐다. 서울이아유인전치(지증 이의장)는 지 난 12일부터 현형 공적 마스크 공단계에 를 시점에 수급한리에게로 전한됐다고 되는 발표했다. 이번 조차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형 51교 있는 "12급수결조정보서 의 유효기 건이 이탈 11일 반환분에 따라 정산 과 서, 수요 연칭 등 12층이 마스크 수급 상 용분 반영하고 단백되면 수단에 교과적 으로 다용의 위에 마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약소, 이 는 편이의 유민신을 다양한 관리사에 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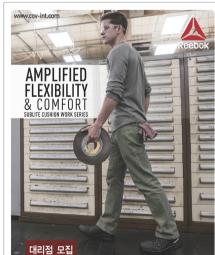




'안전사고 Zero'에 도전하는 듀폰의 경영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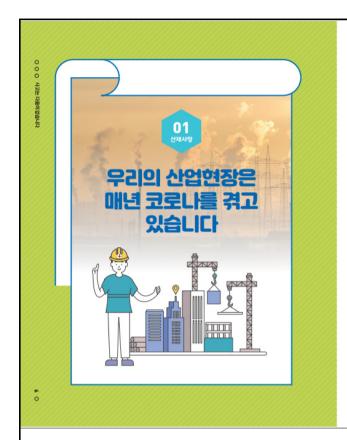
이고 안전부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다'는 최고 경영층의 강한 확신이 5만여명의 모든 직

새로운 안전방송을 ▶️ YouTube 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7월 과 │ 👉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전문가 칼럼(1면) (허억)안전사고 Zero'에 도전하는 듀폰의 경영철학(07.16.)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다발 코로나19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보건의식 산재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모아야

77

세계는 현재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숨지고 누적 사망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등 세계대전급 전 쟁과 비슷한 재해가 발생 중이다. 경제적 피해는 더 크다.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 실행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260여명이 사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만큼 국가적 위험으로 부상했다. 다행스럽게 도 전국민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 위안거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산업재해다.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

최근 경기도 이천 출두장고 선축공사 현장에서 화제가 말 생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 사고가 대표적 인 산업재해 사례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 업헌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 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만5160명 중 재해자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

0 7

우수사례집(내지)





163



안전보건 영상(유튜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 미리 알고 준비하자! 산재 탈출 넘버원!!(04.28.)



08 이데일리

• 사업명

산업 안전 기획기사

• 실적

기획기사 4회, 기고 1회

- 기획기사(2020.07.13.)
- · (상) 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 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10면)
- 기획기사(2020.07.28.)
- · (상) 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8면)
- 기획기사(2020.11.02.)
- · (상) 일요일 건설업 사망사고률, 평일의 2배... 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9면)
- 기고(2020.11.04.)
 - · (우) 화재만 막아도 건설업 사망사고 준다(25면)
- 기획기사(2020.11.06.)
- · (상) 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 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11면)

경제 이데일리 10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 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위험의 외주화' 막아라 최근 카타르 국영 석유공사(QP)로부터 약

23조6000억위 규모의 애하처여가스(TN (c) 유박서 거조 사저 계약을 따내며 '조선 당 군단한 건조 사건 계약을 따라며 오천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한국 조선업계가 후전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몸살 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사망 사고비율이 높은 상 황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하던 산재 사 망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안법 개정으로 워청 책임 강하

선건합 개성으로 현정 학점 성화 12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수)은 꾸 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현대 중공언 등에서 사망사고가 이따라 밤새 중공합 등에서 사망사고가 있다다 발생 한 탓에 사망만인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 이란 우려가 크다. 2011년 이후 선박 수 주몰량이 줄면서 산업재해도 함께 졸었 으나 조선업황 회복과 함께 산재 사고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조선업 사고사망률 평균 2배 언홧 회복하면서 산재 늘어

하청업체 열악한 작업환경 원인 원청 산업재해 예방 책임 중요

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입 사업장별 지도·불시순찰 강화

극이 최근 10년 구세를 모던 조진합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수주절벽 탓에 선박 건조량이 급감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녀 전체 업종 사고사망만인율보 다 2배 가까이 높다.

2015년 전체 업종 사고사망만인율은 0.53패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인데 반 해 조선업은 1.0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 어 전업종 대비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 은 △2016년 1.09(전업종 0.53) △2017년 1.01 (전업종 0.52) 스2018년 0.41 (전업종 0.51) △2019년 0.63(저언조.0.46)이다

(5.1) 스페 우전 (6.00건답당 (1.40)이다. 지난해 조선업 산재사망은 '명이었다. 율래는 상반기 현재 (6명이다. 아직 지난해 에 비해서는 작지만 최근 수주물량 증가로 안해 선박 건조 작업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7일 조선사 5곳 안전보건 담당 임원 소를 위한 대용 방안을 마련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진행했다.

-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사망자	조선업 전체	24	25	25	20	7	9	
수(명)	하청업체	23	20	18	17	7 6 0,41	7	
사망사고	조선업	1,11	1,07	1.09	1.01	0.41	0,63	
만인율(%。)	전업종	0.58	0.53	0.53	0.52	0.51	0.46	

기장 큰 문제는 조선업 산재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이 원청이 아닌 하청, 협력업 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제에서 발생한나는 점이나, 최근 10년년 조선업 사고사망자 총 25명 중 협력업 제 직원이 193명(8, 2%)을 차지했다. 위 현 작업을 하황업체에 떠받기고 하광업 체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 은 올해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 법)개정인에 따라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 일이 강하되 마른 이에 발만히 과건 -간도시

함이 3화된 만큼 아내 할것이 된다. 습숙이 이를 참처히 확인한다는 방참이다. 고용부는 혐력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 영을 위해 원하정간 선작업·후계약 관행 을 근접하고, 적정단가를 담보하도록 지 도 및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업 도급대금에 산재 예방비 포함 추진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관리비제도는 산업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리미제도는 언답한안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건설업에 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중대 산업체육 예상에게'을 받고 하면서 조선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률 계산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비의 세선/군을 마던아고, 안전보건된다미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산업보건위원회 심 의·의결필요성, 사용항목의 결정 등세부 항목을 검토 중이다.

조선사 한 안전관리 임원은 "한 프로젝 트에 협력업체 20~30곳이 함께하는데 안 전보건관리비를 매번 쪼개서 계상하기 쉽 지 않다"며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수많은 합력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반영한 계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리 조선언 '아저보건지킨이' 제도 도 시석하기로 했다. 사고사망육이 높은 도 한일이 가도 했다. 자고사랑홀이 높은 완성배, 블록업체 하정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의 봉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고사망 3대 악성사고(떨어 짐,화재 폭발, 부딪힘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통해 산재 예방을 추진하다.

고유보아 고다은 와서배제자 조서소 고용무와 중단은 완성배세약 소인소, 블록업체, 수리조선소를 규모별·사업장 특성별 관리 체계를 만들어 관리감독에 나선다. 공단은 특히 완성배 제작 조선소 를 이달까지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완성배 제작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재해 완성배 제작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재해 가 급증해서다. 공단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완성배 사업장 7곳에 대해 매월 2번 의 가술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3대 약성 사고 근절을 비롯해 작업안전표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원·하청간 소 통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 들어와 알하는 현려언체 가 소통도 중요하다"며 "위청에 합니데 (간소등도 중요하다 더 원장에 서는 사업장에 들어와 일하는 협력업체기 리 소통하며 작업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김소연기자 sykin@





사업자들록하여 있는 대한단국 소개점 소성공인 사업등에면 누구나 기업에 있는 있습니다. 관한에 많더 부동(생무업소득과 법단의업 대표자 중 중과에에 기업면을 소리하는 경우 소득관를 받을 수 없습니다.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문가 11명 중 10명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

16일 금통위… 금리 향방 물으니

금리 심효하한 부동산 과열 고려 코로나19 재확산' 추가 인하 변수

코로나19 대응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교호대기 대중에 가는 마다가 사용 회사 수준으로 내려온 가운데 국내 경제 및 금 용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 통화위원화가 기준금리를 0.50% 수준에 서 통결하고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

이데일리가 12일 국내 경제·금융전문 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 11명을 대성으로 골근고서를 결사한 결과 전원이 가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특히 11명 중10명은 가준금리 동결 결정 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봤고, 1명 만이 안하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에 가깝게 내려왔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창섭 현대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

진국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전망이 제한 되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는 실효하한 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은 행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비둘기 정은 3기 회학에 소객을 맞추더 마을기 적 스탠스를 유지하겠으나 추가 기준금 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경기 팬 더맨탈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은영은 된당의 용당장의 기소를 휴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효하한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 가적인기준금리 언하는 쉽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8일 이수별 한국논형 충처는 시난 1월 2월 기준금의 인하 결정 두 "얼굴하하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금융 이건을 중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인하로 실효 하편에 가까워졌다고볼 수는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이 주식 및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게 하 있다는 점도 추가 안하별 부담스럽게 하 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윤여삼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금융혼란이 진정된 이후 코스피 지수는 2100포인트대로 올라선 가운데 강한 부동산 가격상승 등 금융안 정 촉만에서 부작용도 점검이 필요해 인 하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당이 합지 않을 것 이라고 말았다. 전문가 11명 중 10명은 최소 올해까지 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하반 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재확산 또는 2번째 사이를 발생이 가장 중요한 결 정 변수이고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 고 있다"고 강조했다.

으랬은 외하점 통하정책 기조를 유지학 보등주요군에서 익익 규르나(9회지자 수 은 등 무료구에서 활할 고로나가 확인서 무 가 확산세가 가장 거셨던 지난 4월 수준을 넘어서고 경제용쇄 완화 조치도 더뎌지고 있는 만큼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 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까지는 기존 5월 전망 을 유지한다는 임장이었다. 코로나19획 산세 진정 시점은 당초 한은 전제보다 늦

전세 선정 시험은 당소 안은 전세보다 늦 취지고 있지만, 경제활동은 점차 제개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확진 자가 (만명을 넘어서고 /차 경제 봉쇄 필 요성까지 언급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할 조집이다. 김지나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루나19재유렛으로 글로벌 경제활동 제 한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 오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을 앞두 고 미국 경제 부진 책임론이 부각됨에 따 라 미중 길등 확대 기능성도 성장률을 끌 어내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용구시영증권 연구왕은 "주요국이 소용구 인정증된 연구원은 무료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과거와 같은 전면 적인 경제봉쇄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관 시나리오 수준까지 악화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경제활동 일부 지연에 따른 대외수요 하방요인으로 반 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확산세가 3분기 중정점을 찍 교육 그 현고 보다. 생생 경기 교로나 하 변수은 앞서 지난 5월 경반기 교로나 하 보다가 그 보다 한 경기 전 보다

기획기사(2020.7.13.) - 다시 늘어난 조선업 시고시망...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10면)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이데일리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9

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업주의 산업재 해 예방 교육 의무가 빠져 있다. 사업주• 배에 등 교육 의무가 빠져 있다. 서입구 법인 등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강화한 만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 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쏠려 있어서다.

1분기 사고사망 253명~ 12명 증가 27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따 르면 올해 3월까지 사고 사망자 수는 253 명이다.전년동기(241명)대비12명증가

너. 사업장 규모가 작음수로 사고 사망자 사업상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사망사 수는 많았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쏠려있다. 사고사망자 수를 규모별로 보면 5~49

인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는 105명, 5인 미만 사업장이 93명에 달했다. 사고 사뫄 마단 사업장이 57층에 펼쳤다. 자고 사장 자수는 △100~299인 24명 △50~99인 20 명 △300~999인 6명 △1000인 이상 사업 장 5명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특 히 전년 동기(76명)에 비해 사고 사망자 수가 17명(22,3%)이나 증가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의무 없어 사업주 안전의식 무엇보다 중요

산재보험료 인하 당근책도 한계 자육 개선보다 의무교육 제도화름

사이버 20조에 따라 사이즈느 소소 그 로자에게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해

업주가 조직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 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 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는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총 괄 책임자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 로받아야 한다.

. 필어야 한다. 그러나 50인 미만소규모사업장은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다. 대 선보다단다예십시시상의무/가없다. 내 신 최근 법개정으로 20인~50인 사업장 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산재 예방 사업주의 관심이 없으면 영세 사업장에



서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 사망자 그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안법 개정으로 책 임이 강화한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 이 필요해졌다. 안전보건 법규가 이해하 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기금서 의무교육 재원 마련

전세모임/16차 의무교육 세현 마단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 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받고, 산재예방계 회서를 제출하면 산재 보험료율을 인하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가 산재 예방 교육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 한 조치다.

한 소시다. 전문가들은 자율적 유도책이 아닌 산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보건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 처하느지 등은 악이야 하다는 이겨이다

서하는시 등을 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 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이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받이야 산재 예방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 야 한다"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

아닌다 더 전한보건 편리 최업자 사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 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고, 산 재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며 "사고 발생이 줄어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 사재보험기금도 오히려 아저 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뛰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한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이양수 의원 "농가 25% 직불금 소외" 김현수 장관 "자격요건 개선 검토할 것"

농식품부 국회 업무보고

코로나19로 식량 안보 화두 김 "밀·콩 자급률 높이겠다"

옥채 시해하는 곳이지분제에 대해 지근 함에 시행하는 왕석작활세에 내해 시합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포함해야 한다 는 의원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제 도개면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농 가가 없도록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

김현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농림축사식 지물 어의로 국회에서 일단 등림학전식 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식 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농 존 지역경제 활력과 공익지불제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논과 밭에 지 역별로 동일하 지불금을 제공하고 0 Sha 이하 농지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 이야 당시에는 전단 1.0년 현의 소송학을 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17~2019 년 자불금을 받지 않은 농자는 지급 대상 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있는 일부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 2019년 직불금 신청 안한 농지가 전체 79% "라며 "인법조사처는이들을 제어하 25%"라며 "입법소사저는 이글을 세되면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제도 수정을 요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 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재간 이 었다. 여용한 더불어한구용의 존재합의 원도 "공익직불제제도개선을 진중하검 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변동)직불 이에 내해김 상단은 "시단 (만용) 수당 제에서 자격요간이 안 돼 (지불금들) 못 받은 시람들이 상당수"라며 "새로 신청 하는 지들이 공약지불과 요간에 맞는지 따개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한 논란과 관련 "행동원이나 선뢰원의 위반이었다면 법을 시행할 수

없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농사를 짓다가 과거 지급실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경우는 즉시 지급은 어렵겠지만 상황을 판단해 대상

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김 장관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 근차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 경제활력을 통한 농가 소득 문제 동한 경제활약을 통한 동가 소득 논체 도 다됐다. 정순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시가구 소득은 6600만원, 농가소득 4100만원으로 2300만원 차이가 난다"며 "주거 문제와 교육-산업 문제 해결방안 이 이우라져야 농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촌 정 명성규 더불어민수당 의원도 농촌 정 주여건과 관련. "왜 정년들의 귀농 귀촌 이 어려움을 취느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 아봐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정년 농촌 사업도 가급적 이면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식량 안보중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밀과 전모 중요성이 대무되는 것과 관련, 결과 콩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국 국민 이 먹는 양곡이 1년에 약 114kg로 이중 60kg이 쌀인데 한국에서 거의 100% 자 급하지만 밀은 자급률이 1% 정도, 콩은 20%를 오간다"며 "밀의 경우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가 어려우면 정부 수매 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의모든순간 좋은 커피를 즐기듯 좋은 삶을 즐기다 여기는 문화다방 좋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투자도 문화가 되 **NH투자 증권** 투자, 문화가되다

'코로나 실업자' 고용한 中企에 최대 6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연말까지 시행 만원을 최장 6개월 지원만다. 육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조건 지급 날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12월말까

코로나19박식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고로대)열 열합위기들 역기위에 8주 가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건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 금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중 소기업의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위 기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기획선가인 중단 이때한 근도차 중 위합 촉진이 필요한 살업자를 채용한 중소·중전 기업 사업주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은1인당 100만원을, 중전기업은1인당 80

지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지 요건에 해당하는 설업자를 재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위기이후 어려 워진 고용어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 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스지난 2월 1 일 이후 이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증인 자 소체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전기 실업 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

들어에게 어떤 근도에라 세달한 후 고양하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직전 년도 사업장 고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만약 10인 사업장이라면 을 연말까지 새롭게 고용

을 수 있다. 다만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 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일 이전에 있던 노동자를 일부러 감원하고 장려금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 해 고용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 전 1개월 과 고용 6개월 이후 기간 사업장 인원 수 를 확인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만은 "중 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 소·충선/1업 재봉보소는이 코르타마모실 작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아려운 기 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동물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한다 '마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맹판리에도 만편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기획기사(2020.7.28.) - (상)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8면)

NH투자증권

경제 이데일리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9

일요일 건설업 사고사망률, 평일의 2배… 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안전관리에는 휴일 없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 고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얼만 이상을 자시한 것으로 나라졌다. 즉 히 이중 10명 중 6명이 추락사로 사망했 으며 평일 근무보다 동반 작업자나 안전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일요일 근무때는 산재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치솟는 것 관리자 부재・1인 근무로 안전 취약 사고사망 발생위험률 65% 달해 72%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거선언 시마시고 10명 주 6명은 츠라시

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이 2016~2018년 3년간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설업 사망자는 1312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2575명)의 51.2%에 달했다. 이어 제조업이 673명(26.1%),기타업종이 590명(22 %) 순이었다

550명(225%) 눈이었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 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사 고 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은 사망 사고발 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업무상 산재 사고사망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연구 읽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중에서 일바 원은 중대서에 2차 보고서 중에서 할만 재해는 제외하고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고사망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건설업 재해 사망자는 2016년 464명

(52.1%), 2017년 458명(51.5%), 2018년 391명(43,8%)으로 전체 사고사망의 절반 을 차지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중 추 라시 떨어지 사고가 60%를 가지해다 다자, 발어심 사고가 60%을 자시했다. 2018년의 경우 건설업 사망자 중 234명 (59.8%)이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서 사고사망이 주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 사망의 72%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안전공단, 올 6만개 현장 순찰 점검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 행정조치



에서 발생했다. 건설업에서 공사 금액별 사고사망 분포를 보면 2018년 △20억원 미만 269명(721%) 스케어스120억의 74 명(19.8%) △120억원 이상 30명(8%) 순

정(17,50%) 조1,10~4분 여성 378(6%) 단 이었다. 건설업에서 일요일 산재 사고사망 발 생위험률은 평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 났다. 요일별 근로자수와 사망자수 비율 을 분석해 사고발생 위험률을 계산한 결 과 건설업의 경우 평일 사망시고 비율은 36.2%였다. 이에 반해 일요일은 무려 64.9%에 달했다. 평일보다 일요일 작업 현장에서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이 2배가 까이 높다는 얘기다.

지 않거나 근로자가 혼자 근무해 사고 발 생을 예방하기 어려워서다. 분석 보고서를 쓴 조윤호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요일에 근무한 사 람 수에 비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 답 누에 미해 전세 사랑사고 필증 위험률 이 더 높았다"며 "휴일에 혼자 근무를 하 는 상황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탓인 만큼 일요일에 근무시 안전, 사 고예방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

여령별 사고사망 발생을 분석한 결과 업종과 관계없이 50대 이상 사고사망지 수가 3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69%를 차지했다. 건설업에서 2018년 기준 소50 대 사고사망자는 39.4% 소60대 이상 36.3%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사고 사망 자 비율은 전체의 75% 이상으로 집계됐 다. 50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상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공단, 안전점검 패트롤카 59대 투입

안전보건공단은 작년 하반기 총 2만 7000여개소규모건설현장에 3만5000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그중에서도 소규 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수착 정건 도 당사면상을 내성으로 면장군을 합됩 때트롤 방식)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전 업종 에서 사망자 수가 급감했다. 안전보건공 단은 올해에도 패트를 방식으로 건설현 장에 순찰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목표 등에 눈을 점검을 하고 있다. 클레 목표 를 6만개 현장으로 확대했다. 현장 순찰 점검을 위한 전용 패트롤카도 32대를 현 장에 추가로 투입해 올해 59대를 운영 중이다.

하이다. 패트롤카가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순 의요일에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무를 하 찰하면서 안전 관리 안내방송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 점요인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 하고 있다. 패트롤카 차량에는 화재·폭 발 예방 장비도 구비해 건설현장에서 화 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 대응 지워도 가능하다

시원도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지는 "건설업은 지 난해와 같이 '추락' 사망사고에 집중해 2 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순찰 점 검 중"이라며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

개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안전 대·안전모 착용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고석명했다

이저너거고다은 주소규모 거섭혀자음 순찰하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설현장 은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한 다.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대 불량, 안전나간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 다. 점검을 거부하는 현장이나 시정조치를 개선하지 않는 등 고위험 불량 현장은 고 요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아저보 거고다으 지나레 1082개소 거섭혀장에 해



'짠내 나는 땅'이 국내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오후 3시면 완충… 2.7만가구 전기 자급 가능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가보니…

염도 높은 공유수면 재생도시 개발 세계 최대 306MWh급 ESS 설치 전선 지중화… 안전·환경 '두 토끼 'RE100' 전용 산업단지 구축 추진

군으로 내려가면 드넓은 평야가 펼쳐 지다.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육지로 모습을 드러내 공유수면 이후 독시도 모습을 드더낸 승유구먼 일부다. 토양의 염분 농도가 짙어 정 상적인 농사는 힘들다. 오랜 시간 방 치된 이 땅은 이젠 태양과 바다의 도 시라는 뜻의 '슬라시도(solarsead o)'로 재탄생했다.

지난달 30일 찾은 솔라시도는 마치 영화속 미래도시 같았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영향이 규모 대상량 발언조가 위치한 영향이 크다. 해남군 구성지구 부지 158만 m (48만평)에 조성됐는데 축구장 190개 를모아놓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눈 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여서 전체 조망 은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봐야 한다.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서는 바람에 나 달라지도 대응형 물란지는 마음에 다 부끼는 깃발 모습으로 넓게 펼쳐져 있 다. 지난 6월말 준공했고, 오는 2039년 말까지 20년간 운영한다. 솔라시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

력량은 연간 약 129GWh다. 해남군 인구(6만9000가구) 3분의 1인 2만 7000 가구가 1년 동안(가구당 월 400 7000 가구가 1년 중인 가구성 할 400 kWh 이용기준)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다. 태양광 발전이 시작하면 대부분 전기는 일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다. 이날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여서 오후 3시경 이미 충전량이 90% 에 육박했다. 저장된 전기는 5시부터 방점을 시작해서 12시까지 한국전력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슬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 중앙에 자리한 뭔가든.

해 총 20개 건물에 분리해 설치돼 있

에 5 ~~ ... 었다. 솔라시도 태양광은 처음에는 가격 지만, 정부의 국산화 방침에 태양광 모듈 41%는 국산제품(한솔테크닉스) 이사용됐다

이 사용됐다. 보성산업 한준호 스마트시티솔루 션팀 상무는 "중국산이 훨씬 쌀 것이 라는 예상했지만, 국산제품도 자동화 로 생산하면서 거의 가격차가 없어졌 다"면서 "대규모 모듈을 한꺼번에 받 는 것에 비해 국산은 필요 제품을 제 는 것에 마에 작년은 필요 세점을 제 때 공급받을 수 있어 작업이 더 효율 적"이라고 말했다. 보성산업은 부지 조성·EPC(설계 조달 시공)·O&M (관리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종합건설업체 한양의 계열사

. 송라시도 태양광 박정시석이 미래 도시 느낌을 주는데는 태양광 발전시 설가운데 위치한 십자모양의 공원 영 항이 크다. 십자가 만나는 지점에는 원형 모양의 '썬 가든'도 들어서 있다. 공원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모티브로 자연과 사람, 에너지의 공존 도디프로 사건화 사람, 에디지의 중단 을 행상화됐다. 원형광장의 지름은 약 300m이며 중앙부에 약 5m높이의 전 망언덕도 있. 태양광 시설과 연결돼

다

있는 전선은 땅밑으로 깔아서 깔끔하 면서도 전자파 노출 우려도 없었다. 김동하슬라시도태양광발전사업소

현장소장은 "부지 48만평 중 12만평 은 녹지"라며 "태양광 발전소는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을 수려고 했고 고라니가 살 정도로 친환경적 시설이

교라다가 할 정도로 진환경식 시설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콘 크리트를 사용하지도 않아 사용연수 20년이지난 후에는 오염물질 한점 없 이 깨끗하게 해체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재새에 나지가 충보히 고근다고 이어

세생에너시가 중단히 용납되고 있어 솔라시도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들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는 캠페인 'RE100'에 참여가 가능해졌 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업에 개별계약을 맺고 저기를 공급하는 저 련구매계약(PPA)제도 도인이 성격과 대구에게막(PPA)세도 도입이 신결과 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상 '발전사-기업'간 직접 전력거래는 불 가능하다. 정부는 중간단계에 한국전 력을 끼워 넣는 '제3자 PPA' 방식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 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장을 재생 에너지로만운영하려는기업에게 솔라 시도 입주가 최선의 대안인 이유다. 해남(전남)=김성윤기자 yoon@



기획기사(2020.11.2.) - (상)일요일 건설업 사고사망률,평일의 2배...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9면)

오피니언 이데일리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25

글로벌 증시 떠받치던 세 가지 믿음

목멱칼럼



羊 여준 유동성 정책 정화 각국 경기부양책도 힘빠져 2차 팬테믹에 경기회복 깜깜

유럽증시 최근 하락세 심각 투자자 리스크 관리 주력해야

외부 칼럼은 이데일리의 편집 방

3월부터 6개월간 주기가 상승할 때 시장에 는 3개의 합의된 생각이 존재했다. 중앙은 행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정부도 재정지출을 늘리며, 경제지표가 생 각보다 좋을 거란 생각이었다. 실적 향상과 유동성 증가에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있으니

유동성 증가에 정책적인 뒷반집까지 있으니 사장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세 개의 믿음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거란 기대는 지난 7월에 이미 끝났다. 상 반기에는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5% 이상 하락하자 연 준이 회사채 직접 매입과 대출 확대 카드를 순이 회사제 식업 메입과 대출 확대 카드를 내놓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랬던 대응이 용월에는 주가가 10%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아무 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 공급 자료를 선언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두 달 사 이에 중앙은행의 생각이 180도 변한 건 10년 너게 위하저책을 시행했지만 실물에서 만족 당기 한강당적을 시동했시던 얼굴에서 만족 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반면 자산 버블이 삼애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반응이다. 그 영 향으로 중앙은랭의 힘이 약해져 지금은 정 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요 역할이 될 정도로 위상이 낮아졌다.

정부 정책 역시 시험대에 들어갔다. 규모 와 지원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미국은 5차 경 기 부양대책 합의에 실패했다. 시장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다시 합상에 들어가 연말 전 에 결론을 낼 결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효 과다. 부양책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입에 오 다. 9위까지는 요근조이 심어름이 크린다 나. X웰까시는 유로존의 알겁률이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지만 앞으 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에서 하루 50만명 가까운신규 확 르내리면서 신선함이 떨어졌고, 이번이 마지

막 경기 부양대책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까

지역상에 역할이 불어를 가능강이 있다. 유럽은행이 12월 정례 회의 이전에라도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얘기됐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유럽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이너스 수준인 기준금리를 더 내리거나.

장기저리대출(TLTRO) 금리를 인하하거

상//ACIM을(ILTRO) 남리를 인하하거 나, 팬데믹 간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 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 다. 이미 금리가 即어너스이가 때문에 더 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8월에 향후 5년간 각국 정부가 유럽은

햇에 낼 가입비를 담보로 팬데믹 긴급매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정도로 여력이 없었던

교도 내명을 마신을 정도로 아무어 없었다. 걸 감안하면 더 이상 나을 정책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 유럽 경제는 긴급 대적 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밖 에 없는 처지다. 코로나19장기화로 정부의

보조금 재원이 고갈되면서 기업들이 구조

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작녀이 50~80% 수준으로 위출돼

지 잔독해 영합이 좋어든 가능성이 있다

진자가 발생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 다. 3분기에 주요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 하 충격에서 버어나는 데 성고했다. 우리7 단 중국에서 맛이다는 데 양동았다. 우리가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고, 미국도 전기비 연율로 33.1% 성장했다. 문제는 4분기 이 후다. 미국은 1%대 초반, 유럽은 다시 역성 장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재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 전망이 좋지 않으면 시장은 현재에 반응하지 않는다. 최 그 주시시장이 그런 형태다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과 미국의 5차 경기 고 있는 코로나19에 반응하고 있다. 그 때문 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유럽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6개월 는 유립시장이 가장 많이 할아갔다. 아름 사이에 만들어진 모든 지자선이 다 무너질 정도여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까지 전해졌다. 당분간 주가가 약세를 만치 못할 기능성이 크다. 3월 이후 6개월간 주가 가 너무 많이 오른데다 신용을 통한 외상 매 입 규모도 커 추가 상승이 쉽지 않기 때문이 다. 당분가 위험과귀에 주려하는 게 많다.

화재만 막아도 건설업 사망사고 준다

기고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 의가 요구된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

산재사고 때마다 '법개정' 답아냐

지나 4월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 고 공사장 하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10년시대 (이용단어와 약 4이지신시, (이번의 45명의 사당시와 약 회약원의 재산피 해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 히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용접 작 업 중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폼 등 작 업장의 인화성물질을 발화시켜 발생 하 거으로 추저하다 에리베이터 혹이 안 것으로 주장한다. 헬리페이터 홀의 용접작업을 우레탄 뿜칠 작업과 동시 에 시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와 같 은 공사장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 기 쉽다. 용접작업 중 비산한 용접볼 꽃이 단열재 등에 착화해 연소과정에 서 유독가스가 발생, 질식으로 다수의 시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사장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 큼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형사 고가 발생하면 항상 거론하는 것 중 하나가 번 개정이다. 하지만 번 개정 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있 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

위험요인이많은작업을 수행할 때 에는 안전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 후 실시해야 하다 노토자이 보주이나 실수 등 불안전한 행동에 기안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호시설 을 다단계로 강화하는 '페일세이프' (Fail Safe)와 '풀프루프'(Fool Pro of) 시스템이 필요하다. 페일세이프 아 품프루프는 문제 발생시 아저장치 가 자동해 사고를 밝지하는 시스템으 가역용에 사고들 당시아는 시스템으로 사고발생이나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 화재예방 비용 지원 적극 활용을 노동자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시 저 저건 지어 주 회이 저건 지어 조

선 점검, 식업 등 확인 점검, 식업 등 료시 마감 점검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점검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해야 한 다. 특히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인 용접 불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하재간시인은 불에 잘 탈 수 있는 지 요새러시한은 등에 널 릴 수 자근 사 재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공사장에서 당일 작업량만큼 자재를 반압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발화시 초 기 진화, 화재발생 시 화재 발생 경보, 노동자 대피유도 등을 화재감시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축이하가를 단당하는 지방자치 전학인에 / 들림당하는 시정시시 단체, 발주 및 시공사, 감리자가 현장 의 안전수최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행확인을 철저히 하고, 법과 규 치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도록 법 준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시 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치그 하구파 느디가 과려해 사시그

최근 한국반 규틸과 반단해 장시는 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팬. 가스족장기, 용접 작업 불연포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공사장 등 산업현장에서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 을 확보하고 안전수치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정부 소장아는데 노함이 될 것이다. 정우는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비용지원과 더불어 산업현

장의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안전 에 투자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때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❷갤러리

이정배 '파랑각색'

산이 쪼개졌다. 원래는 하나였던 거다. 어떤 이유가 저 덩어리를 토막낸 셈인 데. 누구랄 것도 없이 '인간을 먹여살린 다'는 거창한 명목이 그랬을 거다. 어디 잘려나간 산만 그랬겠나. 막힌 물도, 뿌 연 하늘도 다 그런 이유겠지. 그런데 그 그것이다. 4년 전쯤, 작가는 자본이 잠 식한 풍경, 의미를 잃어버린 자연을 폭 로채보자 해다다 여장 '보부이 된 저 II'이 시즈에다 오저하 채 HITF 7#7



희극인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기자수첩

다는 게 제일 행복해 요."지난2일갑작스럽

게 세상을 떠난 개그우

머반지서이생저하이



2007년 KBS 22기 공채 로개그맨 데뷔를 한 뒤 성실한 자세로 꾸준 히 활동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왔다. 그러 그가 돈여 자태에서 모치과 하께 수

그런 그가 돌면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 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글에게 충 격을 안겼다. 불과 1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쉽 시리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특히 대중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한 건 그가 평소 햇빛 알레르기 등 극심한 피부

직화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열관을 뚫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도 안에 박지선은 얼마 전부터 활동을 쉬고 있었 고, 모친의 간호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 질환으로 인

한 박지선의 고층이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 한 막시선의 고송이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 은 아니다. 그는 고교 시절 받았던 여드름 치료 부작용으로 피부가 상한 탓에 분장을 한 채로 임하는 개그 코너를 하지 못했다.

그간 많은 이들이 그의 고충이 얼마나 큰 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던 건 박지선이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모습으로 각종 무대에 올랐 던 영향이 클 테다. 그도 그럴 것이 개그를 면 영향이 들 테다. 그도 그들 것이 개그들 펼칠 수 있는 곳은 박지선에게 '꿈의 무대' 그 자체였다. 그는 개그계에 입문한 후 "무 대 위에 섰을 때 하고 싶은 걸 한다는게 이 런 느낌이구나 싶어 행복했다"고 밝힌 바 있 다. 그만큼 무대를 사랑하던 희극인이었다.

언다가는 건 사용으로 인한 아름. 그리고 외모 바하 약품 등을 이겨내고 대중에게 웃 음을 안겨준 그의 노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야 비로소 조명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박자선처럼 자신의 아픔을 감춘 채 대중에게 웃음을 주려 노력 중인 희극인 들이 존재하다. 정통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 져 하극인들이 인지가 좁아지 상황 속 박지 서 외국인들의 합시가 합시한 경우 목 역시 선을 애도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제는 대중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응원 의 시선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싶다.

아타까우 거 지병으로 이하 아프 그리고

이데일리

www.edaily.co.ki

화장 방향인 국 제 선 원임안 약성 이 약 원 원원 당당 국 자 선 원임안 약성 이 약 원 원 원임 당당 약 (유) 06517 서울시 중구 항일로 92 대표권함 92-5972-0114 대표적소 92-5972-0024 기계체보 92-5972-0034 /pito@edaily.co.br 구독문의 1899-1550 광교감수 92-5972-0038 晒짝 김상현

2008년 5월 2일 등록번호 서울 가00235(일간) / 본자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데일리 C&B 최상의 TV방송과 고품격 콘텐츠 서비스 종합멀티미디어 방송 재테크 No.1 경제 방송 빠르고 정확한 뉴스 증권, 부동산, 보험, 재테크 등 미래를 내다 보는 국내 최상의 국내 최상의 종합경제신문 (ln ₽[] 10 ch 🖸 183, 🔒 tv 155, 🕠 tv 🛭 16 위성 kt skylife 93 CMB 156, 1100 110 80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이데일리TV 편성문의: 02-3772-0231 광고문의: 02-3772-0203

기고(2020.11.4.) - (우)화재만 막아도 건설업 사망사고 준다(25면)

경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1 이데일리

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 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건설현장 추락사 막아라

지난 3월 청주시 지붕공사 현장에서 처 마 마감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었니다 구락에 사망했다. 시한 400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 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 다. 사망한 A씨는 안전고리 없이 작업발 판 위에서 건물 가림막을 고정하는 작업 을 하다 4m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 져 목숨을 잃었다.

거성어에서 사고사마자 수가 자녀비다 -선활업에서 사고사랑사 구가 작년보다 10% 이상 다시 늘었다. 정부가 올해 산업 재해 사망자수를 725명 이하로 끌어내린 다는 계획이었으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 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다은 연말까 지 건설업. 추락사 예방에 진중하다는 계 지 단절합, 우익자 에당에 합당한다는 계 확이다. 현장 점검을 (만곳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설비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나홀로 증가

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 기까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9명)보다 10.9% (25명)이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업종에 서 산재 사고사망이 줄었지만 건설업에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 발생형태를

상반기 건설업 사망 254명… 25명↑ 추락사 절반… 소규모 현장이 90% 정부 산재 감축 목표 '빨간불' 켜져

안전공단, 올해 6만곳 현장순찰 실시 작업발판·난간·가연물 집중 점검 안전설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상반기 건설업 공사규모별 추락사 영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의 10명 중 9명 이 중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 중소규로 사업장이었던 앱이다. 특히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10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 리가 부족하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올해 9월말까지 모두 2만 5000개 건설현장에 대해 3만 2000여회 현장순찰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세운 올해 산재 감

축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음

그러나 고유보가 올해 10월 군정간사 그러나 고통우가 돌에 10월 국정감사 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 난 9월 기준(잠정) 사고사망자는 66.명으 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사고 사망

자 수(667명)보다 6명 감소하는데 그쳤

살펴보면 추락 사고사망이 126명으로 전 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스화재・폭 발・파열 36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19명 △깔림·뒤집힘 18명 △기타

왓을 19명 스걸립·취립됩 18명 스기타 32명이었다.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공사현장 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110명이 사망한

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목표 를 달성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사고로 노동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공단, 건설안전지킴이 400명 투입

안인동단, 간을만인시임이 400명 무엽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은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순찰(패트 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목표를 3만곳에서 6만곳으로 두 배 확대했다. 추 락사고가 작업발판이나 안전나가 미설 덕사고가 작업될판이나 언전단간 미월 지, 안전모 미착용 등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추락위험 요소를 중점적으 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겨울철을 앞두 고 용접 - 용단작업시 불티에 의한 화재위 형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가연물 을 격리하고 화재예방 설비, 시설물 안전

역 축료에도 미성이 살았다. 고영주는 등 해 초 업무보고에서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지난해(855명)보다15.2%적은7.25명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문정부 취임 첫 을 먹다하고 와서에성 할마, 사람을 인한 상태 등도 점검한다. 공단은 올해 9월말까지 패트롤 점검을 모두 2만5000개 건설현장에 대해 3만 2000여회 실시했다. 이중 개선조치를 이 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 행하지 않는 건설현장 1250곳은 고용부 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건석아저지킨이도 4M명 투인했다 건 건설안전시십이도 40/8 우겁았다. 건 설안전지킴이는건설실무경력이 있는 퇴 직자중 선발한 전문인력들로 현장 상시 순철활동을 통해 산재 예방에 한 몫을 하 고 있다. 이들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추락사고

와 화재폭발 위험을 집중 감시한다. 위험 단계에 따라 현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하 고있다.

건설안전지킴이는 9월말 기준 약 6민 5000히를 수착했다. 현장 수착활동 후 인 저조치가 복락하거나 미개서 혀장은 때 선호시가 불당하거나 마케인 현장은 패 트롤 점검을 병행해 개선조치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속·정확한 현장 지

원을 위해 건설현장 정보를 종합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관 리시스템은 건설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리시스템은 선열안전시합이 순절활동을 비롯해 패트를 점검,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회서 심사정보 등을 종합 정리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위험공정이나 위험작업 시기에 맞춘 현장 말착 지원을 받칠 수 있다. 공 다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고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요한강을 포할 것으로 가내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사고 예방 을 위한 설비 설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554억원의 예 산을 들여 건설현장 안전성을 높이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억원 미만 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체형 작업 박파(시스템 비계)을 석치할 경우 인치



반도체·車 쌍끌이… 경상흑자 2년 만에 100억弗 회복

자료: 고용노동부, 인천보건공단

어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대 어 100억달리를 남아서다 2년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이후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연 간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연간 전망치를 넘어서 지난해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는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5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제 수지 작정치'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수저 참정기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흑자 예이 24억5000만달러 확대됐다. 지난 5 월(22억9000만달러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랭진 이어가면서, 지난 2018년 9월 (112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흑 자를 기록했다.

글기독했다. 9월 경상수지 혼자폭이 크게 환대된 경을 당장구시 즉시적이 크게 확대한 것은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크 게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120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87억달 라)보다 3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 과 수입이 지난 2월 이후로 모두 증가 전 환한 가운데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환한 가운데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수출은 반도체(12.4%), 화공품 (1%), 승용차(24.3%) 등을 중심으로 증 가해 488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지 난해 같은달(461억6000만달러)보다 흑 자가 36억9000만달러 늘었다. 지역별로 는 미국(23.2%), EU(15.4%), 중국 (8.2%)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입은 에너지류가격 약세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15.5%)와 승용차(37.2%)등 제소용상미(15,5%)와 응용사이,2%)등 을 중심으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증가하 면서 전년동월(374억7000만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378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0억4000만달러 적자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반등에 힘입 한은 9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상품수지 120억弗…전년比33억弗 ↑ 반도체 수출 21%·승용차 24% 증가 코로나·美대선 불확실성 변수로



러 축소됐다.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항공 화물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도 개선 되 영향이다. 여행수지는 4억3000만달 귀정자로 정녀동원(-8억1000만달러)대 더 식사도 선단생활(수학대)000만달러 줄었다. 운 송수지는 항공여객은송 감소에도 해상 과 항공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2억8000 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발터 특사들 기록했다. 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 지는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9억3000만 달러 축소된 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 타냈다 군내기언이 해이번이으로부터 의 배당수입은 감소하고 외국인직접투 자법인의 배당지급은 늘어난 영향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 19로 해외 현지 법인의 실적이 상대적으

로 악화되면서 배당수임이 좋고, 외국인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적자를 나 타냈다"고 말했다.

다었다고 말았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 자산은 9월 89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2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 내투자가 12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증 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 전투시의 경우 내국간의 해외투사가 30 억2000만달러 늘며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서를 이어갔다. 해외주식투자 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해외채권투자 가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 대됨 영향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의자 채권을 중심으로 15억4000만달러 증가

했다.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혼자 규모는 로 대다하다

도 내나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6% 줄 어든 4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지 난해와 비교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 으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반 군자은 "이 간은 충룡이 계속되다 면 연간 경상수지 540억달러를 상당폭 상회하고 지난해 흑자폭(600억달러)어 도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코로 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 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남

이고있다

들에 7월까지 성정부지 녹자 ㅠ모는 434억달러로 한은이 지난 8월 연간 경제 전망을 통해 제시했던 연간 전망치 (540억달러)의 80%를 넘어섰다. 한은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수출 개선세가 계 속되고 있는 만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전망치를 웃돌 수 있을 것으

5.6% 상승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로적자폭이 전년동월대비 2억2000만달 이 투자했던 국내 IT기업의 배당지급은 아 있다"고 말했다. 원다연기자 here®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시… 112만 농가에 2조2753억 규모

옥해 총 2조2700억위대 공익지불급이 들에 당 222/00억원대 당석작들다이 112만여 농가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43만여명에게는 120만원의 소농작불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립축산식품부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 익지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 2조2753업웨으로 총 112만1000 높가·농 222/35억원으로 중 112전1000 중가능 업인이 대상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 업인(법인 포함) 단위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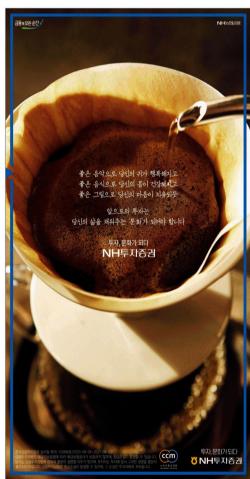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 함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 금액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특히 중소규모 농 작성들의 에너는 함께 보다는 이 전인식으로 아이지 보다 이 있다고 되어 있다. 가능 감안이 살아지는 하는 것이 되어 있다. 가능 감안이 살아지는 한 것이 되어 있다. 경작 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는 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함께 유해 유해 유해 있다. 이는 이는 이어 자리를 종약은 있어 있다. 이는 전체 지급에 중 2.4%를 치지했다. 이는 전체 지급에 중 2.4%를 치지했다. 이는

개며 저 비중이 10.6%(1306억위)보다

개선 전 미중단 10.0%(1306억원)보다 11.8%포인트들어난 수준이다. 논 동가(36만1000ha)는 8016억원, 발 동가(16만7000ha)에 3784억원, 논 발모 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는 1조953억 위을 지급한다.

밭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받직 불금의 비중인 16.2%(19%억원)대비 12.1%포인트 늘었다

세종=이명철기자 twomc@



기획기사(2020.11.6.) - (상)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11면)

• 사업명

산업재해 예방 훈포장 유공자 공적영상 및 다큐멘터리 영상

• 실적

영상 3편 / 송출 6회

- 안전보건 강조주간 훈,포장 유공자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07.~07.10)
- 훈,포장 유공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24.)
- · 동탑산업훈장 정미경 한국방송공사 보건관리자
- 훈,포장 유공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28.)
- · 철탑산업훈장 박성일 ㈜한라 현장소장







• 사업명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 실적

영상 3편 / 송출 312회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1편 (2020.09.09.~10.08.)
- · 건설업 추락사고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2편 (2020.10.12.~10.31.)
- 제조업 끼임사고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3편 (2020.11.02.~11.22.)
- · 지게차 충돌사고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 수칙 캠페인 1편 (2020.9.9.~10.8.) -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 수칙 캠페인 2편 (2020.10.12.~10.31.) -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09 한국NGO신문

• 사업명

안전문화 확산 안전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 실적

안전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기획 기사 추진 등

- 안전메시지 캠페인
- ㆍ 사업장 등 찾아가는 안전메시지(엽서)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보건의식 고취
- · 비대면 메시지 공모전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 도모
- 기획기사
- · 이주여성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기획취재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 및 외국인에 대한 포용 중심사회 구축









비대면 메시지 공모전



파머스가든 안전엽서 캠페인



파머스가든 안전엽서 캠페인



일산호수공원 안전엽서 캠페인



일산호수공원 안전엽서 캠페인



메리츠화재 평택본부 안전엽서 캠페인



메리츠화재 평택본부 안전엽서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메시지(엽서) 캠페인

4 (제717호)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환경/안전 한국NGO신문

한국NGO신문과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한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문화확산 안전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한국NCO신문(대표 감승등)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투용)과 함 제 크로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하는 안전에서지 보내기 캠페인을 될 했다. 용해는 크로나 사회격자투가 신흥으로 두표가 부착된 안전성서에 안전에서지를 보세는 안전에서지 경고전 을 함 제 진행했다. 지선 1981 1(일), 고일시 파이스배양가들에서 귀음귀한 아카데비 양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서 캠페이올 시작으로 10월 39인(등)과 외인(또) 양인각 일본 청소계를 변화됩러는 이에서(3에서, 11일 메리스화에 관객본부에서 근로자 대상 화아가는 안전성서 캠페인을

평화: 50% 나타면 캠페인으로 인터네와 파비워을 활용한 온라인 '인턴 에시고 공보전 등 전체에 인보인되게 '인터를 생각하고, 안전을 당하는 보다 보는 10% 등 보다 인터를 보고 있다. 10% 등 10% 등 기본에 전혀 있다. 10% 등 10% 등 기본에 인터를 보고 있다. 10% 등 10% 등 기본에 인터를 보고 있다. 10% 등 10% 등 기본에 인터를 보고 있다. 10% 등 기본에 인터를 보고 있다. 10% 등 기본에 시자 함께 인트 기본에 기본에 시아 본 기계한다. 고 밝혔다.

이뮨태 기자 ▲ '인전메시지 공모전' 인터넷 홈페이지



Ki II





855명

4289



에서 캠페이오 펼쳤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을 생활화

ANT ALM



인터뷰/<모두톡톡협동조합> 허령이사장

선업체해 사고사망자가 자난해만 855명,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정반인 428명이다. 건설함정뿐 아니라 서비스업 중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정마침이나 목업, 겨울철 등 특정한 시기에는 화재, 폭발 등 개절적인 특성으로 신업재 평가 발생하기로 한다 이렇게 신언함정에서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신언화해 사망사고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 국사SO신문대표 결승동)은 결혼이면지 안전용역사 파건으로 안전의식 향상과 함께 신업채해를 줄이는 활동에 앞경서 곧 소모두톡톡합름조기로 하형 이사장을 만나 안전문화 살전 방안 등을 들어보다.



Q. 모두톡톡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교육·구구 발생·도에 내려 교기에 취실한 형 역 : 반역 전문 형용조합되니다. 이용단이 원회을 함 용하여 전문 형용조합되니다. 이용단이 원회을 함 용하여 전문 형명수에 하는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교육을 통에 등 : 반에서의 역명을 권하다고 있 하나도 또한 이주민들이 알지는 함을 도모라고 사 회적 지역 항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용조합의 이용에서 '꼬두'목과 '은 다양한 언어를 바라그로 등에 파 전에 모두 한 수 있다는 의미를 갖 고 있으며 Tia Tiale 안문과 연주 목록은 해당 이 주민 등 · 반에서들이 모여 모두 아이기를 괜하게 하 자는 뜻입니다.

표 자근의 기념 기념을 반성을 지는 구시는 여의 이 기를 받아게 하는 뜻입니다.
학을 전에서는 최초로 인원교육 등에서는 목을 사용을 조한하는 인원교육 등역을 만하는 것으로 당한 인원교육 등역을 만하는 것으로 당한점, C전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원보 건강은 선생님, 연설문과 구선들의 가장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원보 건강은 선생은 자근사는 함께 부지 열심을 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천보 건강은 선생은 자근사는 함께 부지 열심을 만한 지만 신화이나 만부여 따라 이것 이 나르고 다른 뜻으로 인식을 수 있습니다. 중국, 대국, 합보다가 등 각 나님의 언어에는 모두 교육의 보석을 안 있습니다. 무슨 대국 전화다 가장이나 문자 교육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전화에서 가장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를 보려가 보석을 받아 가장이는 모든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인들은 모든 기를 가장이는 보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인들은 모든 기를 가장이 보실에서 한다는 무슨 있어 지원소들은 반역이 점점입니다.

기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것, 외국인 노동 자들은 이국 타향에 와서 돈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 됐는데 안전지식이 부족하고 안전의식이 낮아서 안전시고를 당하고 모구으로 가게 된다면 지인도 될 수 있고 안하자운 모습을 받면 계회도 안쓰였다. 그런 부판을 조금이나가 들이려고 안전쟁역사 시험 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외하신 대학생들이나 현존에서 외국어를

이전에는 외적인 대학생들이나 현점에서 외국어를 없하는 사람이 병역을 단당했고 필상분의 인원교 위이 없는 현장도 밝혔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 선적이 함에 커聞 이번가, 현재하는 위적인 근목자 변 이 적은 곳은 안전통역사를 정한 반가위합니다. 안전 교육 내용 뿐이나라 아무 말이는 들어보고 싶어 말 때 있었을는 교리나다.

Q 인전문화 확산 지원시업의 올해 주요 활동 내용은?

U.YUCEN 역간 APA ANA 20 등에 구설 등록 하나하는 먼저 건설인인에서 인권되는 장식으로 인정분들의 산에 있죠? 11 있습니다. 자난 6월 17 일이는 당신건설 원이의 화약인 근로자 인연고를 진행한 때 대략이 원이가 베트남이 생석을 진행했습니다. 용에는 고로 나 사용으로 대한 교육 간소의 영안으로 약인의 생석 됐습으로 아어였습니다. 자난 2018년이는 경우, 베트남, 대략의 근로자를 대 성으로 관건에 등록 진행하고, 2018년이는 학생되는 이, 중국, 베르노, 마인비, 대부, 등을 통의 근로자를 대성으로 인전의 등목 환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성으로 인전의 등목 환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생습니다.

혼이민자 대상으로 보수교육 20명, 양성교육 15명을 배출했고, 2019년에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미얀



마,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라시아, 카자흐스탄, 일 본 등의 결혼이만자 대상 보수교육 13명, 양성교육 15명을 배출해 안전문화동역사 역량강화에 앞장섰습 나다.

Q. 모두톡톡협동조합의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때 이저을 형신점으로 보고, 생각하

용은 불의 있나다.
무리가 성위한 때 안전을 형시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무리가 성위한 대한 기본 이 반이본도 더 상이들게 듣고, 함마하다는 중했어요, 그때아 안전을 자가 독승과 인국사(됐으면 중했어요, 그때아 안전을 자가 독승과 인국사(됐으면 중했어요, 그때아 안전을 자가 목하는 보였도로 있고 안전을 하게 안전을 보고 등은 전략이 보다는 모든 전략이 안전 보다는 기반이 등에 무슨 모든 함께 간단으로 가 만든 기본 기반이 등에 목적 도 함께 본 전략 기반이 되는 전략 기반이 등에 목적 구고 함께 본 기반기 등에 무슨 기반기 등에 무슨 기반기 기반기 등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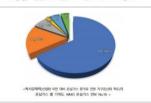
- 프로마시 강사(보이게 보냈도, 기반기 등에 등이 등이 무슨 기가 기계도 된다. 안전 교육에 중요한 무기 보다는 인간는 것 같아 중습니 가 기계도 된다. 안전 교육에 중요한 무기 기계로 된다.

과 수교육에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어름아나 연장이 달라서 안전교육 강사가 언제교육 강의 남자 학생 입장이 맞는 선생님을 전해서 입층에 맞춰 대라적으로 공부하고 갑니다. 강사님이 한 구절 색 강례하면 맞춰서 불역하는 병식으로 전해합니다. 경하인 근로자의 언어에 배우 2~원이 등서에 통역 요원이 분이되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소규보 자원장이나 전세 자원인에서는 안전교육요 성이 오월 일표 안전교육을 가려고 해도 피하기도 하는데 인위료로 표현하기로 안전교육의 경소인 일표 인원교육과 함께 인원을 생활회하여 습관처럼 인원을 제공으면 불렀습니다. 강사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브레이크 없는 상승 기록"

기상청, "신업화 이전(1750년)보다 48% 증가"



기산항(정한 박관선)과 세계 기상기구(MAD)는 23일 『단신 가스 안보(NaLD)』 발단을 등의 20명선 전 지구 이상화안소의 등도가 410.5ppm으로 전년 (세기화매화단 25ppm 8기회 제속에서 최고처음 기목였으며, 산단의 이전(700년)보다 4명 증가했으고 발표했다. 전 지구 하는 10년 등안 증가 등은 23ppm/sro(있으며, 2019 년은 전면도 대한 25ppm 8기 등 나타내 높은 증가들을 기록 했다.

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측정한 국합가의과화원에서 축하한 한반도(인반도)의 2018년 이번 화반소 행한 동보는 전 지구 경 됐답다 약 7.4km 호인으나, 그 증가율은 전 자구와 비슷했다. 인보에 따르면 온감가스에 의해 지구인스템을 1980년 이후 4% 등 개였으며, 전체 온상가스에 의한 하면 유산기산의 한 박사업제에 중이산화판소가 60%을 차지한다. 세계가산기구(WMD)는 이번

연보를 통해 왕해 코로나방 확산으로 인해 인위적인 이산회반는 소 배송이 조산했을 것으로 후 정되나, 대기 중 이산회반소 등 도 변하는 이미함 것이라고 언 급했다.
고로나 확산 기간 등안 전 세 게 이산회반소 배출병이 4 7% 정어는 것으로 후축하며, 이는 대기 중 이산회반소 등도를 있게 수이하고 있다.
전상기소 제안으로 인한 기후 영향은 최대 수십 년 후에 나타보로 운성기소 배출 안소 나타보로 운성기소 배출 안 하나 나보로 운성기소 배출 안 하나 나보로 운성기소 배출 안 등 전체 기가 살기주(WMD) 페데리 당라스(PRINT Take) 제무증당 후 경기 선기가 이해라. 경비, 기계 기상이 기반한 기후 행당이 열 조 조합이지 않는다면 제반함 등 조합이지 않는다면 제반함 기반한 기후 행당이 열 지역 나기가 이해라. 같마, 기계에 기반한 기후 행당이 될 지역 나기가 이해라. 같마, 기계에 기반한 기후 행당이 될 지역 나기가 이해라. 같마, 기계에 기반한 기후 행당이 될 지역 나기가 이해라. 같마, 기계에 기반한 기후 행당이 될 지역 나기가 이해라. 같마, 기계에 기반한 기후 행당이 될 전하다고 온로했다. 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심 만m 마리아나 해구부터 해발 8천m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미세플라스틱 발견"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미세플라스틱 발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
레스트의 정상 부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전함하는 조가 검
경우 나타하는 "자리 이를 하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이를 하는 생물이 이를 하는 생물이 이를 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하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되었으며 되었으며 되었으며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바베레스트의 삼물기로 있는 생물이 이를 하는 생물이 보이는 생물이 바베레스트의 삼물기로 있는 생물이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이 되었다. 이를 보는 신리에 보인되는 생물이 사람이 바베레스트의 사람이 발전될 것은 하는 생물이 사람이 사람이 나를 보는 생물이 나를 보는 생물이 보면 생물이 나를 보는 생물이 나를 보는 생물이 나를 보는 생물이 있는 생물이 가를 보냈다. 사람이 가장 소리를 보냈다.

특집(2020.11.30.) - 안전문화 캠페인 특집기사(4면)

10 한국경제신문

• 사업명

산업안전 캠페인

● 실적

온라인 배너 2회 (2개월) 및 기획기사 2회

- 온라인 배너(2020.6.30. ~ 2020.8.30.)
-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물·그늘·휴식 (캠퍼스잡앤조이·모바일한경)
- 기획기사(2020.10.23.)
- ·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 … 6만곳 불시 점검 (12면)
- 기획기사(2020.11.05.)
- · 건설 추락사 90%는 중소 영세현장 근로자 (13면)



온라인 배너(2020.6.30.~8.30.)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물·그늘·휴식 (캠퍼스집앤조이) http://www.jobnjoy.com/

경세·금융 A 12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한국경제

KB금융, 3분기 깜짝 실적 … '리딩금융' 굳히나

푸리테셜 이수 효과에 증권·IR분야 등 선정 더해 순이인 1조1666억원 옥려

코로나 초저금리 화경서도 3분기 누적순이익 3조 육박

VD그 은이 2보기까지 2天이에 오바릅니 순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와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 이즈'를 기록했다는 평가다. 올 상반기 꾸 르덴셜생명을 인수한 효과가 더해져 '리 딩금융그룹'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부석이 나오다

분석이 나온다. ◈'푸르덴셜 효과에 이익 '쑥' KB금융은 지난 3분기 1조1666억원의 당 기 순이익을 울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작 년 3분기(9403억원)보다 24.1%, 전분기 (8818억원)에 비해서는 18.8% 늘어난 수

치다. 업계 예상치인 90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3분기까지 누전 순이일도 2 조877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771억원)



다. 지난 4월 인수한 푸르덴셜생명 염가 매수 차익(145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 이다 자사 가치 대비 저렴하게 이수해 이다. 사건 가시 내미 세념이게 연구해 1450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봤다는 뜻이 다. KB금융 관계자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 기준 순이익은 9000억원대 후반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라면서도 "녹록지 않은 금융 환경을 고 려할 때 매우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ㅗ ㅌㅆ더. 은행의 대출 규모가 커진 것도 수익성 다.3.6% 증가했다. 무르덴설생명을 인수한 효과가 컸 리가른쪽으로내리며예대마진은줄었

지만 대출이 늘어나 전체 이자 이익 규 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은행의 수 의 창출력을 LiFt내는 지표이 수이자마 지(NIM)은 소포 내렸다. 3부기 KR근용 전(NIM)는 도록 대했다. 5분기 (RBE) 과 국민은행의 NIM은 전분기 대비 각 각 0.01%포인트 내린 1.73%, 1.49%를

다른 계열사도 선전했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33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늘었다. 기업금융(IB) 분야 영업에 적극 나서면 서 수수료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

◆"리딩금유그룹 굳히다" 등 다음등로 표 군인다 KB금융이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올해 입당금융 타이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다. KB금융은 지난해까지 신한금융에 순이익 기준 1등 자리를 내줬다. 올해 1분 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부진한 실적을 냈다.

그러나 2부기부터 시하금융이 수이 고리나 2분가부터 신한금융의 순이 억을 제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푸 트덴셜생명을 인수하면서 계열차 포트 풀리오를 강화한 게 주효했다. 여기에 라인과 해외급리 파생결함펀드(DLF) 등 대형 펀드 사고를 피하면서 총담금 자출도 아겠다. 3분가에도 KB금융이 신한금융의 순이익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이유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이 9000억원대 업계에서는 신한급용이 9000억원내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급용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 한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 등 어려운 영 업 환경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익 기반 다변화로 안정적인 실적을 냈 다"며 "프리데석새명이 우수하 채너과 그류이 다양하 근육서비스를 정모해 영 업 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

기업銀, 예금·적금·대충 결합 'IBK생활금융' 상품 출시

기업은행이 입출금통장과 적금·대 출을 결합한 'IBK생활금융' 상품을 23일 출시한다.

일출금식 통장인 'IBK주거래생 활금융통장'을 개설하면 각종 수수 료가 면제된다. 급여와 연금을 받거 나 생활비 자동이체 거래 식정마 인 나 생활비 자동이체 거래 실적만 있으면 스전자금융 타령 이체 수수료 (월 50회) 스타령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출금 수수료(월 10회) 스기업 은행 ATM 타행 이체 수수료(월 10 회) 등이 면제된다. 이 통장이 있으 면 최대 연 2.5% 금리의 'IBK생활금 용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입 출금통장 최종 잔액의 1%가 자동으

설금봉상 설동 산액의 1%가사용으로 적립된다. 입출금식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마이너스통장인 TBK생활금융 소액대출로 자동 연계된다. 잔액이 없어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간편 결제 자동이체에 한해 최대 50만원 설체 자동이제에 한해 최대 SVI안원 한도에서 출금된다. 기업은행 관계 자는 "기준 주거래통장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 용거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상품" 이라고 말했다.

송영찬기자 Ofull@hankyung.com

한 중 통화스와프, 5년 연장 합의 韓 '외환 안전판' 총 1962억弗 확보

하군으해가 주군 이미으해요 지나 10일 장하기로지난 8일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율해 왔다. 당초 통화스와프 규모를 560억달러(약 3600억 위아)로 유지하고 여자 기간도 기존이 3년 이 거론됐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규모

이 가는됐시면 쇠용 협상 과정에서 규모 가 590억달러(약 4000억위(안)로 확대되 고기간은 5년으로 늘었다. 한국이 이번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 모는 중국과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각 3500억위안) 간 규모보다 크다. 또 중 국이 맺은 것으로 가장 큰 규모인 홍콩과 라다고정부는 석명했다.

같다고성무는 설명했다. 다자 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 니셔티브(CMI)를 통해 4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처음 맺었던 한국 과 중국은 2009년 4월 기존 다자 간 통 화스와프 계약과 별개로 260억달러 상

日과는 2015년 종결 후 연장 안해 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 당의 환역한 송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10월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스와프 규모를 두 배 (560억달러)로 들려 확대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후 10년간 규모 변경 없이 연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 이 화대 체격되면서 하군이 위기 시 해

이 확대 제결되면서 한국이 위기 시 해 의 국가로부터 건급히 빌릴 수 있는 외화 규모는 미 달러화 기준 1932억달러에서 1962억달러로 늘었다. 미국과의 스와프 규모가 6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스위스(106억달러), 아탑에 아내00억달러, 호주(6)억달러, 아탑에 미리트(UAE·54억달러), 말레이시아(47 마리는(IAE-54억달러), 발레이시아(4/ 억달러) 등과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캐나다와는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 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 이 종료된 이후 새로 체결하지 않았다.

강진규/김익환기자 josep@hankyung.com



운데 베트남 스타트업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정 120주년 '독도의 날' 기념메달 나온다

골든듀 온라인몰,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포사하도약해에서 서자수ㅇ큰 예약을 반

골든듀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골드ㅠ는 목모의 할때를 건말을 기업에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제정 120주년 기 남메달'(사진)을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기업·농협·우리은행 전국 지점, 는다. 금입체 금메달 (李 150개 개단 638만) (총 15071, 기당 658만 원), 금입체 은메달 (총 50071, 개당 198만 원), 은입체 은메달

(총 1000개, 개당 28만6000원), 금동메달(총 2000개, 개당 3만3000원) 등 네 종류가 있 다, 이 중금은 메달은 바닥 부분을 태극기 와 독도가 교차해 보이는 '작상기법'을 적 G88L1 이상역 기자....

고시회차 : 24: 국가명		8 D	전신환송급		(2)	DE DE	
uq.	ries .	**	보일 때	반을 때	살때	팔백	기준물
	자본 결과 다시	달 번 연 로 파운트 달 번 프	1,144,00 1,093,27 1,356,36 1,503,92 869,84	1,121.80 1,072.05 1,329.52 1,474.14 852.62	1,152.72 1,101.60 1,369.66 1,518.36 878.19	1,113.08 1,063.72 1,316.22 1,459.70 844.27	1,132,90 1,082,66 1,342,94 1,489,03 861,23
8	위 스 중국 네시아	프 방 달 러 위 안 바 트 루피아	1,262,94 147,64 171,98 36,61 7,82	1,237.94 144.72 168.58 35.89 7.68	1,275.07 149.05 178.79 38.06 8.29	1,225.81 143.31 161.77 34.08 6.98	1,250,44 146,18 170,28 36,25 7,75

환전은 하나은행

1599-4567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 ... 6만곳 불시 점검

안전보건공단, 순찰 2배 늘려 공사비 120억 미만 집중 점검 안전장비 구입 비용도 지원

매녀 1000명에 유반하는 사언령자 사 당 사고 가운데 실단 이상은 건설면상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약 70%는 공사비 20 역원 미만인 영세 건설현장에서 발생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불시 순찰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총 6 Pr 곳 이상의 영세 건설현장을 집중 점 건하기근 해다

검하기로했다. 22일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이 발표한 '2016-2018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현장사고사망자는건설업이총 1312명 (51.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제조 업 673명(26.1%),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이 590명(22,9%)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스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



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에서는 추락

사고가약60%로가장많았다. 공사규 사고가역에/%로 가장 [함았다. 총사·규 모델로는 20억원 미만 공사현관에서 시민자의 70%가 발생했다. 사고 사망 자가 나오 현장의 30%가방은 방호화 자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사고현광 5곳 중 1곳 골로는 추락방지 장치도 없었던 것으 공소나당라? 로조사됐다. 전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해 효과를 보

성무는 지난해 /셸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점감, 이른바 꽤트롤 순찰을 대 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안전보건 공단은 창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산재 예방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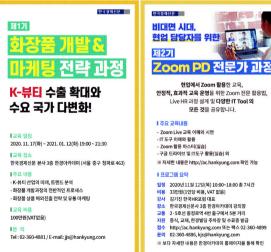
고 조사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다. 또 재해예방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 리하고, 공단전 인력(1158명)을 2인 1조 방식의 패트롤 점검반에 투입했다

명식의 패트를 삼십반에 투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국 2만7000 여 곳 현장에 대해 총 3만5000여 회 접 검한 결과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에서 지난 해42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산재사 고사망자는총855명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패트롤 방식 현장점검을 연초 계획 대비 두 배 늘려 현상점검을 연조계획 대비 누배 늘려 총 6만 곳(공사비 120억원 미만)을 불 시 순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7개 일선 기관에서 한 대씩 운영하던 패트롤카도 59대로 늘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봅시 순찰

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여부 등을 심중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은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한 다"며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영세 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 등 안 전장비 구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기자 argos@hankyung.com





기획기사(2020.10.23.) -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 … 6만곳 불시 점검(12면)

경제 한국경제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A 13

年 5억 버는 부동산법인, 세금 6700만원 증가

기업 "지나치 계연가선" 비판 정부 "투자활동은 과세 안해"

MERCAPORT COLORER BY THE PERSON LENGTH 사업자 A에는 할 단 선본인이 IMS 시문 을 갖는 1만 범인'을 설립했다. 소득세율 보다 낮은 범인세율을 직용받기 위해서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범인 설립 전 1억 7460만원에 달했던 소득세의 절반도 안

I는 8000만원만 범인세로 내면 됐다. 내년부터 이런 '절세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A씨가 설립한 1인 범인과 같은 '개인 유사범인'의 유보소특 에 제금을 불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임대법인 등 세금 증가

수부등은 양대법인 등 세금 증가 생인 기제(재정부는 내년 도입하는 '가인 유사법인 교세대도와 도입 취지 및 설계 당인을 발표했다. 당신 기계부는 2003세 대계장인에서 화매구우 및 그 특수단계 자가 80% 이상 자본을 분류하는 개인 유 사업인이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단우 자기자본인 10%를 초계하는 급역 등 보결 경우 이용 배당소투으로 보고 내년 현대 교육에서 가는 의원에다. 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창업자 지분율이 높은 벤처기업 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제기 됐다. 기업의 미래 전략에 따라 이익을 유

연소득 5억원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부과후	
적용 최고세율	40%	20%	법인세 20% + 소득세 38%	
세부당	1억7460만원	8000만원	8000만+6777만원	
세후소득	3억2540만원	4억2000만원	3억5223만원	
HHDMS LAD	1909 2904 品址小馬 Q	다른소독업다고 가장	对位 7 和对称中	

제시하며 "정상적인기업활동을 하는 경 우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사업 활동 없이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료 등 이른바 '수동적 인 수업을 주로 올리는 법안이 과세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이라고 설명됐다. 부동산 법안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연법인세 차감 후 이야인 4억2001만원의 행환인 2억1000만원이 총과 유보소득으 로 분류된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경 우 금융소득 총함소득세로 677만원이 추가로 과세된다.

1인 기획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 안 출연료와 양대료 수입으로 안 30억위 을 밟아 10억위의 밖이셔를 낸다. 기존에 는 20억원을 모두 행사에 유보려 돌 수 있

보하는 것에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는 것 어졌다. 생시한 내년부터는 절반인 화약원에 대 어졌다. 기재부는 이날 대표적인 과세 사례를 실제로 배당할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먼

◆투자 및 삼환고용 등 비용은 예외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유보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

으서 향후 2년 이 Holl 등지-보래 상황-우선 방우 것인 이내여 투자 부채 상황-고용 연구개방(18.80)을 위해 폭립한 권 역은 과제 대상에서 제한된다. 여런대저 조업재인 단법인이 법인제를 내고 남은 소득 100억원 중 20억원은 주수에게 배 타리고 회약에운은 30억위은 주수에게 배 타리고 회약에운은 30억위 대해 위보소득 서를 내어 현대, 화지만 (1920)이 급여 문제를 가게하고 구성을 상해 제비하 응고년 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적립하 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임금을 사취하거나 내게도 차임금

통계청, 8월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상환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 이 아니다. 고용과 관련해선 산규 고용 비 용 외에 기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1인 자영업자 늘고 고용은 줄어 구직 포기 246만명 - 역대 최대

자영업자 20% "취업 어려워 창업"

경기 집체로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자영 암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 다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두지 않

는 자연업자도 급증했다. 통계형이 4일 발표한 '2010년 8월 비 임급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 사 '결과 최근 1년 내 항업한 자연업자 중 19.66차' '임급근로자로 취업이 어려 워서' 항업했다고 밝혔다. 이 응답을 한 비율은 작년 8월 조사여 내회 5.66.2편이 문 조개생대, 3.0일이 이는 1008만나 트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 명 좋았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연업자 는 419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6만6000 병들였다.

정도은 투제된 구유부제권장은 "의현 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을 쓰지 않고 참

업 때 자동주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이런 추세는 2019년 2월부터 시작돼 코로나와 영화으 로 강도가 퀴졌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여 무급가 측존사자를 합친 전체 비임금 근로자는 음 8월 기준 663만9000명으로

한해 전보다 16만1000명 감소했다. 지역업자들의 항후 전망도 불투명한 것 O 근 (IEILHT) 현재 시어템 또는 일을 계 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체 또는 얼을 제 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 A&로, 한 해 전되다 QA&로인트 출었다. 일을 그만두 겠다는 이유로는 '전망이 잃거나 사업 부 전이 및 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취임도 실업도 아닌 삼타에 있는 비결

에 비해 53만4000명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가장 많았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 하지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9만 명 늘어난 246만 2000명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가장댐았다

강전규 기차 iss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컬푸드 시상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 수 결과 열표 및 우수 지병자회단에 시상식을 열었다. 이재욱 농원축소 과 오정규 aT 유통이사태 반배 등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건설 추락사 90%는 중소 영세현장 근로자

1-6월 건설업만 사망사고 늘어 안전보건공단, 50억미만 현장에 시스템 비계 설치 등 지원

지난 3월 중북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 지난 개발 중독의 한 다가 구구 때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물받에 떨어 전 노근용 증기 위해 하다를 숙였다가 7m 이래 바다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 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어 5월에는 증가 김보시 근원생활사성 신축 현장 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

정보가이 같은 소구도 간한 면상 후 하시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참 집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비용을 적 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인 대용성 지 서로 2022년까지 산재 사고를 절 만으로 감축하기 위해 총리를 혼고 있 지만 소규모 건설 현상을 중심으로 사 명 사고가 당대 참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도 12년이 이와비가고마다에 2017년도 12년이 이와비가고마다에

건설현장 규모별 추락사고 사망자 (단위: 영) 50억-120억원 7(8%) SYSSEM DIPH

전체 126

지료: 인전보건공단

파르면 올 상반기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년명으로, 지난해 같은 가 간(22명)에 비해 25명 늘었다. 같은 가 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0명으

도, 시난해(Mb)당세 미에 5명 당가졌 다. 정부 정책 효과와 업계 노력으로 제조업 등 다른 부문 산재 사망 사고는 출고 있지만 건설 현장 사고는 크게 늘

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음상

추락사는 126명으로 49.6%에 달했다. 특히 추락 사망 사고의 87%(110명)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 장에서 방생했다. 그중에서도 100명 장에서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100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염세한 공사 한 중 근로자였다. 정부가 소규모 건설 현 장에 대해 안전비용 직접 지원을 늘리 기로 한 배상이는 등 이 중에 동생인의 에 산을 판성해 소규모 건설 현장에 알쳐 함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등 안전시 그것에요 12% 느낌이요 12% 느낌이요.

설 구입비용 지원을 대폭 늘었다. 공 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한 곳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함 경우 역자비용과 안전방방 구입비용을 지

다. 정부 정복 효과와 업계 도덕으로 달인다. 제조업 등 다른 부분 전체사명시고는 최고 있지만 건설 현장 사고는 크게 늘 에너 대해 가능하다. 공사비 있어워 마만 영제 현장은 최대 여섯 곳까지 지원 변을 상당 사당 시고 원인은 주막이 변을 수 있다.

외환보유액 4265억달러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비용을 유보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

기로 했다. R&D 비용도 유보소득 산정

시 때구기로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

기자부 관계자는 '방안을 심는 성입하 가나 가입시안해를 받인으로 전한데 상 대적으로 교환인 소득에 부탁을 회의하 는 현상을 받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 라는 것'이라고 함당했다. 기차부에 따르 면 지난 10년간 한 10억 지본 100%을 받 한 인 주무밥인은 2010년 5만 개에서 지 난해 28만 개조는 다섯배 이상 중가했다. 급지만 중소가 안전에서 전혀의 초 개조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여전히 초고

유보소득세는 기업의 자율적 경염 활동

을 억누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만하

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분율과 유보소

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본통과 유보소 투 규모를 가진으로 약 %라 계쇄 대상 이렇 것으로 편됐한다. 하지만 가져부는 각종 이외 조건을 고 하지만 가져 대상이 이보다 대적을 찾이 라고 설명한다. 서무입계에선 과세 대상 용구·% 선으로 여성하고 있다. 가지부 관계자는 "작곡도사성산으로 검영 활동을 하는 일반적이 범인이 점 환경되어 모든 때문을 사용해 가장되어 변화되어 모든 때문을 사용해 가장되어

향반지 않도록 제도용 설계할 것"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의전을 지속적으로 수립

29日子 7日 insupilitarika na con

의 보위하였다"가 되했다.

에서 빼주기로 했다.

러를 웃돌며 다섯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및 의화보유에 이 435901000만달러로, 전달보다 9억 6000만달리 늘었다고 4인 불표했다. 3 환보유에운 지난 4월부터 19월까지 7개 될 연속 증가서를 이어갔다. 사상 최대 3원보유에 1육은 6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산됐다. 의원보유에이 늘어난 것은 미국생률 '비롯한 성화자산 운용 우어의 늘어난 성명의 했다. 아기에 달라이 기치 가 행하기면서 유국. 연. 파운드 등 비비와 단점하 3차이 2년 회사에서 보다를 하나면 보다를 하나에 모든 회사에서 보다를 하나면 보다를 하나에 모든 회사에서 보다를 하나면 보다를 하나면 기술 회사에서 보다를 하나면 이 4265억1000만달러로, 제당보다 59억 달러화 자신의 달러 환산액이 불어난 영 함도 작용됐다. 유로화의 일본 예화, 의 국파운드화 등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기

국 파운도화 등 6개국 문화 대비 당신 가. 지를 산출한 미 달년화 자수는 지난달 말 %56로, 9월 말보다 0.4% 내렸다. 자산법로 보면 국제와 회사제 등 유가 증권은 45억/1000만달년 증가한 385억 6000만달년했다. 순행에 두는 예지금은 13억/6000만달년 늘어난 30억/1000만달 3억/6000만달년 늘어난 30억/1000만달 라였다. 금은 47억9000만달라로 전달과 김익환 기자 loogoon@hankyung.com

"가족 명의 기획사 차려 탈세" -- 유명 연예인 적발

현금매출 누락·회삿돈 유용 혐의 속으로제약을맺고소득세를 달내기위 국세청,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한금 수입이 많은 정을 약용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 등 탈세 혐의 자 36명범인 32세, 개인사업자 6명에 대 해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발표했다.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때출 누락 (22명), 기업자급 사적 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현으로 구분 목권 활용(명) 동세 가지 유원으로 구입 만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떠입한 고소독 안에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번호 서 및 세탁사, 개업 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신은 가면 경로 112개명, 범인 평균 1886위인으로 파악됐다. 유명 연혁인 사사는 가족 명의로 언예 기계사를 세계 논세상 학생 연혁한 등 변화 명 한 행의를 받는다. 4씨는 예당 기회사소

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회사로부터 수십억위의

세금을 추진했다. 서금을 주장했다. 국내정은 한급 검제를 유도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때 출을 누막한 성향인과와 골프장 등도 적 발했다.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흥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목 윤리고 급여로 콘도바를 대거 사들여 배 동대 400년 프로웨트(1 돌린 행위도 포착했다.

정인설 기자 sursuri@horkyung.com



안녕적, 효과적 교육 운영을 위한 Zoom 전문 활용법, Live HR 과정 설계 및 다양한 IT Tool 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Zoom 열용 마스타(설슘) 구골 드라이브 및 IT도구 함위(실습) 의

1 보고 있는 보다 1 보고 있는 1

마포지구, 홍대앞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우리구 신촌로, 양화로번 없대 아포지구, 서교종 입대의 총대의 지구단위계획(안) 에 대하여 주민영란의건 및 관련부서 합의의건 조치계획용 반방하고 "국보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형명 제22조 및 "선물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입한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구박정		明相		B 80x1			
기본	H 9	768	150	70 E3 E39		200	
의료의3 시구인((의회구의		1627 HBE. 17882 \$1		2903416	BR30.8250	298.524.6	서용시 82 제 507-51호 다동간 82.00
04 070 88 46190877 47091474	#02 97011 8974	2687 428 301 921	547 428 \$1	330,762.0	B0444 B00 D	665,367.0	484842A 4296-113 (2169428

2. 자구단대회에 관한 결정 시항 (생): 경영대 신화 기 보자의 및 시대의 전한 결정 소시 - 현도자의 자꾸 도시카보니에 의한 경영 소시 - 현도자의 자꾸 도시카보니에 의한 시험 등 이 목자의 건축을 받아 관한 결정 소시 - 기계 구리카보에 결정 등에 관한 경영 3. 협명기간: 2000 11.5 - 2000 11.15 - 영향관은 10.97 조시카보이 2000 11.5 - 영향관은 10.97 조시카보이 2000 11.5 - 10.5 -

R. 파계도서: 미모지구 속대상 지구막시계회(Yhribble) 등 하시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 모 명: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2. 공모대상: 사업대상도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금융주선 업무. 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사 건설사건소시일

3. 사업대상토지

유형	사업지구	불목	주택규모	면적(㎡)	세대수(호)	용적률(%)	공급금액(백만원)	비고
공동주택	양주옥점	A-24	60~85m' 85m' \$70	68,762.7	938	160	88,703	내소유
귀농귀촌	전남	산동면				100		
주택	구레	외산리	85m*0 8}	25,127	30호 내외	0(8)	1,255	사유지

4. 신청자격: 공모지침서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일정 및 장소
공모 공고	2020, 11, 5(목) [LH 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세소식/공모안내]
참가의함서 접수	2020, 11, 19(목) - 2020, 11, 23(월) 15시까지
사업신청서류 점수	2021. 2. 5(금) LH 본사 9층 금융사업기획처 개발리츠부(경남 진주시 총의로 1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021, 2월 중 [LH 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세소식/공모안내]

6. 기타사항 = 광모지회서 등 구체적인 시험은 우리공사 출폐이지(www.lh.or.kx) 고적지원)세소식)광모인네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윤의희 : 한국모지주택공사 부동산공용사업처 금융사업2부 #055/922~4417~5

2020년 11월 5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획기사(2020.11.5.) - 건설 추락사 90%는 중소 영세현장 근로자(13면)

11 국제신문

• 사업명

'산재는 범죄다' 시리즈

● 실적

기획기사 3회, 특집기사 1회

- 기획기사(2020.08.04.)
- · 567만원 ··· 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1면)
- ·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3면)
- 기획기사(2020.08.05.)
- · (중) 외줄 타는 노동자(1면)
- · (중) 외줄 타는 노동자(3면)
- 기획기사(2020.08.06.)
- ·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5면)
- 특집기사(2020.08.13.)
- · 테스크 시각 "오늘 또 노동자가 죽었다"(18면)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제20613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051)500-5114

567만 원…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

산재는 기업범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부산판결문 81건 분석 결과 사망자발생 기소된 54곳 중 1곳 무죄·53곳 벌금형 그쳐 양형기준도 없어 '솜방망이'

지난 4월 21일 오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건물 1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추락했다. 50대 노동자 A 씨는 같은 층에서 전선배관 작업을 하다가 무 너진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동료 노동자 3명도 다쳤다. 시골사는 대기언 도공사 3명도 나겠다. 시공사는 내기입 S건설사였다. A 씨는 이곳에서 타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다가 정작 자신의 보 금자리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같은 대기업 S건 설사가 시공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공 사 현장. 지하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40대 노동자 B 씨가 숨졌다. 터널 내부 의 물을 빼내려고 배수구를 만드는 작업 을 하던 중 폭발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 았다. 누구도 B 씨의 '퇴근'을 보장해주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 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다. 피해자는 대부분 하정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름 모를 노동자는 오늘도 사업 혀장에서 떨어지고, 깔리



우주비행사탄美유인캡슐 무사귀환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이 2일(현지시간) 낙하산 4개를 편 채 플로 리다주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하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혈리와 로버트 벤켄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에서 64일 동안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고 이날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했다. ლ비스 **▶기사10면**

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은 공중으로 흩어진다.

국제신무은 2017년부터 옥해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57건에서 기소된 기업(법인)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53곳은 벌금형 (150만-2000만원),나머지 1곳은무죄 를 서 기비어도 나게 시마 사고를 취비바 은기업이노동자 1명의 '목숨값(벌금)'

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의 무게' 치고는 한없이 가볍다.

여기에다 저체 81건이 파격에서 번정 에선203명(법인, 자연인합계) 중 실형 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다. 81 건중19건은안전관리답당자 등만 처벌 받고기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의 원청 기업과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 고, 사업안정보건법위반양형 기준을 강

않게··· " 그저 가족을 위해 땀 흘러 일하 으로 내 돈은 평균 567만 위, 가족 품이 얻을 처벌하는 유일한 수단은 벌급형인 아예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권태성 부사고용노동청장은 "사업이 전보건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 로 분류된다. 사망 사고를 개인 과실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날수 있다는 특 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말했다. 권혁범신심범임동우기지

부산시 관계자는 "임용권자의 조정평 가 점수를 정기평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 추고, 평가단에 노무사를 영입하는 등 여 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다음달 중오는 11월 2년 임기 가 도래하는 부산도시공사와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여성가족개발원, 보지개발워을 맺기하는 것을 비롯해 10 월까지 23개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 무리하다

북항 2단계 개발이익 산복도로에 투자한다

국내 첫 결합개발 방식 도입 기존 구역인 범일·좌천동에 수정·초량동 일부 포함 재개발

부사항 분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 추 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산복도로에 투자된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된 '부산시 커소시언' (국 제신문지난3일자1면보도)이국내최 초로 산복도로 개발을 항만재개발 사업 에 포함시키는 '결합개발' 방식을 채택 하면서 가능해졌다.

박성훈부산시경제부시장은3일국내 최초로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북항2단 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재개 활용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 던 도시과 바다아의 단적을 극복하고 도 시 전체의 균형개발을 함께 달성하겠다 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동구 좌천동과 범일동 일부에 불과했던 북항재개발구 역(219만8000㎡)이 중앙대로를 중심 으로한 수정동과 초량동 일부까지 포함 한 228만 m'로 8만 m'기량 확대됐다. 사 업비도 3조8000억 원에서 4조4000억 원(국비2389억,민자4조1619억원)으

박부시장은 "그동안 항만과 산복도로 개발이 제각각 이뤄져 사업성이 낮은 사 복도로는 오히려 낙후됐다'며 "향만개발 로 벌어들인 수익을 산복도로 개발에 활 요학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격한개비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결합개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법 에 의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결합개 받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와 부사항만공사(RPA), 하국토지주택공 사(LH), 부산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해결책 음 마려학 수 있었다.

부산시 컨소시엄은 개발계획 18.03, 재무37.07,관리운영36.28,가점1.5점 등92.88점을받아우선협상대상자로선

부산시 첫 '기관장 2+1 책임제' 평가… 부산신보 이사장 탈락

6개 산하 공공기관장 평가 5명은 임기 1년 연장 결정

부산시가 도입한 '공공기관장 2+1 책임 제'에따르쳐 평가 결과 부사시용보증재 단이사장 한 명만 기준 점수를 넘지 못 하고 탈락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6개 시 산하기관장을 평가한 결과 부산 산하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 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경제진흥원장, 기 위해 시는 2018년 처음으로 '공공기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부산영어방송 재단 본부장,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은 연임이 결정됐으나 부산신용보증재 단이사장은다음달12일2년임기가만 료되면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 이사장은 작년 직원에 게 욕설을 퍼부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 았는데 이러한 전력이 이번 평가에 영향 을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 2+1 책임제'를 도압했다. 기관장 임 명2년 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 이를 바탕 으로 임기 연장(1년) 여부를 결정한다 는 내용으로 매년 시행하는 정기평가의 기관장 평가(80점)에 임용권자와 평가 단의 평가(각 5점과 15점)를 합산해최 종 점수를 산출한다. 점수가 80점을 넘 으면 연임, 80점 미만이면 임기가 만료 된다. 시는 평가 대상이 되는 23개 산하 기관장 중 우선 10월 내 임기가 끝나는 6 명에 대해 지난 6월 첫 평가에 돌압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삼황에서 분투하시는 부산시민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하며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처범규지법'(의안번호 1116호, 2020년 6월 29일 발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함께 막아주시길 호소합니다.

1.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일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업소(식당, 카페, 이미용실, 마트 통)의 직원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고 합시다. 손님들 가운데 동성애 작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그 작원을 해고한다면, 그 작원이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사장님에게 시청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청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한 회사에 일을 잘못하는 성소수자 작원이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어 해고했다고 합시다. 해고된 성소수자 작원이 자신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안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가 법적 소송을 지원할 경우 머리분의 회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당한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중(입중책임의 전환)해야 하기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고, 패소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대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이 여성 사워실에 들어와서 나는 외모는 남성이지만, 내 성정체성이 여성이기에 사워한다고 하면 여성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윤리적 혼란과 인구 절벽 가속화로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입니다.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되므로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에 대한 교육을 학교가 시행해도 학부모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윤리의 혼란과 저출산의 문제가 더욱 심화 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3.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차별을 금지할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처벌을 먹는 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처벌금지법, 고용인령처벌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약자 보호), 와국인처우법, 형와실호법, 에이즈예방법, 기간제법(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과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에 대한 정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회 이간법이 될 것이기에 막아야 합니다.

만족과 부산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처범금지법'을 막아주시며, 부산의 국회의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더욱 밝은 국기의 미래를 위해 처벌금지법의 제장을 지금 당장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8 4

기획기사(2020.8.4.) - 567만원 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1면)

구제시무 2020년 8월 4일 하으의 이슈 3

반성·합의했다고 소액 벌금뿐… 기업 안전관리 '뒷짐' 불러

산재는 기업범죄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4개월간 부산에서 노동자 124명이 일하다가 죽 었다. 철제코일사이에끼이고, 비계(높 은 곳에서 공사함 수 있도록 입시로 설치 는 것에서 등사할 구 보고록 답시도 될지 한 가설물)에서 떨어지고, 고압 전선에 감전되고, 타워크레인에 깔리고, 가스에 질식해서 숨졌다. 고된 노동을 버텨낸 후 에 가족과 따뚜한 저녁반을 나누리라 기 대했던이들노동자는, 그러나영원히퇴 근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무가볍다. 특히 원청이든 하청이든 이들을 고용한 기업 과 사업주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산업안 전보건법위반)에도단돈몇백만원으로 전보인합 위한/에보면 논빛적인 현프도 죗값을 치른다. 끊이지 않는 산재를 예방 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망책임안물었다

국제시문은 2017년부터 지나 5월까지 국제선군은 2017년구터 시간 6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인수해 '사회 연결망 분석(SNA)'을 진 행했다. 판결문 중 '이유(범죄 사실, 잉 형 이유등)'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명시 형용사부사동사 1588개를 텍스트마이 닝 기법으로 추출해 사용 빈도가 높은 19개 단어(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제 이)를 참아냈다. 그리고 이들 단어(이 유)가 각 피고인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전체 피고인 203명 (법인 69, 자연인 134명) 가운데 2개 이 상 단어와 연결되는 154명 (법인 38, 자 연인 116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양형이유가 된단어와 피고인 간 관계 를 연결망으로 그리면 눈에 띄는 특징이 발견된다. 피고인을 양형별로 표시한 그림①>을 보면, 19개 단어를 사이에 두 고 피고의 154명이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한성' 합의' '피해자과실'과연 결된 A그룹 피고인은 벌금형 또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중대 혐의'이면서 '추락' '사망' '외력' '과실치사' 등의 책 임을 추궁당한 B그룹 피고인은 벌금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비율이 높았다. '사망' '과실치사' 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중대 혐의'와는 연결 정도가 약한 C그룹 피고인은 집행 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많았다

다시피고인을신분별로나타낸〈그림 ②》를 보면, 더 분명한 특징이 드러난 다. A, B, C그룹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은 A그룹 피고인은 모두 기업(법인) 이다. B. C그룹피고인이대부분자연인 (안전관리 책임자)인 것과 대조를 이룬 다. 법원은 A그룹에 속한 기업에 '중대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반성'과 '한의' 가 이뤄졌고 '피해자 과실'도 있다는 점 을 인정했다. 기업 대다수가 국민 법 감 정과 달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2018년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2016년 12월 21일 무선 성서구 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안전 모와 각종 장비가 바닥에 흩어져 있다. 부산강서경찰서제공

판결문 법죄 사실·양형 이유에 피해자 과실 등 언급된 기업등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중대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된 안전관리 책임자 그룹과는 대조

노동계 "벌금이 안전 관리보다 비용 적다 생각할 수 있어" 반발 산안법 위반 양형기준 강화 필요

같은 사망 사고로 기소된 기업이 둘이 상이면, 원청이 하청보다 가벼운 형을 받 았다. 오피스텔신축공사때위험한업무 지시로 5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산재에서 하청 회사는 벌금 800만 원, 원 청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2019년

4월 부산지법 판결)받는 식이다. 산재 사망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질식 ·외력보다는 압착(깔림·끼임)이 상대적 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법인과 자연 이용한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을뿐더러, 항소심에서는 1심 의 형량이 감형되기 일쑤였다.

■불의의 사고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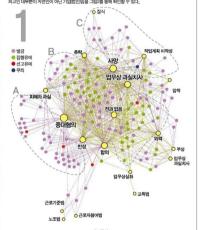
노동계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기 업에 '벌금이 안전관리에 들이는 비용보 다 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발하다. 201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치사) 사건양형 기준은 징역 6 월~1년 6월이다. 감경하면 징역 4~6월, 가중 처벌하면 징역 10월~3년 6월이다.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은 벌금형밖에 없 는데, 현행양형기준에는 벌금형 규정이 전혀없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 전보건법(김용균법)은 기업의 벌금형 수위를 종전 1억 원이하에서 10억 원이 하로 10배 높였지만, 아직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속한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 기준을 별도 범 죄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재가 '과실'이나 '불의의 사고'가 아니 라,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않아발생하 는 '기언 번집'라는 이시이 화사대야 하 는 기업 임석 다는 단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6월 이재갑 고용노동 부 장관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직 접 양형 기준 조정을 요청하고, 최근 노 동계를 중심으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이 활발한 것도 같은 맥락 이다.

이번에 국제시문이 분석한 판결문 중 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대로 옮긴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사업 장, 공사 현장 등을 가동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받지하기 위하여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하 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 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 게 하으로써 박생하 이명 사고에 대하여 대는 과실범이라거나 주의 의무를 다히 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 수 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 하게처벌할 수만은 없다'. 이미 2018년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에서 선고된 이 판결의 취지가 지금 얼마 나지켜지고있는지,오늘도안전한퇴근 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묻는다. 권핵범신심범임동우기자 pearl@kookje.co.kr

부산지역 산업재해 판결 양형 연결망





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부산 산재사범 참작 사유 인정 3년간 60.9%에 벌금형 선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법정에 서지 못한 다.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다. 그러나산 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노동 자가 숨진 사건에서 '선처'받은 피고인 상당수는 '피해자에게도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정받았다.

점을 인성된었다. 2017년~2020년 5월 부산지역 법원에 서 판결이 확정된 산재 사건 81건에는 203명의 피고인이 등장한다. 이 중노동 자가 숨진 사건은 57건이다. 사망 사건 피고인 156명 중 101명(법인 6, 자연인 95명)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처럼 노동자가 숨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인 전관리 책임자 등 자연인 95명은 아무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들 중 45명은 징 역-급고형이 진행유에, 49명은 이보다 가벼운벌금형,1명은무죄를받았다.양 형기준인 '징역6월~1년6월'에한참못 미치다

산재 사범의 양형에는 '피해자 과실 과 '합의'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 체 판결문 81건에서 재판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크게 4가지를 든다. ▷피해자 과 실 ▷반성 ▷합의(처벌을 원치 않음) ▷ 전과(전력) 없음이다. '피해자 과실'이 언급된 사건은 피고인의 71.4%가 벌금 형을 받았다. '합의'가 등장한 사건도 60.2%, '전과 없음'은 40.9%, '반성'은 50.7%가 벌금형에 그쳤다.

사망사고로 좁혀봐도상황은같다. 노 동자가 숨진 사건 중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인 60.9%에게 벌금형이 선 고됐다. 나머지 사유별 벌금형 비율도 합의' 47.5%, '전과 없음' 39.3%, '반 성' 39.2%에 달했다. 신심범기자



기획기사(2020.8.4.) - (상)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3면)





(33판) 제20614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051)500-5114

부울경 최고신문 kookje

해기사 현장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실습계약 미체결 등 선사에 250만~360만 원 과태료뿐 인권단체 "생색내기 그쳐"

정부가지난2월한국해양대생이해기사 현장실습도중숨진사건(국제신문2월 12일자 10명 등 보도)과 관련해 식습생 12월사 10년 등 모도)과 관련해 설립생 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 러나 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해 당 선사에 250만~360만 원의 과태료만 을 물린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솜방망 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직원법 사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개정아이 요지는 서사가 해기사 현장 실습생과 승선 실습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조항 신설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선박지원법' 개 정을 통해 현장실습때 실습계약 체결을

하지만 제재 수위는 식습 계약 미체결 이나 표준협약서 미사용 때 360만 원의 괴태료를 부괴하는 수준이다. 또 실습계 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선 사는 25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는 해양대생 사망 당시 강력한 실습 생 권리보호 대책 수립 의지를 밝힌 정부 약속과는 상반된다. 인권단체 등은 정부 의 '생색내기'라고 평가절하한다. 이 정 도 과태로로는 식습 현장이 이권유리 해 도 파데요도는 살답 현정의 인천유인 영 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턱 없이 낮은 과태료 외에 더 이상의 제 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취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다.

해수부층은 "과태로는 유사사례를 참 없는 것은 맞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과 태근 보과아 병행해 식습색에게 충분하 휴식시간 보장, 실습 운영 실태 점검 의 무화 등을 담은 각종 법률도 순차적으로 기장된 세약이어서 인권유린 행위가 크 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해명했 다. 영화하기"



기일이 된 한가위 … 참사 예견된 현장에 노동자만 출근했다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상 몇 푼 모아서 떼돈 만들겠다고 욕심부 리는 게 아니다. 고용주가 "일하라"고 시 키면 노동자는 가족을 뒤로한 채 집을 나 지근 도공사는 가득을 뒤모던 세 입을 다 서야 한다. 신분이 불안정한 하청·재하 청 노동자일수록 고용주의 요구를 뿌리 치기 어렵다. 다단계 고용 구조' 맨이래 에 있는 노동자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제 몸을 부려야한다. '쉬겠다'며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다가는 '부당한 해고'를 건정학 수박에 **있**다.

민족치대명적에도누군가는 약하다. 품

안전 책임자도 없는 명절연휴 입터 불려나온 하첫 노동자들 위태로운 작업 중 사망·중상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인재

국제신문이 분석한 2017년~올해 5월 산업자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부산지역 법원 확정판결 81건) 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다. A(당시 40) 씨도 그랬다. 2017년 10월 8일. A 씨는 부산에서 경북의 한 건물 신축 공사 장까지 일하러 갔다. 재해 역시 명절이라 고 쉬지 않았다. A 씨는 건물 3층 높이 (10m)에서떨어져고관절을다쳤다.금 속창호 유리 설치업체 노동자인 A 씨와 동료B(당시47) 씨는 건물창틀에하나 당 52kg짜리 유리 4개를 끼우라는 지시 를받았다. 회사가 한 하청 건설사로부터

다시하도급받은 작업이었다. A,B 씨는 곤돌라(건물 옥상이나 중 가층에 로프를 걸어 외벽이나 창의 보수 등에 사용하는 간이 비계)를 타고 건물 외벽을 올랐다. 10m 상공에서 이뤄진 불안한 노동이었다. 두하청 노동자는 곤 돌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벽에 고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고리가 풀리면서 곤돌 라와건물사이에간격이생겼다. 동시에 고독라는 하쪽이 아래로 기울면서 크게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어버린 두 노동자 는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가 응급 치료를 받을 때 동료 B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R 씨는 중증뇌손상으로숨졌다.이들에게비극 이들이다친날은 추석연휴였다.

당시 공사장의 안전시설은 매우 부실 했다. 현장에 두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는 아예 없었다. 안전관리 책임자 인 회사 현장소장은 추석 연휴라는 이유 로출근하지않았다. 두하청노동자에게 닥친 재해는 결코 '불의의 사고'가 아니 었던 셈이다. 권혁범신심범임통우기자

▶3면으로 넘김

올 수능 12월 3일···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응시 가능

교육부 대입관리방향 발표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자 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 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각시 도 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대입관리방향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수

능시험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방역 관 리가 가능한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 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준다는 게 기본 원 칙이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사태 발생으 로수험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전 환되지 않도록 수능 일주일~3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학교에 권장 하고, 수능 시험 때는 수험생을 일반 수 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

레게르 구조하다

하루2회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한 뒤 사전 에고지된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고, 발 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지난하 까지 일반 시험실 수험생 입실인원은 28 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줄이다. 교실내모든책상에전면기림막도설치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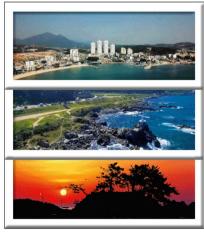
아프면

생은 치료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 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 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 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이 원칙이 고,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할 계 획"이라고밝혔다.

정철욱기자k ▶관련기사6면

가로 아래 문화 '활짝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오라대 #시랑대 #황학(내

> #홍연폭포 #해통용궁사

기획기사(2020.8.5.) - (중)외줄 타는 노동자(1면)

국제신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이슈 3

푼돈에 기업책임 무마되니… '구명줄 둬라'는 법규도 추락

.....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곤돌라 안전난간 한쪽만 두거나 끊어져 있는 로프 선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히한 사업주 법원 질책했지만 결국 낮은 형량 수칙 어긴 노동자 과실 들기도

>> 1면서기사받음

산압안전보건가준상곤돌라같은탑승형 가구는 순반구에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 내부에는 안전대나 무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을 지시 할 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끔 해야 한다.

■기일이돼버린한가위

한기술 인기 (1) 전기 (

불간증을 잘해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기업과 책임자들은 증명을 선고면지 않았다. 자백 '반성' 함의'등이 아유였다. 선고면 행당은 하 청 건설사 발금 400만 원, 재하청 회사별 급 600만 원, 하청 현점소장 징역 6월에 집행위에 2년, 재하청 현점소장 징역 10 8세에 진행하여 2년이 사이자다

■서푼짜리청년목숨

생대답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숨져도 돈 몇 푼이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2018년 4월 24일 바판공 C(당시 29) 씨 는 부산의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배 용접을하고 있었다. 회사가하도급계 악을 했기에 남의 공장 에서 일했다. 어 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후 C 씨는 용접 상 태를 확인하려고 배판 안으로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독할 관리자는 없었다.

C 씨는 배관 속에서 숨이 마려 죽었다. 어르곤 가스가 원안이었다. 수많은 불법 이 확인됐다. 작업장에는 안전 공간이 확 보되지 않았다. 가스가 새는 선소됩단기 가 사용된 사실도 드라냈다. 작업에 쓰인 와이어모표 중에는 소선 (로프 한 가디에 든 작은 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도 발 격됐다. 현장은 '형안의 도가나'였다.

전대는 현장은 '불안의 도가나'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충분한 안전 조가 경험돼 언제든지 중대한 재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형벌은 국민 법 건강되는 자이가 있다. 원청 회 사는 병급 700만 원. 하청 에서는 병급 500만 원. 하청 대표이사와 원청 전지공 장장은 발등 500만 원. 항청 현지 공장경 은 병급 400만 원은 선교받았다.

■'관리'되지 않는 안전

특수화물 순송안제 사장 D 씨는 2016 년 8월 6일 노동자 E(당시 40), F(당시 53) 씨에게 벨크로리에는 황산(농도 98 %)을 다른 뱅크로리로 옮기라고 자시했 다. 두 노동자는 뱅크로리 간 호스들 연 절했다. 그런데 환산을 많아내는 팬프의 압력을 호스가 이겨내지 못해 평산이 사 방으로 분통했다. 들은 전신화상을 많았 다. F/씨는 1종인 되 순재다

사업주는 동도 20% 이상인 황산을 다 를 때 방호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보호 복-보호장갑 경화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장인D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만부가 내린 행받은 별 금 300만 원에 그쳤다. 판결단에는 피해 자들이 보호정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권핵범임동우신심범기자mets@kookje.co.kr



"시민 산재 경각심 높아지는데 검찰·법원은 단순사고로 치부"

부산 산안법 위반 피고인 중 5년간 91%가 약식기소 그쳐 법원도 단독 재판부 71% 배당 "사건 가볍게 여겨 처벌 소극적"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김 군(당시 19), 2018년 12월 대안화력발전소 김용 군(당시 24) 씨 사건으로 높아진 경각심 에 관취 검찰과 법원은 산업재해(산업안 전보건법위반) 구시와 책임자 처벌에소 그렇어되는 1750시 1871년다.

국제이라는 자회이 제/된다. 4일 검결청 범죄분석통계 부산자건 범 정자 처분 경기를 보면 2014~2018년 산 암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2623명 가운 대기소료인 이름은 2149명 (81.9%)이다. 그타나 기소료 214명명 중 1959명 (91.2%)은 공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만하는 역식기소에 고쳤다. 약식기소 는 장역형이나 급고했어 이산 범결한 전체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세) 사건 영행 기준은 징역 6월~1년 (5월)이나, 사건 영행 기준은 징역 6월~1년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산재 사건 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 다. 산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애진 변 장사는 산재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 내부 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중요한 사 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범죄 등을 처리하는 게 검사 실적에 도움이 돼산안 법 위반 사건은 사소하게 여긴다"고 꼬집

법원 역시 작극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국제신분이 분석한 81 건의 산재판 결종 항소심을 제외한 74건 가운데53건 (71.6%)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3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와 달리 단 독대본부 사건은 상대적으로 가냅다고 안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부산지부 안상배 사무국장은 '산재를 즐어야 한다 는 시민 공간대는 충분히 황성됐지만. 김 출과 법원은 이런 공간대와 동필안이 및 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두 기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먼저 관련 법의 처변 기준을

대폭 울려야 한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산재를 내 학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해교수는 두 가만이 산재에 소극적인 이 유는 단순 사고로 보는 탓이다. 즉 사건 수 가 노동서를 다치게 할 이도가 없었음 보 미리 전체하는 것'이라며 '사고로 치하나 시간에서 벗어나야 산재를 정확히 바라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노동 안지 감수성을 걸려야 산재 사건을 제대로 보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guardian@kookje.co.



10월 5일, H씨 변전실 고압 충전부에 감전 사망

기획기사(2020.8.5.) - (중)외줄 타는 노동자(3면)

구제시무 2020년 8월 6일 모으일 이슈 5

도급 체제 건설현장… 원청 처벌 강화해야 안전사고 막는다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 3명이 201 m 아래로 추락해 죽었 다. 이들은 건물 이부 유리(커트웍)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고층용 작업대 (PCS-C)를 위충으로 올리고 있었다 방음 디고 이더 자어대가 가자기 병명에 서 떨어져 나갔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펌 프기에 레미콘을 넣던 다른 노동자도 떨 어진 작업대에 맞아 숨졌다. 이 외에도 작업대 추락 직전 몸을 다친 노동자기 둘, 눈앞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가 넷이었다. 모두 4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2018년 3월 2일 부산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A동 55층에서 시작된 바극이다.

■"도대체 책임자가 누군가" 참사의 물리적 원인은 자명했다. 지난 2월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선고한 1 심 판결에 참사 원인이 담겼다. 먼저 PCS-C는 콘크리트 벽에 묻힌 앵커(고 정대)에 발판을 연결해 받치는 식으로 석계되다. 무게를 지탱하는 앵커는 고깍 모양 '클라이밍 콘'과 철근 모양 '타이로 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데, 당시 작업에는 계획상 길이 300mm 타이 로드를쓰기로 돼있었다. 그러나실제로 는 150, 180mm 타이로드가 임의로 공급 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작언대 설치를 맡은 노동자들은 어 넣어야 하는데도 10.4~12.4mm만 연 격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이런 사식을 악 고도 방치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작업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졌다. 지지력보다하중이 더큰상황

을 방관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물리적 원인과달리, 구조적 원인을 따 지는일은복잡했다. 책임자를 지목할 수 없는 탓이었다. 재판부조차 혼란스러워 했다. 건물 시공사, 커튼월 시공사, PCS -C납품업체는 저마다 작업자들의 업무 에 직전 지시 감독학 의무 또는 권하이 에 되습 사사님들의 되는 모든 전단이 없고, 지시 감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층적 도급관계 의 가장 밑에서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 작 업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 업하고, 누구로부터 안전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했다.

상황은 정말 그랬다. 숨진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받고, 작업의 최종 승인 절차 를 거친 상대는 건물 시공사인 대기업 건



5일 부산 도심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재 사업장과는 관련 없음.

하첫 재하첫 중층적 구조에서 작업 최종 승인자 대기업인데 러낸다 사고 때 하첫에 더 무거운 형법 현행 산안법 사업주 처벌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 높아

건물시공사 선임현장소장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커튼월 시공사현장소장 징역 6월 집행유에 1년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CS-C 납품업체 기술지원팀원 글고 8월 집행유예 1년 그리사 총괄감리원 트월 시공사 현장소장 벌금 1000만원 벌금 1500만원 PCS-C 납품업체

◇ 부산해운대구초고층 건물 A동 추락사고 1심판결

설사였다. 커튼월 시공사로부터는 앵커 설치와작업일정을지시받았다. 자재불 량이나 앵커 설치 여부를 보고한 곳은 PCS-C납품업체였다.임금은인력공급 업체 등을 통해 받았다. 사실상 도급관계 의 모든 곳에서 감독·지시를 받은 셈이 다. 공사 현장에서 십장 역할을 맡은 한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 강독자가 누구이지 문자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이 이런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

그러나 도급관계의 최상위 사업주는 형벌을 피했다. 재판부는 중층적 도급관 계의 상층부가 근본적인 재해 방지 능력 과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산재특성상 실제 노동자들을 지시 감독하는 '아래에 위치한주체'가무거운책임을 지게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2 심이 진행 중이다.

■"도급관계 최상위자 처벌을"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노동자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최종 권한을 가진 쪽을 강 하게 처벌해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자-근로 자'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면 기업을 처벌하기 어렵다. 원청 기업이 늘 '선처' 받는근거다

게다가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범 법에 대한 고의와 위반 사실, 그리고 이 런 사안이 노동자의 사망을 불렀다는 점 을입증해야만한다. 또사업주를처벌하 려면그에게안전확보의법적의무가있 어야 하고, 노동자 죽음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관리자'다. 사업주가 지정한 또 다른 노

동자라는 막이다. 이렇다 보니 경영 책임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기업살인 법'으로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했고, 시민사회에서 도 법제정운동본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양 을 청구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부사에서도 도인 논이가 뜨겁다. 부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결의문' 을 채택했다. 지난달 2일 민주노총 부산 본부에서는 법제정을 위해 지역이 해야 할 일을 놓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

로는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형법이론상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법 률적 제삼자인 경영 책임자를 범죄자로 '가주'하는 게 가능하지에 과하 의문도 제기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 동본부 김혜진 활동가는 "처벌을 강화하 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예방할 수 있는데도 비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이고 범죄라 는사실을알려야한다. 그래야만기업에 의한죽음에 관대해지지않고, 이를 막을

권혁범임동우신심범기자m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달 2일 민주노동 부산본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

◇ 선 접근선보건접 Y5 등대체에기됩시글답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제정운동본부법안기준)					
처벌대상	실질적 계약관계의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자, 노동자	기업(법인),최고 경영책임자,공무원					
양형(사망)	자연인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 금, 법인 10억원 이하벌금	자연인3년 이상유기징역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20억원 벌금					
기업 처분	영업 정지	영업정지,보호관찰,공공계약배제,영업 허가취소					
공무원 처벌	규정 없음	1년이상징역또는3000만~3억원벌금					
소웨베사채이	그제어요	소체에이 10세르 너지 아느 버의에 서비사					

부산 산재 사망사고 4년간 208건 현장 근로감독관은 고작 56명뿐

14만여 곳 정검에 인련 태부족 "지자체에 감독 권한 나누어야"

부사지역 사언재해가 끊이지 않지만 근 로감독관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감 독관 증원에 부담을 호소한다.

5일국제신문이정보공개청구를통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올해 4월 부산에서 발생 한산재사망사고는 208건에 달한다. 건 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 장에서 사망 사고가 잦았다. 사고 원인은 '떨어진' '끼인' '부딪힌' 순이다.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지 만 산업 현장 안전을 점검할 근로감독관 은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늘 기는 했다. 2017년 32명이었던 부산지 역근로감독관은이달 현재 56명까지 증 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담당해야할 사업 체는 14만5000여 개나 되다

직장 내 감질,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

6만4892개 36명 (1인당 1802개) 루선생 동·중·남·서·영도· ^{나치·보사진}·연제구) 사이트라면 전체적 부산 동부지청 (수영·쇄윤대 등리 급장구.기광교 부산 북부지청 (북·사상·강서구) 3만4600개 9명 (1인당 384470)

까지 만느다

혔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 수를 꾸준히 늘 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관계자는 "현정부일자리로 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내년까지 근로 감독관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증원이 끝나면 저국이 근로감독과은 2311명으 로 불어난다'며 "예산 문제로 내년 이후 증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찾아 야한다고강조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매년 근로감독관 수를 늘릴 수 없 다면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넘 겨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하는 등 교실적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

임동우기자 quardi



기획기사(2020.8.6.) - (하)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5면)

18 **오피니**어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국제시다

도청도설 수해 정치



물건 분구의 사람은 분장되가 (논구시장 사 음으로 50일을 훌쩍 넘어선 테다 감우 양도 기록적이다. 전국 곳곳은 엄청난 수해 피해 를 입고 있다. 수해현장에는 어김없이 정치 권인사들이 복적거리고 있다. 이른바 '수해 정치'현장이다. 강춘진 논설위원

3시 현장이다. 정치적인액션과이미지로존재감을 드러 내는 사람들이 국민적 고통 현장에 모습은

음해 장마는 연일 기록음 깨고 있다. 지난 6 월24일부터 시작된 음 장마기간은 사상처

경험신설위원 내는 사람들이 국민의 교통 현경에 날녀를 나아마테바마마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무겁으면 할 다운만 없다. 국 민적 자자를 얻기위해 순간순간 등품적 간 각을 발휘하다 하는 정치인들은 폐해 현경에 모습을 느끼낼 수에서 많는 한 삼이다. 국민과 형제한 교육이 정치일환자 보험이 될 것이라는 유권자를 의 소개한 바람을 자바린 수없지 않는가.

리고크린 마립을 사비를 수 없어 많은가. 문제는 재난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높으신 양반' 의 지정성이다. 국민은 그지정성음 동물적 감각으로 제대로 피악하다는 점 에서 요즘정치인들은 '수해정치' 등 하기가 고단한 편이다. 민생 현장음찬 에서 요즘 당치인들은 '숙제장가'를 하가가 고난한반이다. 만원 현용을 찾 아 정치적 효과를 사용기자는 아도가 자기 연습로 말해 지역을 받는 경우 가 바일하지만 깨달이다. 현용을 찾아국민에게 보고한다는 형태로 날린인 중 삿이 우스생스되는 소문 변경해 국민은 이뤄한 웃음을 날리기 일쑤다. 급기가 일본 위점이나는 단충 첫 자리하게 발동했고 그런 다. 수례 지역을 찾은 여야 정치권의 성관면 했다가 세근의 일반이에 근로표

리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인 더 불어민주단의 텃밭인 중남 수해 피해 현장을 먼저 참자. 민주단도 뒤늦게 할 어떤 가능의 자연인 요한 부에 보여 영영을 먼저 있다. 반약되는 위송에 대대적인 현장 봉사활동을 받아는 장면까지 연결하는, 민주당이 첫번에서 아당되다 한번 늦게 반성 아슈플 선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대수나 싫다. 수에 현장의 정치권 봉사활동이 복구에 어느 정도

SNS를 통해 펼친 각당 '수해 정치'의 명암도 엇갈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 사진을 첨부했 다가 여론의 무매를 맞았다. 십 대표의 숙과 장화 등이 너무 깨끗한 것이 문 제가 됐는데 이마보사랑도 시작저에 찢은 사지으로 바이다. 참지마 군민 제가 됐는데, 아마용사활동 시작 전에 찍은 사건으로 요한다. 하시간 학간 은 진정성에 와구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닥분에 통합당 태영호, 김미해 의원 동은수해 현장에서 진흥으로 밤박이된 옷처럼을 공개해 호평을 받기 도 했다. 어쨌든 이번 '수해 정치' 파동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관 인 사들의 보여주기 식 행보는이제 그만 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

서상균 그림창



세상임기

확선준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예부터 건강 하게 살다고통 없이 죽는 것은 큰 복이라 고했다. 죽음으로가는 같이 짧으면 짧음 수록좋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 지,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질 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 진커다란 명제다.

최근 스웨덴에서 64세의 한 남성이 의 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는 하무하루 근육이 메비되며 허물어져 가는 ALS(근위축성축색경화)라는 원 인 분명의 불치병에 걸렸다. 2년 전 이 질 병이 발목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 계 곳곳을 다니며 사이를 대회에 참석하는 고 매년 2만50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2018년 가음에는 자전거 세계 일주름 계 확하기도 했던 매우 활동적이고 건장한 사이를 선수였다. 그러나 이 분치병으로

안락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다

하루가 다르게 신체 곳곳의 근육이 마비 나기고 생음 마감했다. 하루가 다르게 산제 곳곳의 근육이 마리 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교통과 무락감에 시달라진 그는스위스의 병원(Oignitas) 에 안락시를 산청하여 을 7월 초에 생을 마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라나 코로나19 사태로 그의 스위스

행은 무산되었다. 그가 의사의 도움으로 생음 마감하기 직전에는 폐 근육이 작동 생을 마감하기 작전에는 폐 근목이 작동 하지 않아 산소를 주입해야 했고 오른팔 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다. 매일 아침 그는 내가 케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음까 메일더 나빠지는 겠만 느 꺼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 한탄하며 안락사를 금지한 스웨덴에 무척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좌절감을 그는 자신의SNS에 호소했고, 이것을 본스웨

자신의SNS에 호소했고, 이것을 본 스웨 면의 한 의사가 그의 자략을 방문해 치사 함의 수민재를 제공하여 죽음을 도했다. 소웨덴 남성이 될지됐으로 안락시를 텍 한것과는달리 호주의 104세 구달박사는 2년 전 다른 이유로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했다. 그는 84세에 운전면하를 취소당 8k고 90세가 넘어가며 사는 것에 더는 재 미나 해보유 느끼지 무해되며 나이 주유 도결국나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는 말을

는 사람이 사실 (suicide)은 불법이 아니다. 아마 죽은 사람에게 최를 붙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 사가 환자에게 직접 악물을 투여해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eutanas) 나의사 가 제공하는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마시 거나 투입하여 사맛에 이르는 '사맛보조' (광의의 안락시에 포함되는 개념) 모두 (정보회 전력사에 포함되고는 개함) 모두 금지돼 있다. 위 남성에게 사망보조를 한 스웨덴의사는이로써 의사면허중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램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이 죽음을 도왔고 자신의 행동이 옮다고 믿 으며 안락사 문제를 사회적 의제가 되기 를 원했다.

현재스위스와같이 연락사를 허용하는 면세 그 뒤 그 되어 한국시를 이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폭셈부르크, 독 일, 캐나다, 홈름비아, 호주의 빅토리아주 와 미국의 일부 주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다른 여러 주에서 안락사 문 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 에서도최근87명의 의사,정치인,법률가 등이 곳동으로 안락사 허용음 요청하는 글음 스웨덴 최대 일간지에 실어 이 문제

최근 독일의 경우 헌법에 보자된 '죽음 최근 독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역을 수 있는 권리' 이죽음에 대한 보조를 받음 수 있는 권리' 자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음 내렸고, 캐나다에서는 2015년 대법원에서 본지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성 언인 원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다시 는 것은 '인권' 이라고 선언하며 안락사름 금지하는 것은 삶,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 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락 사 찬성의 주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살

사 산성의 수 본러는 의외로 간단하다. 삶 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인 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생명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크게 환영합 일이고 연락사에 한 걸음 근 접한 결정이다. 이제 안락사에 관한 논의 접한 필상이다. 에서 한국사에 담한 돈의 도 본격적으로 이무어지기를 회장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았듯 불지탱으로 육 체제, 정신적 고통만 겪는 경우나아주고 랭으로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비참하게 죽음만 기다리는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의 손음 잡고 자신의 삶을 깨끗이 마무리함 손을 입고 사인의 병호 개조의 의구되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거부되어서는 안 될 인권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데스크시각



권혁범

"주어다" 이 표현은 시모에 잘 쓰지 않는 작었다. 이 표현은 산란에 잘 쓰시 않는 다. 대신 숨했다. "목숨을 잃었다 정도로 쓴다. 기자가 되면처음 배우는 기본증하 나다. 보통 사건 사고기사에 사용하는 표 현인데, 끔찍하고 잔인한 것을 직접적으 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다. 그런데최근 죽었다'는 표현을 대는고신 문에 썼다. 지난 4-6일 연재한 기획 시리 문에 썼다. 지난 4·6일 인재한 기회 시리 조 산재는 기업 범죄다에서다. 첫 기사 는 이렇게 시작한다. 2018년부터 음해 4 월까지 2년 4개월간 부산에서 노동자 124 명이 일하다가 죽었다. 재범률 97호, 전국에서 하무 3명, 부산

에서만 1주일에 1명필로 노동자의 생명음 악아가는 범죄, 사업재해(사업안전보건 법 위반)다. 수많은 하철 노동자가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러 나갔다가 영원히 퇴근하지 못한다.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

오늘 또 노동자가 죽었다

고 같이고 부딪히고 질식해서 죽는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알리려면, 적어도 '죽었다'고 써야했다. 최대한 무섭고, 무 겁게.

시리즈제목을정하는과정에서 내부 이 시리스제목을 당하는 과당에서 내무 이 점이 있었다. 산제는 기업 행외다. 너무 나 당연한 말을 제목으로 음리는 게 타당 하나는 가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로 하산제를 기원이 저지른법을 인식하 지생는다. 과실 열의의 시끄'쯤으로 여 긴다. 2017년부터 음해 당ਆ기 부산지역 반원에서 환경되는 사회 1년 제공을 되게 법원에서 확정된 산재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 203명 가운데 단 1명도 실형을 선 고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부주의 고한지 않았다. 고등자리 독급을 구구되 나 미치생각지 못한 사고 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결과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당 연한 많은 반드시시리즈의 제목이 돼야만 했다. 산재가 과실도, 분의의 사고도 아니라

는 증거는 많다. 국제신문이 분석한 판결 문 속회생자들도기업의 분법에 죽임당했 다. 추석 연휴에 불러 나가 노동자는 안전 대도 지급받지 못한 채 건물 외벽에 올랐 다가 떨어져 죽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명절 인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참사가에고된 현장에 '노동자만' 출근했 다. 부산 초고충 건물에서 작업대가 추락 해 노동자 4명이죽은 사고도 규정을 어긴 탓이었다. 작업대 부품 중하나가 계획상 길이보다 훨씬 짧은 것이 임의로 제공됐 다 노투자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201 == 상곳에서 일했다. 이게 과실이며 분의의

성공에서 열했다. 이게 화원이며 필의되 사고인가. 같은 대기업 시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수년 전 비슷한 참사가 별어됐던 그 공간 에서 노동자는 오늘도 죽고 또 죽는다. 책 임지겠다. 잘못했다는 사업주는 거의 없 다. 하철에 재하철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다. 하장에 재하정으로 아이지는 중중적 도급관계에서 즉개나 채울받는이나인제 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정 노동자와 그들 윤 감독하는 또 다른 노동자라. 기업이 안 전 관리에 돈을 들어는 것보다 노동자의 목숨값 을 내는게 단편리하고 싸다고생 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위은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는 한다. 판결문에도 언급된다. 단지 비 용과 시간을줄이는 편의성만을 위해안전 조치를충분히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 사고 에 대해 더는 과실법이라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 수치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 하게 처벌할 수없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법원이 기업이나

하시만 여기에서는 (발함이 가입이다. 사업주에게신 교회는 생명은 기업하다 돈 몇백만원 발금함에 그친다. 이해 못 함 일은 여니다. 범이 그렇다. 법원은 법의 한 체금 언급하기는 현다. '영종적 도급관계 의 상통부(기업·사업주)가근본적인제해 방지 능력과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산 재 특성상 실제 노동자들을 지시 감독하 는 아래에 위치한 주체가 무거운 책임음 지게 되는현실음부인함수 없다", 엄하게 시게 되는 연합을 부인할 수 없다. 김하게 처벌해야 할 기업사업주를 '전체할 수봐' 에 없는 '법이라면 효용이 없다. 기존 산업 안전보건법 양병 기준을 강화하고, 그걸 로 모자라면 중대자해기업처벌법을 제정 해야한다. 그래야후진적산재름막고, 노 동자의 안전한 퇴근음 지켜줄 수 있다. 여 론이 달아오른 지금이 기회다. 시란 살리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합정보지와 학교장 공수명리보지와 학교장 한국풍수명리총연합회 ____ 의장 경영학박사 김 기 명



19구(하수 1년) 17 - 87(12) 조스크림(10) 제시(1) 40(1) 19 (14) 10 (14) 1

환국 등 수명 리송 연합 회 의관 경영학박사김 기명 예상













장레지도사는 이제 국가자격증 시대입니다~!

- 중하지도시는 이에 <mark>국가 자꾸했다.</mark> 중하지도시는 이에 국가 자꾸했다. 중하지도시는 자꾸지않다. 다. 국간의 보안에 된 기업으로 2022 에 되어져 시에고 20 등해결하다. 다는 보안기업다. 다. 국간의 보안에 된 이번 학생의 노래한다. 중하지도시한 국업의 소에의 따라 경험하게 국가하는 제공으로 경험되고, 시작되고, 의자도 및 번 등 해결되고, 경험하게 중하면서 주었다.
- 주 사용에 다시는 각각이다. 사 지원에 가 그 국가에 등 수에는 수 있습니다. 다 전호국의 국가에 등 주민도 취약을 수 있습니다. 에 없는 대한 자리들은 취약을 수 있습니다. 이 전공 : 독무도나, 사업이다. 유 1888의 스로션 전략하여
- 사, 현실(대표함으로 등사 등. 4지 전략 : 중수상당시되고함 , 부동산중수상당시되고함 당, 작업시지(전략, 중수요당시되고함), 등표 Association), 국제중수업의 요료함).
- 구기자의 경화자도사 취직 교준교육자목 · 강조원은, 용사보급의, 취임의, 임안 및 강조원은, 경영보기, 경우주면, 경시법규, 경세점, 공격사장 (

사례에지기의 전체관로바지키(관계관로바지 전공, 중수의리에지 전공) | 입사상당교수 | 경기및 교수 M. 010-7585-1024 E. Mam5559 ebistac. kr | 이 남구 교수 M. 010-2455-7882 E. Imm3495 ebistac. kr

BIST मध्यमकाश्चितक

특집기사(2020.8.13.) - 테스크 시각 "오늘 또 노동자가 죽었다"(18면)